

은평구립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 사업' 작품집

# 진정한 나를 찾아나는 글쓰기 여행

지들은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도서관협회

## 은평구립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作品集입니다.



# 발 간 사

2011년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3년간 사업을 하며 많은 지역주민과 문학을 매개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 사업을 지원해 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한 해를 되돌아보는 12월에 이렇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여행'을 함께한 회원들의 글을 모아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들이 도서관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책을 매개로 소중한 만남을 지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희망 속에 출발하였던 2011년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노력하는 참신한 도서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립도서관장  
엄 무 성

2011. 12

은평구립도서관장 엄 무 성



# 기 념 사

따사로운 봄날, 은평 구립 도서관을 처음 마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멋스러운 나무가 우거진 뽕죽 뽕죽한 도서관 전경이 마치 '마법의 성'을 연상 시켰지요.

그 '마법의 성'에서 '마법'처럼 글 쓰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결실이 책이 되어 나온 답니다.

이제 겨우 '첫 걸음마'이고 그런 연습의 모습들을 책에 옮겼습니다. 많이 보아 주시고 나무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배웁니다.

연습의 과정을 지켜보시며 묵묵히 도와주신 남윤창 팀장님과 김동석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1. 12

지도 작가 변혜령



- 목 차 -

거스러미/김효정 .....	9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김성화 .....	28
로스트 메모리즈 플레이어/국종석 .....	54
식물 이야기/전서현 .....	72
아픈 손가락/정영숙 .....	94
얼음동굴/황혜성 .....	122
여자 50세에 나를 찾다/표재분 .....	173





## 거스러미

---

### ▪ 김효정

버스 안은 Journey가 부르는 Faithfully의 선율로 축축한 느낌이 한층 고조되는 듯하다. 성당 앞 정류장에서 달리던 버스가 멈췄다. 버스 문이 열리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결에 진한 담배 냄새가 획 들어왔다. 순간 온몸에 날카로운 전율이 일었다. 냄새로 인해서도 관능이 꿈틀댄다는 걸 알게 해준 은밀한 소품이다. 일상과 일탈의 틈을 다른 이들은 알 리가 없다. 그들이 왈가왈부하는 일상은 언제나 반듯하게 해둔다. 그리고 일탈로 넘어가기 전의 경계에서 나는 달착지근하면서 불온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한 사람이 내리고 다섯 사람이 탔다. 사람들 손에 들려진 우산에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무질서한 발길들로 버스 바닥은 난잡하다. 버스는 불광동 성당 앞에서 검정 팔레트에 풀어놓은 듯 번지는 빨간빛 신호에 잠시 주춤하더니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내리꽃는 비에 은행나무의 굽직한 나뭇가지들은 뒤틀리며 몸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잔가지들은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싶은 생각에 슬픔이 울컥 복받쳐 올랐다. 소화불량에 걸린 하수도는 빗살무늬 하수관 뚜껑을 통해 토사물을 게워내고 있다. 빗물은 아까보다 점점 더 격렬하게 유리창으로 덤벼들고 와이퍼는 사납게 밀어내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낯선 듯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다.

그 사이 라디오에선 정오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전국이 구름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낙성 비

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버스 창에 흘러 내리는 빗물을 우두커니 보고 있자니 압축에서 풀려난 파일들이 나열되듯 많은 생각들이 겹쳐졌다.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없던 애교와 부족한 요리솜씨를 한껏 발휘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렀으니 혹시나 하면서 다시 한 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다음 주부터 장마라네.”

공복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남편은 언제나 허기진 사람이다. 허겁지겁 콩나물 사이를 헤집고 미더덕을 찾아 먹는다. 눈치를 살피며 슬며시 꺼낸 내 말조차도 무심히 삼켜버리고 있는 사람.

“저기 말이야. 우리 지사장이 이번에 BMW로 바꾸면서 타던 차를 판다고 그러네. 선생님들 중에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싸게 해준다고 그러던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차피 시작한 말이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언성이 올라갔다.

“내 말 안 들려? 나 도저히 더 이상은 걸어서 못 다니겠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든 융통해볼께. 당신한테 피해 하나도 안 주고 타겠다고, 응?”

그제서야 식탁에 파묻다시피 폭 숙였던 고개를 들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른다.

“안된다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왜 자꾸 같은 말을 하냐! 여자들이란 게 하여튼…….”

나의 소망까지도 우적우적 씹어가며 허기를 메웠는지 물 한 잔을 들이키곤 끄옥 트림을 뱉어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안으로 자취를 감춰버린다.

뚜렷한 이유도 꺼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몇 번을 그 문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 체념했다. 그러다가 장마가 시작된다니 심란해서 말을 했던 것인데 오늘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다.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을 결코 접어본 적이 없는 남자. 아니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의미를 각인시키려는 사람 같다. 가족들에게 남편의 고집은 언제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수갑이었다. 자유를 빼앗겨버린 사람은 꿈마저 상실하게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금방 시든다.

그날 밤에 결국은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며칠째 남편과는 데면데면 지낸다. 언제나 가벼운 입씨름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나서야 수그러든다. 아니 내 쪽에서 먼저 더 이상 흐르는 피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입을 다물어버린다. 아무리 애지중지하던 애뜻한 것들도 새로운 것에 정을 옮기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초라해서 차마 곁에 두고 볼 수 없는 버릇이 있다. 쓸모 다한, 용량만 차지하는 파일을 영구 삭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를 잘 알기에 두려움이 컸다. 한 사람을 바닥까지 보고나면 다시 볼 자신이 없어 관계를 정리해버린 경우도 몇 번 있다. 단념할 수 없는 것들을 단념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내 생애에서 삭제하고 싶어질까봐 언제부터인지 은근히 두려웠다.

오래전에 주차장에서 자리만 지키는 차를 남편 몰래 한동안 끌고 다녔다. 친구들과 나들이 겸 맛집을 순례하는 재미에 빠져 보내던 시간이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벼락 치듯 내지르는 소리에 질려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당시에 왜 차를 타면 안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말 뿐이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주택가 골목길은 소형차가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내 몫으로 사려 했더니만 그마저도 반대하는 것이다.

살면서 흔쾌히 무슨 일에건 격려를 해준다거나 도움을 준 적이 기억에 없다. 애초에 이 남자가 완전한 내편이 되어 강력한 힘을 실어줄 거란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적과 대항해야 된다는 생각 역시 하지 못했다. 길목마다에 미처 생각지 않던 돌부리가 있고 그게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멈춰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겨울 줄이야. 기다려서 되는 일이라면 그나마 희망이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을 키우는 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도 없음은 절망적이다.

일을 하는 동안 내리는 비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오늘처럼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부추긴다. 우산을 받쳐도 빗물이 스며든 신발은 이스트에 발효된 빵처럼 두 발을 말캉하게 부풀리고 옷은 자꾸만 달라붙어 그러지 않아도 뚱뚱한 몸이 드러나니 짜증스럽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 출근 할 때마다 들어야 하는 가방은 학습교재와 아이들에게 줘야 할 책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다. 양팔을 활용해 들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산까지 같이 든다는 것은 형벌이다.

손톱뿌리 부근에 또 핏방울이 솟는다. 왼손 검지에 들떠 있던 거스러미가 신경이 쓰여 손으로 잡아 뜯다가 그만 생살까지 일어났다. 차안에서 손톱 깎기를 꺼내는 게 번거로워 손톱 끝을 이용해 잡아 뜯다가 일을 내고야 말았다.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된 탓에 벌써 검버섯이 하나 둘 피어나는 손. 그런 손의 거스러미를 보고 있으려면 궁핍한 살아온 날들의 흔적을 확인하는 듯해 예민해진다. 확인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려던 것들이 푹 고개를 내밀었을 때의 당혹스러

움이랄까. 내 상체와 엇비슷한 크기의 검정색 가방을 열어 파우치를 꺼냈다. 후시딘을 살짝 짜서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이려니 핸드폰이 울린다.

폴더 창을 보니 '시후미'란 흰색 글자가 동동 춤을 춘다. 시후미는 영화 도쿄타워의 주인공 이미지와 닮아서 지사장 번호에 입력해 두었다. 마흔을 넘기면서부터 부쩍 나빠진 기억력 때문에 영화나 읽은 책의 등장인물, 혹은 꼭 기억해둬야 일들을 이룬 대신 전화부에 저장해둔다.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 또 다른 것들로 바꾼다. 잃는 것들에 대한, 놓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의 필사적인 싸움인 것이다.

주말에 광고지 돌린다더니 벌써 반응이 오기시작하나보다. 유월하순 쯤 광고지 넣는다 할 때 올 여름은 지금 회원만 했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자기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지만 있는 사람이라도 많이 벌게 해주고 싶어서 데려오지 않는다는 말로 그녀는 교사들의 불만을 봉쇄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회원 수를 늘려보려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교사들 생각해서이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사장은 오십대 초반으로 얽매이는 게 싫어서 혼자 산다 했다. 교사들 대부분이 기혼인 우리들에겐 결혼이란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교묘한 어법으로 돌아보게 한다. 또한 옥수역 부근에 오래전 매입해둔 5층 상가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제법 된다면 자랑도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라 밖으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면서 명품으로 휘감는 여자. 그러면서도 몇 안 되는 교사들에겐 밥 한 끼를 사지 않는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지만 서운할 때가 많다.

깊고 진한 기미 위에 덧칠한 볼터치 때문에 검붉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처럼 핸드폰이 붉으락푸르락 한다. 난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셨

다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지사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민 선생은 목소리가 어째 푹 싼 사람 같지가 않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출근 중이지? 저기 말이야 평창동에서 상담 전화가 몇 개 들었는데 가봐야지?”

비누거품처럼 잔뜩 부푼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하다.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대부분 나름대로 알아본 다음에 절실히 원하던 순간에 광고지를 보고 연락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은 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금 그녀의 기분은 한껏 들떠 있을 만도 하다. 이쪽 분야의 특성은 학부모를 통해 교사에게 직접 소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굳이 일반 학습지들처럼 교사가 영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일은 드물다. 만일 영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지사장 몫이다.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학부모는 결국 몇 달이라도 하게 만드는 유능한 여자다.

지사장의 부푼 목소리가 혹시 터질까 싶어 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면서 전화기를 귀에서 약간 떼고 후 고개를 돌려 버스 안을 봤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젊은 사람 몇, 무심히 눈길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앉아 있는 이, 책을 읽는 사람, 시름에 잠겨 있는 듯한 사람, 눈을 감은 사람들 몇 명이 있었다.

“네, 약속 잡아서 가보겠습니다. 서로 시간표 맞춰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 너무 기대마세요.”

“기대 말라니. 그래도 일단은 민 선생이 그쪽에 맞춰서 몇 번 해주다가 요령껏 바꿔봐. 내가 지금 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 찍어서 보내 줄 테니 연락 해봐요. 민 선생 능력 내가 잘 알지. 그럼 수고!”

이 말을 할 때 아마도 그녀는 반도 안태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고면서 수화기를 바꿔들었을 것이다. 내 능력이란 건, 그녀의 지갑을 얼마나 두둑하게 채워주느냐로 평가된다. 회원이 이름 있는 대회에 나가 입상이라도 하면 그녀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바로 홍보에 열을 올린다. 내가 실력이 있고 잘 가르쳐서 아이가 상을 받았다는 말은 어느 문맥에도 없다. 교사의 실력을 띄워주고 인정해주었다가 추종자들을 데리고 개인과외로 나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재가 좋아서 누구나 시작만 하면 그 정도쯤의 상은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동네마다 뿌린다. 좋은 교재에 훌륭한 교사를 만났음에도 실력이 향상 되지 않는 건 아이의 재능 때문이라며 침묵하도록 만드는 힘도 그녀는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나 지사장을 통해서도 교사의 무능을 지적하며 항의하는 부모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저 이번 주는 회의 참석 못해요. 제가 받은 회비는 바로 이체할게요. 교재 제 책상에 두시면 돼요.”

“알았어. 한 달에 기껏 두 번 얼굴 보는데 웬만하면 좀 나와야지. 일 있으면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럼 잊지 말고 문제나 메일로 보내줘요.”

“네. 저 내려야 하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버스는 어느새 세검정 삼거리를 돌아 평창동사무소 앞에 섰다. 아까보다는 기운을 잃은 빗줄기와 엷어진 회색빛 때문인지 밝아진 하늘이 내심 고맙다.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면서부터 대부분의 동기들은 임용고시 준비에 들어갔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

로 선택된 전공은 따분한 학문이었다. 교양과목 외의 전공수업은 남자 동기들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맘껏 이십대 초반을 탕진하기에 바빴다. 그렇게라도 해야 일방적으로 짜놓고 편성표대로 가길 바라는 부모에 대한 복수라 여겼던 치기어린 시절이었다. 아침마다 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갈지 말지를 고민했다. 동기들이 임용고시와 졸업 논문을 준비한다고 도서관이나 학원으로 가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할 때에도 나오는 다른 세계의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야 한다는 조건하에 두 분의 물질적인 지원은 넉넉했다. 덕분에 유행 따라 쇼핑을 하면서, 너울대는 버드나무 아래 벤치에서 오수를 즐기거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카페에서 이십대 절반은 호화스럽게 보냈다. 졸업할 즈음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친구, 사립학교에 내정되었다는 친구들, 학원을 낸다는 친구, 쏘나타를 타는 머슴애에게 시집간다는 친구, 학문에 뜻이 있어 더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 등등. 각자 소신껏 자신의 길을 찾아 교문 밖으로 난분분(亂紛紛) 날리는 2월의 눈발처럼 우린 흩어졌다.

내게도 어쩌다 사립학교 자리가 나왔지만 그들은 일언지하에 싹둑 잘랐다.

“그거 몇 년 해보겠다고 뭣 하러 힘들게 들어가냐. 평생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게 이유였다. 딸의 의견은 그렇게 언제나 묵살되었다. 졸업을 했지만 어떤 신분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의 허탈감. 마치 무엇에도 용도 가치가 없어 폐기된 듯한 패배감. 자원시장에서 덤핑으로도 넘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현실과 직면했을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움츠러들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하는 일 없이 집안에만 있는 딸의 존재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시집 잘 가서 자식 놓고 남편이 벌어드 주는 돈으로 살림하는 게 최고다.”라는 그들의 행복관에 또다시 동의해야 했다. 신부 수업이라는 것이 뭘 공부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상품으로 포장되어서 진열대 위에 올라갔다. 달착지근한 라일락 향기에 취해 몽롱해지던 날부터 시작된 맞선. 맞선은 권태로운 나날로 몸을 비틀던 때에 마침 강한 호기심을 자극했고 묘한 설렘까지 가져다주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란 생각도 들었다. 그래 한껏 차려 입고 요조숙녀로 온갖 향기를 뿜어내며 튜닝을 하고 맞선자리를 찾아다녔다.

남자라면 신입생 시절 미팅으로 만난 아이와 어설픈 소꿉놀이 같은 사랑을 했던 게 전부였다. 동기나 복학한 형들과는 엠티가면 혼숙까지 하며 짱고 까부는 사이니 남자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 맞선이란 새로운 메뉴는 흥미로웠다. 한데 기대가 컸던지 실망 또한 횡수를 더할수록 커져갔다. 마주앉은 남자들은 생김새가 분명히 다른데 모두 앵무새 같았다. 맞선자리에 나가면 던져야 할 질문과 답지가 통용되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사람만 바뀔 뿐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절차가 시들하고 따분해졌다. 나중엔 서로의 프로필 소개가 끝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쫓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씨 물어 나르듯 사진을 가져오던 중 매쟁이도 ‘따로 맘에 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더는 오지 않았다.

수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부모에게 맞서는 방법이 학교 다닐 땐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다. 물론 그들이 알리가 없었던 반항이었다. 크고 작은 대립각을 서로에게 세우며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해보겠다는 소망마저 박탈당했다. 결혼이라는 이정표를 걸어두고 그길로 들어서길 종용 할 때엔 횡포에 가까웠다. 강한 성품을 지닌 부모 아래서의 나약한 자식은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

처럼 허우적대며 외로움과 공포에 시달린다.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종국엔 스스로 광합성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마음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던 어느 순간 기막힌 전략이 떠올랐다. 그렇다. 결혼이라는 카드가 있었다.

실땀이 기어간 자국 같은 골목길을 몇 번을 꺾고 나서야 그는 손잡이도 없는 낡은 나무 대문을 열었다. 블록을 조립한 듯 손바닥만한 마당엔 화단이 있었다. 그 안엔 상추와 고추, 대파 무더기가 심어져 있다. 화단 가장자리엔 흙을 뒤집어 쓴 깨진 화분에 초록색이 빠지고 뿌리가 드러난 화초가 나뭇가지를 간신히 의지한 채 있었다. 그리고 화단 왼쪽 끝에 연두색 고무관을 담은 양은 양동이와 플라스틱 바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대문 소리에 방문을 열고 그의 어머니와 누나, 매형, 조카가 칠이 벗겨진 마루로 나왔다.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었는지 인사를 마치자 잘 차려진 밥상이 나왔다.

“우리 집은 보다시피 가난하고 제사도 많은데다 남자라곤 재 하나인데 어떻게 고생도 안해 본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모르겠네요?” 도드라진 광대뼈와 웬만한 남자보다 더 넓은 어깨 때문인지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드는 힘이 느껴지는 그의 누나가 밥상을 물리고 꺼낸 말이다.

“잘 살 수 있어요.”

당돌하게 겁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송 씨 집안의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버렸다.

만일 결혼을 반대하면 한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내뱉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말이 짧고 단순할수록 듣는 이들은 상상을 확장한다. 거짓말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작해 다 보여줘서도 안 된다. 변형의 여지를 남겨둬야 하는 법이다. 계획한 바대로 나아

가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처음엔 사생결단으로 반대할 기미를 보이더니 투항의 몸짓을 했다.

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비로소 승리감에 역시 같이 울었다. 이후에 자신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깨달은 듯했다. 그렇지만 이미 엮질러진 물 앞에서 끄끙 앓을 뿐이었다. 반듯한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 찢찢매는 상황을 보면서 또 통곡을 했다. 그들이 눈물을 보이면 보일수록 통쾌함으로 짜릿했다. 난생처음 뜻을 이루고 또 배신감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성취감과 쾌감으로 즐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쾌감은 무덤덤해졌다.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이 뒤엉키면서 기쁨은 얼마 가질 못했다.

“전화 드렸던 \*\*논술 교사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부저음을 내며 철 대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돌계단이 성곽처럼 앞을 막고 있다. 한참을 오르고 나니 그제야 늙은 나무들로 에워싸인 곳에 유럽의 어느 성 같은 집이 나타났다. 촘촘한 철평석을 밟아가니 험령한 꽃무늬 민소매 원피스에도 두루뭉술한 배가 드러나는 여자가 활짝 웃고 있다.

“어서 오세요. 경사가 가팔라서 운전하는데 힘드셨죠? 지사장이란 분이 교재도 좋고 또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다고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궁금했어요.”

새된 목소리로 여자가 아이를 부른다. 지사장이 내 칭찬까지 했다는 것은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의미다.

“차 안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제 실력이란 것은 과찬이고요.”

“어머나! 이 동네를 어떻게 걸어서…….”

놀란 몸짓을 하며 여느 학부모들과 같은 반응이다. 그럴 때면 언제

나 초라해져버린 내 모습을 회복하고자 경쾌한 음색으로 대답한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일부러 좀 걷고 있습니다.”

“지사장 말대로 겸손하시고 성격이 좋은 분 같네요.”

또래들에 비해 왜소하고 의사 표현이 서툰 사내아이의 일주일 학습 일정은 거의 빈틈이 없었다. 이미 맞추어 놓은 퍼즐 조각 하나를 빼내고 나를 넣을 것이다. 나는 그 시간표에 들어가야 한다. 자라기도 전에 시들고 있는 영혼과 함께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노동인지. 또한 등산로 같은 높은 지대에 있는 집까지 걸어 오를 자신이 없었기에 나는 수업 시간을 핑계 댔다. 어렵겠다는 내 말에 그녀는 이미 내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것처럼 말한다.

“우리 집이 걸어서 다니기엔 좀 힘들죠? 지금 성악 레슨선생님도 시작할 때 차 없이 다니느라 고생 좀 했는데 내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한 대 뽑았잖아요. 지금은 남편 차까지 바꿔주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K자동차 전무거든요. 다른 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레슨비 말고 서운하지 않게 해줄게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짐짓 태연한 척 하려 해도 감정을 숨기는데 서툰 사람이니 이미 표정을 읽었을 것이다. 어차피 숨은그림 찾기에 성공한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게 바로 협상을 하는 게 현명하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은 있고, 또 감추고 싶은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선 일반인들보다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비밀스런 작업의 공모자로 기꺼이 동참해주면 된다.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이 동네에서 참고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런 매력 때문이 아닌가. 집안의 사소한 일들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은 조선족 도우미의 손을 빌리고 있다. 부와 명예, 권력을 물려줘야 할 아이들은 늘 집을 비우는 부모

보다는 도우미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수학이나 영어는 뛰어나지만 모국어를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어머님, 그럼 원하는 시간을 말씀해주시죠. 정말 안 되는데 한 번 바꿔 볼게요.”

여자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듯 무심히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말했다. 다음 시간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아이의 책장과 일기장을 대강 훑어보고 단계를 잡아본 후 나왔다.

“저기 말야. 이왕 사는 거 중고차보단 낫겠다 싶고, 오늘 회원 얼마 덕분에 싸게 살 수 있어 계약서 썼어. 다음 주면 차 나와.”  
생각할수록 부아가 치밀고 슬그머니 오기가 발동한 난 하지도 않은 계약서 애길 꺼냈다.

“뭐?”

“이번에도 또 반대하면 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앞에 있는 상대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깜빡 잊었다. 뜻을 이룬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또한 잊었다.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 돈 좀 번다고 겁나는 게 없나보지?”

갑작스런 나의 태도에 놀란 남편은 붉으락푸르락 해진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말은 독신녀라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지사장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가 꼬들기디?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들이대고 맘대로 차를 계약해! 일이고 뭐고 당장 그만둬!”

온갖 비난과 질타는 강력한 태풍이 되어 보이는 것 모두를 덮어버릴 듯한 기세로 퍼부었다.

오랜 습관대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수화기를 들어 둘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생중계했다. 조금 있으면 지척에 사는 시어머니는 한달

음에 달려와 남편과 같이 힐난과 조소를 선물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조건반사대로라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하지만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듯 이미 화석이 되어버렸던 그동안의 응어리까지 긁어냈다. 스스로도 놀라움에 가슴은 방망이질 쳤다.

웅덩이가 싫어 건너 뛴 곳이 하필 높이였다. 처음부터 아귀가 맞지 않았다. 세모와 네모가 만나 동그라미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각오는 했었다. 입씨름을 할 때면 이십여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이려니 여겼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맞추다보면 근사한 동그라미가 완성될 것이라 믿었다. 아니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 정도쯤은 참아 주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간절히 갖고 싶어 하던 삶은 역시 없었다.

내 삶은 지금껏 다른 사람들의 인생 안에서 주변인으로 구색을 맞춰주는 보조 역할일 뿐이었다. 내주장을 억누르는 일에 익숙해져야 했다. 세상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침묵해야만 했다. 침묵을 깨면 사회 부적응자라는 병명을 붙이고 자기를 멋대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두려웠다.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면 그거야 말로 비열한 폭력 행위다. 꿈이 없다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상실한 것과 같다. 그때부터는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건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나, 더는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

“끝내자고? 그래, 누가 붙잡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늦은 시간인데 지사 사무실은 창밖으로 환하게 불빛을 내보내고 있다. 수업 보강으로 늦게 끝난 사람이 아마 근처를 지나다가 교재를 가져가기 위해 들렀을 것이다. 집에서 입은 옷 그대로 나와 망설

여겼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별수 없이 문을 열었다. 우리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김 선생이 책상에서 고개를 돌리더니 깜짝 놀란다.

“아니, 이 시간에 민샘이 어떤 일이야? 설마 지금까지 수업하러 다닌 건 아니겠지? 너무 욕심 부리지마라. 지친다. 인생이 서글퍼져 그럼. 우리 즐기듯 일하자. 이 시간까지 일하러 다닌다고 남편이나 애들이 알아줄 것 같아? 후회할 땐 이미 늦어. 우리 방문교사들 힘든 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제 때에 밥을 먹나. 그놈의 쓰디쓴 커피만 집집마다 내미니 위장병 안 걸린 사람 있나.”

회의를 한다거나 식사자리가 마련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 김 선생이다. 그래서인지 회원관리를 잘하는데도 지사장이 유일하게 거리를 두고 그만 두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사장에게 동료들의 불편한 가슴속 말까지 대변해주는 김 선생이라 한편으론 모두가 종종 띄워주기도 한다. 여전히 내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이 말이 길어진다.

“네. 저도 언제 올 시간이 없어서 교재 가지러 왔어요.”

내 자리엔 교재와 함께 두툼한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먼저 쇼핑백을 들춰봤다. 웃이다. 그때서야 지난번 지사장이랑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지사장님은 언제 봐도 스타일이 멋지세요. 코디도 세련되게 잘 하시고.”

“어머, 그래? 민 선생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네.”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면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속을 알 수 없다는 말들을 듣는다.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여행이나 다니고 맘에 드는 것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이쁘다 말해줄 사람은 없지만 치장하고 가꾸는 재미로 살지.”

남자 친구 있는 건 직원 모두가 알고 있건만 시치미를 떤다.

“참, 민 선생이 나와 제일 체격이 비슷한데 관찮을지 모르겠다. 내

가 쉽게 싫증을 내는 성격이라서 옷 사서 한두 번 입고 나면 쳐다도 안보잖아. 그래 누가 달라면 주곤 하는데 민 선생도 좋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입는 옷들은 내 수입으로 도저히 욕심 낼 수 없는 것들이다. 좀 입었으면 어떤가.

“네, 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어머! 오늘 보니 민 선생 소탈하네. 그동안은 말 수가 적어서 깍쟁이로 봤는데. 알았어요. 그럼 내가 좋은 것들로 한번 골라 볼게요.”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입는다 생각하니 문득 타인이 주체 못해 흘리는 잉여분의 행복을 주워든 기분이 들었다. 순간 대상이 불분명해진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게 뭔데?”

김 선생이 내 곁으로 오더니 쇼핑봉투를 들여다본다.

“지사장이 저 입으라고요.”

“뭐? 그러지마! 아니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니? 남이 입던 옷까지 입어야 하니? 비참해지려 한다. 그것 당장 갖다 버려.”

“어떻게요.”

말은 그리 했지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사실, 지사장이 우리보다 돈이 좀 많다는 것 말고는 뭐 잘난 것 있어? 학교도 겨우 고등학교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여자 재혼을 몇 번이나 한줄 알아? 애도 있다고 하더라.”

내겐 없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인생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관한 차마 더 듣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은 말은 계속 되었다.

“돈도 자기가 일해서 모은 돈인가. 살다가 헤어질 때마다 지능적으로 빼돌리고 위자료 받아낸 거지. 심지어는 간통으로 잠깐 교도소도 들어갔다던데.”



지사장이 같은 여자로 상당히 호탕하고 겁이 없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대입이 안 됐다.

“에이 설마요. 잘못 아셨겠죠.”

그녀는 쇼핑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 말 못 믿겠지?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 세상이 좁다는 말 실감했잖아. 글썄 지사장이 살았던 남자 중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잖아. 동창회에 갔다가 서로 명함 주고받다가 그놈아가 내 명함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해주더라니까.”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사장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려 안간힘을 썼다.

“지사장이 날 왜 싫어하는지 알아? 고향 얘기 하다가 내가 그놈아랑 동창이란 거 알고는 그때부터 그러잖아. 관리자로서 우리들 위에서 군림 해야는데 나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서지.”

단지 몇 개의 문장에서 그녀의 일대기는 기승전결로 마무리 되었다. 아이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서 매 번 느끼는 것이지만 생김새만 큼이나 전개되는 인생들도 다양했다. 어른들이 치부로 여겨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일수록 아이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이미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글을 통해서 하소연한다. ‘제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내가 부러워하던 지사장의 성공과 자유, 그것들을 반들반들 빛이 나게 했던 부의 축적이 신파에 의한 것이었다니. 내 머릿속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라디오 채널처럼 웅웅 거렸다.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어떤 음절도 선명하질 않았다.

“수다떨다보니 너무 늦었네. 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하게 생겼네. 민샘은 안 갈 거야? 같이 나가지?”

가방에 주섬주섬 교재를 넣고 자리를 정리하더니,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내가 의아했나보다.

“네, 먼저 가보세요. 저는 온 김에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우리 민샘이 오늘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가보다. 다들 그  
렇게 저렇게 사는 거야. 남의 집 울타리 안은 다 행복할 것 같지?  
절대 아니다. 더 있으려거든 문 잠그고 있어. 그럼 나 먼저 간다.”

말이 많긴 해도 낙천적이어서 같이 있으면 타인의 근심을 기화시  
켜주는 재주가 있는 여자다. 여자가 내뿜던 열기가 사라져서인지 차  
가운 형광등 불빛 때문인지 갑자기 몸이 서늘해졌다.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창가로 갔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아직 도로에  
남은 물기 때문인지 쏜살같이 내달리는 자동차가 내는 굉음은 섬뜩  
함마저 들었다.

자리로 돌아와 먼지가 뿌옇게 덮인 컴퓨터를 물휴지로 닦아내고  
부팅시켰다. 목까지 차오르던 분노와 증오심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슬픔과 외로움이 스멀스멀 잉태되었다. 로그인을 하고 메일함을 열었  
다. 봉인 아이콘을 그대로 삭제해도 되는 메일들만 수북이 쌓여 있었  
다. 메일쓰기를 클릭하고 주소록을 열어 익숙한 한 사람을 불렀다.

까슬까슬한 거스러미를 보면 견디질 못합니다.

내 삶을 확인시켜주는 듯해서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겠더군요.

오늘은 결국 상처를 내고 후시딘을 발랐습니다.

희고 상처 하나 없는 고운 손을 만들고 싶었는데.

늘 피를 보고 약을 바르는군요.

언제쯤이면 내 가방에서 후시딘이 사라질지.

너무 무서울 만큼의 탄식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생각들은 뒤죽박죽이 되고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은 있겠죠,  
어딘가에…….

<끝>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

### ▪ 김성화

사실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해본적은 없지만,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해주어야만 할 것 같다.

나는 남들과 달리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3초정도의 짧은 동영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알 수 있었던 실질적인 사실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맞았다. 단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한번은 꽃을 꺾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내가 꽃을 꺾으려하자 꽃 밑에 숨겨져 있던 가시가 내 손가락을 파고들어 나를 다치게 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고 약 세달 쯤 지나 나는 똑같은 꽃을 보았고 꺾으려고 하는 순간 그 영상이 떠올라 손을 뗐다. 꽃의 밑을 보자 그 자리 그대로 가시가 달려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동영상을 본다면 최대한 잊지 않으려 그것을 자꾸 떠올려 보는 습관이 생겼다.

일주일 전 부터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 내 머리를 맴돌고 있다.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진에서의 나는 나무에 둘러싸여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얼굴과 몸이 까맣게 더럽혀 진채로 어딘가를 향해 끈질기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넘어져도 그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일이 올해를 넘기지 못해 일어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겨울이었기 때문이다, 시리고 시린 바람이 마치 내 살을 꽤 뚫을 것 같은 기분

이 들었다. 지금은 아직 가을, 겨울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달뿐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남겨진 시간도 곧 3달이라는 의미.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내가 이 겨울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세히 말하자면 자살이든 사고든 병이든 난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했다. 이것 역시 짧은 잔상 또는 느낌이었지만, 누군가를 꼭 만나야한다는 강렬한 생각이 남아있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 또는 도착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삶을 나눠줄 수도 또는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에 앞서 미리 얘기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소녀의 마지막 이야기이다. 그러니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어서 이 책을 덮기 바란다.

책을 덮지 않았다면 내가 되어 여행을 같이 즐겼으면 한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슬프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우울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일 뿐이기에.

자, 그럼…….

## 1.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개다. 하나는 눈을 뜰 수 없는 세상, 하나는 눈을 뜰 수 있는 세상이다. 눈을 뜰 수 없는 세상에는 내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들도, 큰 건물도 있다. 나는 그것을 본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눈을 감기 전에는 항상 봐오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세상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뿐이다.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보는 세상은 어느 곳에서나 빛이 가득 차 있다. 너무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햇빛들이 나무 사이

사이, 침대 밑 심지어 밤에도 나의 세상에는 언제나 빛이 가득 들어와 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세상에는 나 혼자다. 거리에도 건물에도 살아있는 것은 오직 나무와 풀과 꽃, 그리고 나뿐이다.

여행의 준비는 고된 과정이었다. 나 혼자였던 세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나는 이 세상을 미리 시험 삼아 나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그 순간은 단 1초도 안되었지만 그곳은 내 세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어두웠다. 그 어둠이 나를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다신 눈을 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어둠이 세상의 빛에 묻혀 내 눈에서 사라져갈 때, 나는 배낭을 메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내 세상의 빛을 뒤로 한 채 길을 걸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내 세상의 끝은 하였다. 그림자가 없었다. 내가 이곳에 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얀색 선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바로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검은색 선을 발견했다. 그 선은 내 두 발이 들어 갈만한 굵기였다. 나는 주위를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내가 따라갈 길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왼쪽 발을 들어 살며시 소리가 나지 않게 선위에 올려놓았다. 왼쪽 발을 들어 선을 쿵쿵 몇 번 쳐보고 한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서야 나는 나머지 오른 발을 나란히 올려놓은 뒤에 길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검은색 선을 따라 걷기로 했다. 길을 따라 걸어도 나오는 건 길이였다. 그저 하얀 바탕에 무심하게 그어놓은 듯, 그 검은색 선은 곡선일 때도 있었고 갑자기 직각으로 꺾일 때도 있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길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따라갈 것이 없었고 더군다나 여기는 보이는 게 하얀 색 밖에 없어서 나는 그저 그 길을 걸었다. 주변은 온통 하얗서 나는 나를

감싸는 공기가 하얀색인 것인지 하늘이 하얀색 인건지 아니면 내가 하얀색으로 도배된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배낭에서 노란색 물감을 꺼냈다. 그리고 그 미미하고 까만 길 위에 노란색 물감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을 구불구불한 선으로 표시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수록 노란색 선도 점점 길어져 갔다. 나는 노란색 선을 그으면서 가야했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구부려 앉아 걸었다. 고개를 뒤로 향하고 내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면서 걸었다. 그러다가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내 노란색 물감이 검은 색 길을 나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주위를 돌아보니 내 주위는 온통 하얀색 일뿐 검은 색 선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허공에 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위가 온통 하얀색이어서 내가 밟고 있는 이게 하얀색인지 아니면 내가 공기에 떠 있는데 하얀색 바닥이 내 밑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내 물감 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보았다. 그러자 그 물감 통이 내 발 옆에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서있구나 하는데 어쩌면 내가 투명한 유리 같은 바닥에 서있고 하얀색 물감이 밑에 호수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떨어진 노란색 물감 통 옆에 엎드려 바닥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

“어이, 거기 노란색 물감!”

메아리처럼 목소리가 허공 같은 이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하얀 벽인지 투명한 벽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벽을 거쳐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노란색 물감을 들어보였다, 그러자 엎어져서 이미 빈 통이 되어있었다.

“노란색 물감은 이제 없어.”

나는 통의 바닥에 보이는 투명한 플라스틱을 보며 작게 말했다. 역시 그 소리는 여러 개의 벽을 거쳐 이 하얀 공간을 떠돌았다. 내 목소리가 공간을 뒹뒹 거리는 파리같이 떠돌자 누군가 뛰어오는 소

리가 내 소리를 짓누르듯 공간을 가득 매웠다. 그 소리가 공간을 너무나 가득 매워버려서 나는 누군가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오고 있는지 느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자 누군가 내 팔을 툭툭 두 번 두드렸다.

“지금 뭐하는 거야! 노란색 물감!”

“노란색 물감은 이제 없어.”

“그게 아니라, 너 말이야. 노란색 물감!”

옆구리에 큰 붓을 끼고 반대쪽 손에 물이 반쯤 담긴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내 반 토막만한 키에 달걀을 가로로 놓은 옆으로 늘어난 얼굴이었다. 그의 까만 머리는 너무 짧아서 그가 머리를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 주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는 두 눈은 눈 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의 붓 끝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 붓 끝을 따라 나를 바라보았다. 노란색 물감 옆에 엮드려 있어서 그런지 옷과 몸에 노란색 물감이 덕지덕지 묻어있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자 그는 붓으로 양동이를 두들겼다. 탕 탕 탕 탕, 공간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왜 물감 값을 걸 써서 바닥을 더럽히는 거야! 원래 여기는 새로운 선을 그을 곳이란 말이야. 물로 닦아도 번지기만하고 안 닦아지잖아?!”

그가 소리치자 그의 목소리가 몇 번이나 벽에 부딪혀 나의 귀로 들어왔다. 그 울림에 귀를 막고 몸을 움츠렸다. 두 발 앞에 검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미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내 노란색 물감은 통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사라져버렸다. 하얀 바닥을 뺨히 보고 있자니 사진이 기억 속에서 나와 머릿속을 헤맸다. 내가 만날 그 누군가가 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일어났다. 방금 그려진 듯 잉크가 말라있지 않은 선을 따라 달렸다. 선은 끊어질 줄을 몰랐다. 한참을 달리자 달캉하고 무언가가 내 왼쪽 발과 부딪혔다. 노란색



물감 통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것을 줍기 위해 선을 나가자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 자! 국!”

탁 탁 탁, 그가 걸어오는 소리에 나는 바닥에 나 있는 검은색 발자국을 보았다. 붓 하나가 그 위로 속 지나가자 다시 새하얀 바닥이 보였다. 그랬다.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발자국을 지워나가느라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그를 쫓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하얀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침내 그가 검은색 선과 함께 하얗게 변해버렸을 때 나는 그 곳이 어딘 줄도 모르고 멈추어 섰다. 배낭을 열어 뒤집었다. 가지고 있던 물을 뿌리고 주먹밥을 던지고 크레파스를 발로 으갠다. 씹씹거리며 그의 모습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오지 않았다. 털썩 주저앉아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뭉개진 주먹밥이 보였다.

“무얼 할 수 있어?”

그에게 말했다. 하얀 벽이 내게 물었다. 내게 물어오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에게 무얼 해 줄 수 있어?”

하얀 벽에게 물었다. 하얀 벽이 대답했다. 하얀 벽이 큰 건지, 하얀 벽이 많은 건지 자꾸만 내 질문에 몇 번이나 대답했다.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매끄러운 바닥의 감촉에 밑을 내려다보았다. 내 주위의 바닥이 다시 하얘져있었다.

“왜 청소를 하니?”

내가 그에게 물었다. 하얀 벽이 그에게 물었다.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큰 펜 축에 잉크를 잔뜩 묻혀 바닥에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물었다.

“왜 선을 긋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향해 달려가자 나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렸다. 선을 그리고 있는 그의 앞에 서고 얼굴 앞으로 손을 흔들자 펜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을 쳤다.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왜 청소를 하니?”

떨어진 펜을 들더니 잉크통에 콧았다. 양동이에 들어 있는 붓을 꺼내 펜을 떨어뜨릴 때 튀었던 잉크를 닦았다. 다시 펜을 드는 그에게 다가갔다.

“왜 선을 긋니?”

“아이 참, 밟으면 안 돼. 아직 덜 말랐단 말 야.”

“왜 선을 긋니?”

“적는 거야.”

“무얼?”

“내가 청소한 목록 말 야. 네 노란색 물감이랑 주먹밥, 크레파스, 물...”

“왜 그것들을 적니?”

내 질문에 나를 본채 만 채하던 그가 적는 것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그는 즐거운 듯 입 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의 눈은 아무 것도 없는 새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초승달로 휘어진 그의 눈동자는 하얀색이 반사되어 하얗게 보였다.

“내가 여길 청소한다는 걸 안다면 분명 내게 여길 답례로 줄 거야.”

“누가?”

“음,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 본적이 있니?”

“아니,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지 알고 있니?”

“몰라.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안다면 분명 고마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그는 다시 펜을 들어 바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

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서서 열중한 듯 선을 긋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방을 주웠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이미 텅 비어 버린 물감 통을 주워 그의 반대 방향으로 굴러 보았다. 통이 굴러가는 그 길을 쫓았다.

## 2.

통이 멈추고 다시 굴리고를 4번 정도 반복했을 때, 굴러가던 통이 통하고 튕겨져 나갔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보니 벽으로 추정되는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통을 가방에 집어넣고 왼 손을 벽에 짚어 벽을 따라 걸었다. 손끝이 벽을 스칠 때마다 슣, 슣 소리가 났다. 슣, 슣 하는 소리가 어느새 내 귀에 익숙해 졌을 때, 나는 이제 바닥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바닥에 털썩 앉았다. 발목이 욱신거렸다. 여전히 내 눈에는 하얀 면만 보였다. 왼손만이 아직 딱딱하고 매끈매끈한 벽을 붙잡고 있어 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미로를 빠져나가고 싶으면 벽을 짚으면 서가라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있었다. 이곳이 하얗고 큰 미로일지도 모르니 벽을 놓을 수는 없었다. 한 번 앉자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조심스레 머리와 몸을 왼쪽 벽에 기대고 선잠에 들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끔 조금씩 움직이면 옷이나 머리카락이 벽에 스쳐 삭, 소리가 났다. 왼손과 오른손 바닥을 바닥에 대고 있었다. 쉽게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눈을 뜰까 말까 고민했다. 밀착되어있는 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무엇인가 파고들려고 하고 있었다. 가볍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 눈동자만 돌려보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지가 젖기 시작했다. 오른 손을 들고 바닥을 살짝 쳐보았다. 철벽, 얇은 물이었다. 엉덩이가 젖고 왼쪽 손바닥도 젖었다. 나는 벽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발을 동동 굴리자 찰싹 찰싹 소리가 났다. 왼손으로 벽을 짚으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물은 내 발목까지 찼는지 신발과 양말, 바지 끝이 젖어 있었다. 신발을 벗고 걸었다. 시원한 물이 발을 감쌌다. 철썩 철썩. 발을 감싸던 물이 종아리로 점점 올라왔다. 벽을 따라 걸었다. 종아리의 곡선을 따라 무릎으로 올라왔다. 더 이상 다리를 올려 물을 밟을 수가 없었다. 다리로 물을 차면서 걸었다. 물이 요란하게 튀는 소리가 났다. 물방울이 내 옷에 동그랗게 새겨졌다.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자유롭지만 부자연스럽게 내 하체를 감싸왔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판을 스치듯 발을 바닥에 스쳤다. 다리 두 개로 물을 가르며 앞으로 향했다. 한발자국 한발자국을 내딛을 때마다 내 허벅지 살이 지나가는 물에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물들은 내가 빨리 걸으면 빨리,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흘렀다. 골반을 지나 명치까지 물이 찼을 때는 물이 내 배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답답해져 왔다. 잠시 멈추어서 쉬려고 하자 명치까지 차있던 물이 빠른 속도로 가슴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가방에 넣었다. 물이 내 가슴을 덮자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더 이상 앞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했다. 오른 손으로 벽을 짚어 되돌아갔다. 물은 이미 내 어깨를 덮고 있었다. 물은 내 가슴을 조이는 듯했다. 심호흡을 하면서 걸었다. 물은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붙잡고 늘어지기도 했다. 온 몸이 묶여 있는 듯 발을 바닥에서 떼기도 힘들었다. 벽을 붙잡고 있던 오른 손은 왼손과 같이 버둥거리며 물을 헤치고 있었다. 내 목을 조르려는 듯 어깨선을 따라 점점 목으로 올라왔다.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물이 내 목을 감싸려고 했다. 도망쳐야한다고 생각했다. 달렸다. 첨병첨병, 물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에 부딪혀 떠날 줄을 모르는 소리는 메아리처럼 몇 번이나 겹쳐 들렸다. 물이 튀어 입과 코로 들어갔다. 하얀 우주 공간 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중력이 없어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물이 있어 빠르게 달릴 수 없었다. 달려도 스쳐지 나가는 풍경은 없었다. 하얀색들은 그 자리 그대로인지 지나가고 있는 건지 눈으로는 알 수 없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나는 방방 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한 발 한 발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볍게 차듯 뛰었다. 그 때마다 물들은 퐁퐁 소리를 냈다. 왼쪽 발을 디뎌야 할 때였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발목이 꺾였다. 아프진 않았지만 중심이 흐트러져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그대로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지자 꼬르르르 소리가 나더니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저 이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벽과 바닥은 닿지 않았고 물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숨을 참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니 곧 숨이 막혀왔다. 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위를 향해 헤엄쳤다. 분명 얼마 되지 않는 깊이였는데 한참을 올라가도 공기에 닿을 수 없었다. 사방이 하얗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아래로도 헤엄쳐보았다. 벽도 공기도 닿지 않았다.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우뚝 멈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새하얗다.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다. 저절로 입이 벌려졌다. 숨을 들이쉬자 물들이 내 몸 속으로 들어왔다. 목이, 가슴이 불을 삼킨 것처럼 뜨거웠다. 타들어가는 듯 했다. 내 손은 가슴과 목을 쥐어짜고 있었다. 공기가 필요한 듯 내 몸은 다시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 물은 다시 한 번 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몸의 힘이 빠지면서 점점 아래로 몸이 가라앉았다. 눈앞이 새하얗다. 가느다랗고 구불구불한 노란선이 보였다. 내 옷에 묻었던 노란 물감들이 물에 풀리고 있었다. 내 목과 가슴에 불이 꺼졌는지 괴로움이 사라졌다. 노란 연기 한 줄기가 위로 하늘하늘 올라가고 있었다.

### 3.

누가 자갈밭을 걷고 있나보다. 아니, 투구벌레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팝콘을 튀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타닥타닥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혼만 뚱뚱 떠다니고 있는 느낌이었다. 영혼이 아니라면 몸은 사라지고 머리만 있는 느낌이었다. 손도 발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자니 발끝부터 시작해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다. 흙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손을 움직여 땅에서 붙이고 있던 얼굴과 몸을 일으켰다. 주위를 둘러보자 내 배낭과 신발이 있는 게 보였다. 눈을 뜨고 있자니 자꾸 무언가가 내 눈 안으로 들어가 눈이 감겼다. 하늘에서 땅으로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흠뻑 젖어 있었다. 숲인 듯 주위는 나무들 뺨뺨이 서 있었다. 나는 일어나 신발을 신고 가방을 땀다. 젖은 손을 젖은 바지에 문대고 앞으로 손을 뻗어보았다. 물방울이 내 손으로 떨어졌다. 꺾 잠가도 잠기지 않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처럼 멈출 줄 몰랐다. 일어서니 누워서 들던 소리와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싸아아, 마치 추락하기 싫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 내가 누웠던 자리에 무수히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땅으로 꺼진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숲은 캄캄하지도 밝지도 않았다. 형체는 보이지만 색깔 구별이 조금 힘든 정도였다. 나무도 땅도 연한 회색 진한 회색으로 구별되었다. 꼭 흑백사진 같았다. 물방울들은 멈추지 않고 내렸다. 물에 젖으며 걸으려니 온 몸이 덜덜 떨렸다. 자꾸만 재채기가 나왔다. 싸아아, 하는 소리가 내 재채기 소리로 몇 번이나 멈추었다. 그래도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팔로 상체를 감싸고 차가운 팔뚝을 손바닥으로 문질러댔다. 계속 걷고 있어 발이나 다리는 춥지 않았지만 몸통과 팔은 꽤 차가워져있었다. 앞으로 걷고 있었지만 계속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숲 속을 몇 시간이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팔은 너무 차가워져 피부의 감각이 없어졌고, 그나마 따듯했던 손도 똑같이 차가워져 아무리 문질러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입이 나도 모르게 떨려 이빨이 간간히 부딪혔다. 으어어어, 하며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발을 멈추어 내 오른쪽에 있는 나무 밑으로 갔다. 위를 보니 나뭇잎과 가지들이 하늘을 덮어 우산이 되어주었다. 나뭇잎들 사이의 작은 구멍들로 연한 회색의 하늘이 보였다. 나무 밑에서는 느리게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위에서부터 잎 하나하나 미끄러져 내려왔다. 물방울 하나가 한 나뭇잎에서 다른 나뭇잎으로 내려갈 때 두 나뭇잎들이 움찔거렸다. 마지막 나뭇잎이 내려올 때면 그들은 중력에 이끌려 일자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동그란 물방울의 모습으로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부터 내 앞에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보다가 고개가 뒤로 넘어갈 듯 젖혔다. 물방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내 얼굴로 떨어졌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손을 들어 눈을 비볐다. 계속 그들을 보다보니 내게 정면으로 다가오는 그들이 점점 느리게 보였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배려해 천천히 내려와 준 걸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눈앞에 와서야 잠깐 보였지만,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보이는 거리가 멀어졌다. 동그란 물방울은 탄력 있게 움직였다. 두 개로 분리될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동그란 모습으로 돌아오고 한 쪽이 움푹 패여 초승달을 보여주다가도 다시 보름달로 돌아왔다. 유난히 흔들리는 한 물방울이 내 오른쪽 눈으로 떨어졌다. 물방울을 보다가 뒤늦게 눈을 감았다. 물이 눈 안으로 들어왔는지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눈을 뜨자 물방울들이 빨강계 빛나며 내 얼굴로 떨어졌다. 고개를 오른 쪽으로 돌리자 나무들 사이로 주황불빛이 보였다. 몸을 일으켜 불빛 쪽으로 걸어갔다. 나무 밑을 벗어나자 다시 빠른 속도로 나를 적셔왔다. 수풀을 헤치고,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곧장 향했다. 사람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들이 낮게 들려왔다. 내 다리가 수풀들을 스칠 때마다 수풀들은 물방울들을 털어내며 삭삭 소리를 냈다. 수풀을 헤치고 걷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흠길이 나타났다. 일정한 쪽으로 만들어진 길 위에는 풀 한포기도 없었다. 그 길을 제외하고는 풀과 나무들이 무성했다. 길에 들어서자 마을이 눈앞에 보였다. 집들은 상자 같은 모습이었다. 저마다 동그랑기도 하고 네모나기도한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 창문에서 나오는 주황빛 불빛 말고는 잘 보이는 게 없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그대로 마을 안으로 이어졌다. 그 길을 중심으로 양 옆에는 상자 집들이 줄을 서 있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도 젖은 채로 길을 걷고 있었다. 다만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떨고 있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도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도 보였다. 물들이 그들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흘렀지만 그들은 얼굴 한 번 쓸지 않았다. 그저 웃고 있었다. 나에게 쏟아지는 물방울들을 피하고 싶었다. 처마 밑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상자들만 있을 뿐이었다. 길을 계속 걸었다. 양쪽에는 모양만 다르고 빛은 똑같은 집들이 스쳐지나갔다. 누가 자른 듯 길이 끊겼다. 꼭 지붕이 없는 집의 모서리처럼 흠길이 끝이 났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 나무 밑에 누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지와 나뭇잎이 제법 뻑뻑하게 보여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무 밑으로 한 발자국 들어오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를 때리고 있던 것이 멈추었다. 아주 가끔씩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차가워져 있는 내 몸보다 차가워 나를 놀라게 했다. 가까이서 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나무로 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잡이에 가지런히 양 팔을 올려놓고 내가 있는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다. 머리는 회색이었지만 중간 중간에 아주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손잡이의 끝은 살짝 쥐고 있는 손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의자가 있는 나무 기둥 쪽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께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빛도 없는 컴컴한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 내가 옆에 서는 소리가 들리자 조금 늦게 그리고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약간 벌린 입 사이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깨와 가슴이 규칙적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손잡이를 손으로 꼭 잡더니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그 행동에는 흔들림 하나 없었다. 온몸의 힘을 꼭 주고 있는 지 팔에는 핏줄이 섰고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왔던 그 흙길로 고개를 돌리더니 작은 포복으로 발을 질질 끌다시피 걸었다. 오른 발을 땅에서 1cm정도 띄어 10cm정도 가 다시 땅에 붙이면 그 거리만큼 왼발을 끌고 왔다. 오른발이 움직일 때는 왼팔이, 왼발이 움직일 때면 오른팔이 따라 앞으로 움직였다. 절뚝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은 강약을 조절하며 흔들리는 지휘봉 같았다. 그가 나무 밑에서 흙길로 들어설 때까지 나는 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발을 끌고 내딛는 소리는 시계초침소리처럼 일정했다. 그가 흙길로 들어서 상자들 사이로 사라지자 그가 지나간 자리에 모래바람이 일어났다. 그가 앉아 있던 의자의 손잡이에 살짝 손을 대자 따듯했다. 옷에 묻은 모래를 한 번 털어보았다.

#### 4.

의자에 앉아 그 곳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던 곳을 계속 보자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왔던 직선길을 한 번 보았다. 다시 고개를 돌려 그 곳을 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자에서 일어나 그 곳으로 향했다. 어둠 사이로 흐릿하게 나무들의 형체가 보였다. 나무 기둥을 손으로 짚어보면서 앞으로 발을 옮겼다. 나무 기둥은 매끈매끈 했다. 나무에 광칠을 한 것 같았다. 아까 내가 걸던 숲과는 다르게 풀은 하나도 없고 나무기둥

이 길쭉길쭉한 나무들만 있었다. 목이 뒤로 꺾일 정도가 되어야 나뭇잎들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고여있지도 묻어있지도 않았다. 풀 없이 그대로 노출된 흙들은 겉이 퍼석한지 걸을 때마다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몇 개씩 또르르 굴러갔다. 앞이 어딘지 모른 채 숲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만 갔다. 부스럭 부스럭, 내가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어둠이 사그라져 주변은 회색빛이 돌았다. 형체만 보이던 나무들의 튀어나온 뿌리도, 길게 뻗은 기둥에 있는 동그란 모양도 보였다. 하늘에서 차오르는 남색 빛깔이 회색 빛 주변을 삼켰다. 남색은 곧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은 점점 하늘색으로 변했다. 멈추어서 하늘색으로 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막 투명하고 밝은 햇빛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왼발을 떼어 앞으로 내 뒷자 뭔가에 걸리면서 흙바닥에 넘어졌다. 발로 시선을 옮기자 왼쪽 신발 끈이 풀려있었다. 하얀 신발 끈은 질질 끌려서 까맣게 변해 있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쭈그리고 앉아 신발 끈을 묶었다. 뭔가 뒤로 지나갔는지 부스럭, 소리가 났다. 뒤로 고개를 돌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뒤에서 부스럭, 고개를 돌리자 사악, 하고 작은 물체가 지나갔다. 야양,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렸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흙바닥에 하얀 것이 꿈틀대고 있었다. 야양, 가느다랗고 높아서 그 목소리만으로도 유리에 금이 갈 것 같았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귀를 울려 머리가 아팠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자 이미 하늘은 하얘져 있었고, 주위는 투명해져 색깔도, 모양도 잘 보였다. 하얀 그것은 새끼 고양이였다. 손바닥에 싹 들어올만한, 노란 물감 통의 크기였다. 그 하얀 아이의 몸의 반은 흙 알갱이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 알갱이조차 하나하나 보일 정도로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커 보였다. 나는 주변을 살피어 어미 고양이를 찾았다. 고양이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쭈그리고 앉아 말을 걸어보았다.

“엄마는 어디에 있니?”

“야앙.”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는 오지 않아.”

“야앙.”

“잘 있어.”

“야앙, 야앙, 야앙,…….”

일어서 그 아이가 있는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야앙, 야앙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계속 걸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하얀 점 하나가 갈색 도화지에 찍혀 있었다. 그 때까지 그 아이는 계속 울어 재웠다. 흙바닥에 털썩 앉아 그 아이의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얀던 하늘은 점점 하늘빛으로, 파란 빛으로 변해갔다. 아이는 쉬지 않고 울었다. 야앙, 야앙, 울다가 어느새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늘은 남색 빛을 띠고 있었다.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얀 점에게로 다가갔다. 숨은 쉬고 있었다.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면 몸이 두 배가 될 정도였다. 조심스레 그 아이를 오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웠다. 놀라울 만큼 내 손이 뜨겁게 느껴졌다. 왼손을 오른 손에 수직으로 포개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아이가 내 손바닥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열 번 정도 보고 나서 내가 앉아 있던 반대쪽으로 걸었다. 그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를 지나자 하늘이 깜깜했다. 주변에 짙은 남색 빛이 퍼져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눈도 뜨지 못했다.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 우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못했다. 무언가를 주어야겠지만 우유는 물론 물도 없었다. 어두워진 주변을 헤매며 물 한 방울이라도 찾으려 했다. 바닥은 퍼석퍼석했고 냇물도 보이지 않았다. 손에 그 아이를 올려놓은 채 걸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바닥에 털썩 앉았다. 다리를 쭉 뻗었다. 바닥에 앉자마자 야앙, 야앙 울기 시작했다. 아이

는 조금 따뜻해졌다. 왼손을 아이 얼굴 옆에 대자 손을 들어 내 손가락 하나를 잡고 얼굴을 마구 들이 밀었다. 손을 급히 뺐다. 아이는 다시 야옹, 하고 울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났다. 다시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걸었다. 이 쪽이 아니다 싶으면 저쪽으로, 저쪽이 아니다 싶으면 그 쪽으로 시선을 정신없이 옮겼다. 아이의 숨 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듯 했다. 가끔은 5초 정도 숨이 멈춰 나도 모르게 같이 숨을 멈춰버렸다. 5초 만에 숨을 쉴 때는 처음보다 배가 더 부풀어 터질 듯 했다. 그래도 아이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주변이 어느새 파래졌을 때,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한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내 손바닥에서 거의 숨이 꺼진 듯 5초보다 더 오래 숨을 쉬지 않았다.

“넌…….”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자 무언가 말해주고 싶었다.

“넌, 너는…….”

숨을 쉬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는 정말…….”

배가 등에 붙을 정도로 숨을 내쉬었다. 내 말에 두 손을 휘휘 저었다. 갑자기 머리가 땡 하게 아파왔다. 눈 앞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머리가 아파오자 아이가 흐릿하게 보였다. 미안 하다는 말을 하자 아이의 몸은 다시 한 번 부풀었다. 눈이 천천히 감기면서 오른쪽 머리에 무언가 부딪혔다.

## 5.

눈을 뜨자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 머리에 묻은 흙을 털며 몸을 일으켰다. 썩아아, 하는 소리가 선명히 내

오른쪽 귀를 통해 들려왔다. 오른 쪽에서 왼 쪽으로 소름이 돋았다.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려니 하얗고 작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고 멈추어 버렸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두 손으로 조심히 들어보았다. 차가웠다. 몸이 부풀지도 않았고 팔을 휘젓지도 않았다. 싸아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었다. 그대로 비틀비틀 일어섰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아슬아슬 하게 나무들을 피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내 귀를 통해 들어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주변이 남색 빛으로 변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계속 걸어 나가자 냇물이 보였다. 냇물 근처 1미터 정도에는 나무가 없었다. 물은 빠르게 내 앞을 지나다녔다. 냇가는 큰 돌들의 보호를 받는 듯 약간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서 있는 맨 윗돌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 있었다. 그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물에 손을 담가 보았다. 넣자마자 손이 뒤로 밀릴 정도로 물살이 썰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모래알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빼고 물에 젖은 손을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하얀 아이에게 손을 가져다 대보았다. 툭, 입을 한 번 쳐보았다. 가슴에 있던 답답함이 올라왔다. 쇠골 중간에 무언가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전에 없던 무게감이 느껴졌다. 음식이 지나다니는 통로도 아닌 공기가 지나다니는 통로도 아닌 다른 통로에 무겁고 딱딱한 게 걸려 있었다. 기침도 해보고 토악질도 해보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냇가 주변을 둘러보니 한 나무 만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한 걸음 정도 더 나와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은 단단히 굳어져 있어 잘 파지지 않았다. 손톱 안으로 흙들이 들어갔다. 가끔은 모래알보다 약간 큰 돌이 들어가 아프기도 했다. 내 목으로 조금 올라온 딱딱한 그것은 내 목을 짓눌렀다. 목을 꺾 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헐떡거리면서도 땅을 팠다. 판 땅에 손바닥을 맞대었을 때, 손목이

잠길 정도가 되었다. 숨을 들이쉬자 쇠소리가 났다. 손가락 끝이 찡하게 아파왔다. 옆에 낚아채 놓은 아이를 들어 구멍에 조심스레 넣었다. 두 손 바닥만하고 손목 깊이인 그 구멍이 그 아이가 들어가자 호수에 뚝단배 한 척이 떠 있는 것 같았다. 흙을 덮으려 옆에 있는 흙에 손을 대가 무언가 안에서부터 올라왔다.

“욱!”

목에 걸려 있던 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엑, 으웁!”

올라오는 그것이 나오려는 듯 몇 번이나 구역질이 났다. 턱 밑까지 차오르자 코끝이 찡해졌다. 아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턱, 구멍 옆에 무언가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내가 뺐은 것이었다. 그것을 집어 올려보았다. 묵직하고 딱딱하고 동그했다. 까만 공 같은 그것은 철 같이 무거웠고, 새총의 알 같았지만 한손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컸다. 나는 그것을 그 아이와 같이 묻기로 했다. 흙 한줌 한줌을 넣어 구멍을 메웠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냇물을 손으로 떠 날랐다. 그 곳을 촉촉이 적시고 난 뒤 나무에 기대어 앉아 넘칠 것 같은 그 물들을 보았다.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났다. 툭툭, 그 아이를 쓰다듬어 보았다. 내 앞에 빠르게 흐르고 있는 물들에게로 향했다. 건너편에 보이는 어둠을 보았다. 돌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살짝 넣어 보았다. 물들은 여전히 내 손을 밀어내느라 바빴다. 손을 빼고 오른 발을 집어넣었다. 적당히 밟을 돌을 찾아 한 걸음 내딛었다. 이어서 왼발도 넣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 물살이 거셌지만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다. 밑바닥에는 큰 돌들이 많았다. 한 발 한 발 밟을 곳이 안전한 지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다. 다섯 발자국 정도 앞으로 오자 3분의 1 정도를 건너 온 것 같았다. 무릎까지 차있었던 물은 한 발자국을 밟을 때마다 조금씩 올라왔다. 허벅지의 반 정도 찬 물을 가르고

왼발을 내딛었다.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는 돌이 느껴졌다. 그 돌에 올라서고 오른 발을 내딛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돌들은 없고 밑은 텅 비어 있었다. 당황한 나는 오른 발을 다시 평평한 돌로 옮기려했다. 오른발은 해매다가 모서리를 밟고 미끄러졌다. 돌들이 없는 그곳은 실제로는 내 가슴 높이 밖에 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미끄러져 발을 땅에 딛을 틈도 없이 센 물살에 떠내려갔다. 발을 버둥거리며 땅에 서려고 했지만 물들이 나를 떠밀었다. 그 물들이 내 얼굴을 덮치고, 가라앉고 올라오려 손발을 휘적거리는 게 반복되었다. 주위는 볼 수 없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머릿속에 여행의 이유가 되었던 사진이 스쳐지나갔다. 버둥거리는 걸 멈췄다. 몸에 힘을 빼자 몸이 한결 편해졌다. 물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맡겼다. 눈을 뜨자 나무에 노란 꽃들이 피어있었다. 오른 손을 뻗어 꽃을 잡고 싶었다. 꽃들은 점점 멀어져갔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손을 더 뻗었다. 노란 꽃들이 사라지고 손을 다시 거두려하자 획, 뭔가가 내 손을 강한 힘으로 잡았다. 물이 나를 피해 지나갔다. 나는 내 손을 잡고 있는 한 손을 보았다. 사람의 손이었다. 나와 손 크기가 비슷했다. 그 손은 나를 서서히 끌어당겼다. 손에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다가 점점 약해지는 물살에 발을 움직여 땅을 찾았다. 발이 땅에 닿자 내손을 잡은 그 손으로 눈을 옮겼다. 머리와 어깨를 덮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다. 나를 잡고 있는 왼 팔은 망토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걷는 그 아이를 따라 걸었다. 주위는 어느새 환해져있었다. 땅이 보였다.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 길이 있었다. 물은 걸어올 때부터 점점 낮아지더니 땅을 드러냈다. 땅으로 들어와 그 아이는 길의 입구 앞에 우뚝 멈추어 섰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멈춘 그 자세 그대로 계속 서있었다.

“저,…… 넌 누구니?”

말을 시켜도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없었다. 멈추어버린 기계같이 서 있던 아이를 계속 쳐다보았다. 손을 잡은 그 자세 그대로 그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손에 땀이 찼다. 손을 빼려하자 그 아이는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으며 소리 질렀다.

“안 돼!”

깜짝 놀란 나는 눈만 크게 뜬 채로 그 아이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내 쪽으로 돌렸다. 그 아이의 코만 살짝 보였다.

“나와, 같이 갈래?”

“어딜?”

“이 길 뒤에 끝이 있어.”

“끝?”

“싫다면 되돌아가도 좋아.”

“끝에 가게 되면 나는 죽는 거니?”

“아니, 넌 나와 함께 지내게 될 거야. 그 곳에서.”

“그럼 네가 나에게 무얼 해줄 수 있니?”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

나는 뒤에서 흐르고 있는 물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타고 온 것과는 다르게 유연하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다. 건너편에 보이는 어둠을 한 동안 응시했다. 그 아이에게 말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걸.”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나무들 사이에 있는 길 안으로 걸어갔다. 그 아이의 발에 맞추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걸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앞으로 고정한 채 말했다.

“그 곳엔 집이 하나 있어.”

“네 집이니?”

“그 집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갈 때



에는 꼭 둘이 같이 나가야 해.”

“왜 그래야 하니?”

그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환했던 주위가 길을 걷자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아무 말도 없이 열 발자국을 걸은 아이가 또 말을 꺼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 안 돼. 보려고 해도 안 되지.”

“어째서니?”

그 아이는 또 말없이 걸었다. 주위는 순식간에 남색 빛으로 변해갔다. 밀려있던 어둠이 뒤늦게 오는 듯, 한 걸음씩 마다 색이 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떠나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돼.”

“만약, 나오게 된다면?”

“어둠이 찾아오지.”

주변이 검게 물들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아이가 발을 멈추었다. 덩달아 멈춘 나는 주위의 어둠을 멍 하니 바라보았다. 안개가 낀 듯 앞이 뿌옇게 보였다. 눈을 느리게 깜빡 깜빡 거렸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마다 그 전 풍경의 잔상이 따라다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악, 숨을 한 번 크게 들이 마쉬자 눈이 감겼다.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은 손이 떨어져나갔다.

## 6.

어둠이 없는 이곳에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 졸릴 때 누워서 자고, 눈이 뜨이면 일어난다. 내가 일어나면 그 아이는 항상 등만 보인 채로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다. 동그란 1인용 식탁에 놓인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산책을 하러 나간다. 문 밖을 나가 곧장 네발자국 정도의 좁은 꽃밭을 걷는다. 그 곳을 지나면 5분이면 돌 수 있

는 호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주욱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 이어진다. 우리가 지내는 오두막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으면 그 아이가 말하는 '끝'이란 게 보인다. 절벽처럼 갑자기 직선으로 땅이 끊기고, 캄캄한 어둠만이 자리 잡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곳에서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은 없다. 다만, 내가 그곳을 계속 지켜 보던 모른 척 하던 가보고 싶어 하던,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끝을 향해 등을 돌려 서 있을 뿐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97번째 자던 날이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환한 빛에 눈이 감겼다. 그날따라 야양, 야양 하는 소리가 귓가를 울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게 되었다. 일어났을 때에는 왼쪽에 자고 있는 듯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다. 그 아이를 몇 번 흔들어 보았다. 싹싹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창문에 붙어 밖을 바라보았다. 꽃밭 사이 길로 무엇인가 굴러가고 있었다. 노란 물감 통이었다. 꽃길을 지나 곧게 앞으로 굴러가더니 호수 안으로 빠져버렸다. 아, 소리를 내며 앞으로 몸을 빼다가 머리를 창문에 부딪쳤다. 아이의 까만 등을 바라보았다. 문고리를 잡았다. 창문으로 호수를 보며 문고리를 돌렸다.

“금방 올게.”

호수만 바라보며 달렸다. 물감 통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호수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고 팔을 물 안으로 집어넣었다. 땅이 닿질 않았다. 점점 더 집어넣어 어깨까지 집어넣었지만 땅은 느껴지지 않았다. 호수 안을 들여다보자 바닥이 하얗다. 노란 물감 한 줄기가 하늘하늘 올라오고 있었다. 집과 호수를 번갈아 보았다. 팔을 몇 번 더 휘휘 저어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급히 닫았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집은 나간 그대로였다. 아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그대로 누워 있었다. 식탁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다. 문득 옷장이 보였다.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면 챙겨주어서 직접 옷장을 열어본 적은 없었다. 젖은 옷을 갈아 입으려 옷장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자 검은 천들이 쌓여있었다. 천들을 뒤적거리며 옷을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식탁에 앉았다. 배가 고파왔다. 주방으로 향해 찬장을 열어보았다. 검은 천이 채워져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았다. 검은 천들이 구겨져 넣어 있었다. 집의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모두 검은 천으로 매워져 있었다. 바닥에 앉아 멍하게 열려져 있는 서랍들을 보았다. 검은 등을 보이고 누워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목에 구멍이 뚫린 듯 쇠쇠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팔로 기어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몸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났다. 손으로 땅을 짚어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질질 끌고 갔다. 손에 땀이 맺혀 자꾸만 미끄러졌다. 침을 삼키자 목이 아파왔다. 아이의 팔을 잡았다.

“저…….”

가볍게 팔을 흔들어보았다. 손목을 잡고 흔든 것뿐인데도 어깨와 몸이 같이 흔들렸다. 흔드는 팔이 평소보다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조금 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천천히 어깨를 내 쪽으로 잡아당기자 그 아이의 오른쪽 팔과 몸이 툭, 묵직하게 바닥에 눕혀졌다. 그 아이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하얀 목 위로 눈을 돌리자 머리가 검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는 게 보였다. 주저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그 아이의 얼굴에 있는 검은 천을 벗겨 내려했다. 묶여있는 곳도 없었고 끝도 찾을 수 없었다. 손으로 우악스럽게 천을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손톱으로 핏줄어보기도 했다. 천이 벗겨지지 않자 내 앞에 놓여 있는 검은 공을 바라보았다.

“웁, 옥!”

텅 비어 찢어진 것 같은 목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뱉어내려고 했다. 몇 번이나 토약질을 해댔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의 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눈에서 물방울들이 떨어졌다.

“으웁, 흠. 옥..., 하옥, 액, 핵... 아... 아아... 아..., 아아아앙, 으아아아앙, 흐아아아앙.....”

내 눈의 물방울들은 멈추지 않고 아이에게 내렸다. 목이 찢어진 듯 아팠다. 어깨와 몸이 자꾸 떨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에게 그것들을 토해내다가 아이의 검은 얼굴을 보았다. 눈을 속, 닦고 일어났다.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워있는 아이의 양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문으로 질질 끌고 갔다. 문을 열고 나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꽃밭을 지났다. 축 쳐진 아이의 손에 빨갛고 노란 꽃들이 스쳤다. 호수에 도착하자 노란 물감 통이 호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호수의 반을 돌아 초원으로 갔다. 얼굴을 집을 향하고 뒤로 걸자니 가까워져오는 어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뒤를 돌아보려하자 아이를 손에서 놓쳤다. 아이는 내 다리를 무겁게 툭 쳤다. 그대로 뒤로 넘어진 나는 아이와 둘이서 끝을 향해 굴러갔다. 초원과 아이와 어둠이 눈앞에 뒤섞여 보였다. 눈을 한 번 깜빡였을 때는 내 눈앞에 어둠이 나를 삼키려하고 있었다. 떨어질까 두려워 잔뜩 몸을 움츠렸다. 끝으로 떨어진 나는 굴러온 그대로 크고 말랑한 것에 부딪혔다. 덕분에 멈출 수 있었던 나는 몸을 일으켜 어두운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자 울퉁불퉁하고 말랑한 것이 밟혔다.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레 걸었다. 낮이라도 달랐고 딱딱한 곳도 말랑한 곳도 있었다. 열 발자국 췌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길고 약간 말랑했다. 넘어진 나는 걸려 넘어진 게 있을 곳에 눈을 고정시켰다. 흐릿하게 보였다. 손을 뻗어 더듬더듬 만져보았다. 몇 번 만져본 나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람의 다리였다. 옆드려 있는 듯 종아리와 발뒤꿈치 부분이 보였다. 까만 천을 뒤집어쓰고 있어 상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천 사이로 얼굴이 살짝 보였다. 천을 잡아당겨 보았다. 숨을 멈추고 천을 천천히 놓았다. 내 뒤에 깔린

말랑한 것의 천을 걷어냈다. 내 왼쪽, 오른쪽 천을 걷어냈다. 벌떡 일어나 다른 곳에도 있는 천을 벗겨냈다. 리본이 풀리듯 잡아당기기만 하면 감겨있던 천이 벗겨졌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계속 주변의 천들을 벗겨냈다. 몇 번째 일지 모르는 몸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다시 굴러가고 있었다. 내 눈 앞에 많은 하나의 얼굴들이 스쳐지나갔다. 눈을 질끈 감았다. 턱, 소리와 함께 딱딱한 곳에 떨어졌다. 눈이 아플 정도로 환한 빛이 보였다. 실눈을 뜨고 옆을 바라보았다. 검은 천에 감겨있는 아이가 있었다. 조심스레 얼굴의 천을 잡아당겼다. 눈을 감은 그 모습에 그 아이를 감싸 안아보았다. 멀리 아무도 없는 거리와 건물과 나무와 풀과 꽃, 그리고 배낭을 메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떠나고 있는 하나의 다른 나의 뒷모습이 보였다. 안고 있던 아이의 망토를 벗겨냈다. 검은 망토를 뒤집어쓰고 그 아이의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감았다. 어둠 안으로 들어가 처음에서 끝으로 되돌아갔다.

<끝>

## 로스트 메모리즈 플레이어 \_ Lost Memories Player

---

▪ 국종석

### 0.

소년은 달렸다. 살아야 해. 소년은 손을 꼭 잡았다. 안 그러면 죽는다. 등 뒤가 뜨거웠다. 매캐한 연기는 소년의 시야를 가렸다. 역겨운 냄새는 소년의 코를 마비시켰다. 소년은 그저 달렸다. 여기가 나가는 길이다.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닫힌 소화전을 지나쳤다. 녹색 모서리를 돌았다. 문이 보였다. 그 너머의 붉은 빛도.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정신을 차려 보니 건물 밖이었다. 도착한 소화 로봇들은 소화전과 연결되어 불을 끄고 있었다. 소년은 옷에 물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았다. 만일 스프링클러 때문에 흠뻑 젖지 않았더라면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 소년은 문득 자신이 아직도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을 조심스럽게 떼면서, 소년은 자신이 필사적으로 데리고 나온 소녀를 바라보았다. 석양빛 속에서 소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 1.

메리는 여행가방을 닫고 말했다. “따라와.” 캐리어는 알았다는 뜻의 기계음을 냈다. 메리가 병실을 나서자 기다리던 간호사 한 명이 동행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며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 간호사와 같이 가기로 했다. 캐리어는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따라왔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메리는 캐리어의 소음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

병실을 나오자 텅 빈 복도가 나왔다. 어제와는 딴판이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마치 다른 건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열려 있던 간호사실 문도 닫혀 있었다. 저곳에 자주 놀러갔었는데, 이젠 갈 일이 없어졌다.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우울한 느낌이었다.

“생일 축하해.”

데스크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다. 마음이 놓인다. 메리는 오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도시로 갈 거예요.”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 가게 되면…… 그때 다시 보자.”

미소 짓는 얼굴을 뒤로 하고 메리는 바쁜 걸음을 옮겼다. 한달음에 공항에 도착한 메리는 캐리어를 끌어준 간호사와 헤어졌다. 간호사는 ‘직원전용’이라고 쓰인 통로로 떠났다. 아직 헬리콥터는 도착하지 않았다. 메리는 구름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심통 부릴 상대가 없다는 것이 실망을 키웠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대를 늘렸다.

도시로 가게 되면 당장 플레이어를 바꿔야지. 어쩌면 고장 난 건지도 모르니까. 기억이 뭉텅이로 잘려나간 걸 보면 이 플레이어는 미친 거야. 새걸 가지면 다 해결되겠지? 다른 애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새 플레이어로 바꾸기 전에 내가 아는 얼굴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게 더 급해. 근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메리의 생각은 갑자기 들려온 수많은 발소리에 짓밟혔다.

메리는 재생을 중단했다. 즐거웠던 기억은 여기서 끝이었다. 그때 기대했던 해피엔딩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가서, 살던 삶을, 꿇긴 기억을 되찾는 것 말이다. 지금 여기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폐허에서 눈을 뜨고 같은 기억을 재생하는 자신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고 과거를 복원할 수도 없는 황폐한 장소는 그대로 황폐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메리는 빗장 대신으로 쓰는 녹슨 쇠막대기를 빼내고 문 대신으로 쓰는 구부러진 철판을 밀었다. 덜컹 소리와 함께 밤새 쌓인 먼지가 날렸다. 얼른 피했지만 재채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욕이 튀어나왔지만 재채기에 지워져 버렸다. 화를 내며 기침을 하는 순간 재채기가 딸꾹질로 바뀌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발로 철판을 걷어찼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눈을 돌려 보니 거기에는 세타가 서 있었다.

“웬일이야?”

“팔이 부서졌어.”

메리는 세타의 왼팔을 흘긋 보았다. 팔꿈치 부분부터 꺾여져 있었다. 무리한 힘을 가했던 듯했다.

“어쩌다, 딸꾹. 그랬어?”

“발전기가 또 멈췄어. 이대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어.”

“몇 번만 더 그랬다간, 딸꾹. 네 팔도 수리할 수 없. 읊. 없게 될 거야.”

“발전기가 계속 멈추면 플레이어도 멈추게 될 거야.”

메리는 멈칫했다.

“끔찍한 소리는 그만둬.”

“딸꾹질 멎었지?”

“고맙네, 생각해 줘서.”

메리는 투덜거리며 구석에 있는 작업대를 향해 세타를 핵 떠밀었다. 세타가 휘청거리지 않는 모습에 아쉬워하며 메리는 세타의 인공 팔 모델을 수리하는 법을 플레이어에서 재생했다. 수리는 간단했다. 작업대 앞에 앉아 단순한 작업들을 한 단계씩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다. 61단계에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메리는 왜 이걸 사람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렸다. 99단계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메리는 세타의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했다. 153단계에서 마침



내 인내심이 바닥을 뚫고 추락했다. 메리의 생각에 따르면 사람이란 이런 것 대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예를 들면 즐거워하거나, 명상에 잠기거나…….”

“이런 걸 사람 대신 하는 뭔가가 있을 때 얘기지. 지금은 이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난 이걸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갈 거야. 가야 해. 오늘 당장이라도. 너무 오래 미뤄 왔어. 더 이상 여기 있다간 돌아 버릴 것 같아.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곤 죽을 사람의 얼굴뿐이고 변하는 것이라곤 죽은 사람의 숫자뿐이야. 나머진 네가 해.”

세타는 내던져진 다목적 드라이버를 가볍게 받고는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다. 위잉. 위잉.

“네가 전에 말한 적 있지? 내가 성인이 되는 날에는 돌아갈 수 있다며? 내일이 그 날인 건 알지? 난 네가 오늘 그 말 하러 온 줄 알았어. 근데 왜 한 마디도 안 해? 정말 그냥 팔만 고치고 갈 거야? 그러면 발전기는 확실히 고쳐 놔야 해? 방금 전에 배터리 부족 경고가 떴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세타는 고개를 숙인 채 팔의 접합부를 맞추고 있었다. 딸깍. 딸깍.

“자정쯤에 전망대로 와.”

세타의 말에 메리는 목에 걸린 말을 삼켜야 했다. 그래서 반응이 좀 늦었고, 세타의 등 뒤에 대고 말해야 했다.

“나를 기다리게 하면 알지?”

## 2.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가 거기 있었다. 메리는 그가 내미는 컵을 받으려 했다. 거기에서 풍기는 과일 향은 익숙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팔이 없었다. 오른팔은 깁스를 한 상태였고 왼팔은 주사바늘이 꽂힌 채

고정되어 있었다. 메리는 오른팔이 탈골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는 몰라도 그 후에도 오른팔은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타는 메리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돌아가곤 했다. 메리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무엇이든 집어 말하기 힘든 불편함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본다는 것, 그리고 보다가 몸을 돌려 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얼굴, 그 모두가 불편했다. 그러나 정말로 메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메리는 깨어나고 몇 주 동안 내내 악몽에 시달렸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플레이어는 꿈을 재생하지 않는다. 메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느낌 때문에 대낮에도 소름이 돋곤 했다. 그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메리는 필사적으로 행복한 기억을 찾았다. 그러나 검색 결과는 항상 비어 있었다.

그래서 메리는 자신의 기억을 마구잡이로 재생하곤 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 있곤 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였다. 병원에서 자신이 눈을 뜨는 순간, 또는 기억을 재생하기 시작한 순간. 플레이어는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득 몸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는 그때 고개를 돌려 병실에 있는 거울을 보면 산발한 유령 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자정이 되기 훨씬 전에 약속장소에 왔기 때문에 메리는 세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생해서 자신의 기억을 돌아보고 있었다. 메리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재생을 멈췄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찾을 수 있는 기억의 맨 처음으로 돌아갔다. 거기에 세타가 있었다. 세타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세타는 이번 폐허에서도 날짜를 세고 있었다. 벽에는 금이 그어져 있었다. 저게 왜 필요하지? 메리에겐 그것이 기억을 남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명. 아니면 여길 떠나려는 바람.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사람은 날짜를 세지 않는다.

“일찍 왔네?”

“내일이야. 잊지 마.”

메리는 벽을 본채로 대답했다. 털썩 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럼 내 기억을 내놓으라고 말하면 돼?”

잠깐의 침묵.

“약간이라도 버릴 생각은 없는 거야?”

“왜 내가 내 기억을 포기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할 권리는 내게 있어.”

“그 말은 맞아.”

“그땐 성인이 아니었지만, 이젠 아냐. 난 내 기억을 찾을 거야. 누가 빼앗아 간 건진 몰라도.”

“빼앗긴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메리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세타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어떤 기억은 사라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지 않을까?”

“플레이어가 없는 난민들처럼 되라는 거야?”

“지금 네 앞에도 한 명 있지.”

“넌 달라. 플레이어가 있잖아?”

“플레이어는 기억을 보존하지 않아. 재생할 뿐이지.”

“아냐. 재생할 수 있다는 건 보존되어 있다는 거니까. 보존되지 않은 건 의미 없어. 난민들은 그런 의미 없는 기억들을 갖고 사는 거지.”

“플레이어가 없다고 해서 기억이 의미 없는 건 아냐.”

“플레이어가 없으면 기억은 유지되지 않아. 다른 모든 것들처럼, 낡아가고 변해가고 사라지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야? 플레이어가 없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돼. 기억 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래서 플레이어가 없는 놈들이 싫어.”

“말조심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놈들’ 중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

“그럼, 이름을 불러 줄까? 사과의 의미로 불러 드리지. 한 번 대봐.”

세타는 생각에 잠겼고 무슨 말을 하든 비꼬아 주려고 버르고 있던 메리에게는 초조한 시간이 지나갔다.

“이름이란 건 어떤 걸 바라는 의미가 있어. 기쁨, 용기, 희망…… 이름이 기쁨이라고 해서 기쁘게 살지는 않지.”

“내 이름이 Merry(즐거움)라고 해서 즐겁게 사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 메리.”

“아, 관둬. 근데 불을 놓는다는 게 뭐지?”

세타의 걸음이 멎었다. 발을 내딛기 직전의, 다소 불안정한 자세로. 메리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의 모형 같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엄지로 밀어 쓰러뜨리기 좋은.

“화전을 한다는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타의 걸음은 다시 이어진다. 마치 멈춘 적이 없다는 것처럼. 그러나 메리는 엄청난 간극을 본 느낌이었다. 절대 멈추지 않는 시간 사이에 생긴 균열 같은. 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 단호해진 것 같은 세타의 모습을 보며 메리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대화를 이은 것은 세타였다.

“난민들은 널 이해하지 못해.”

“상관 없어. 내 목적은 생존이 아냐.”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처럼 먹을 것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이해받지 못하면 네게 문제가 생겨?”

메리는 단지 쏘아붙이려고 한 말이었기 때문에 세타가 고개를 끄덕이자 놀라고 말했다.

“난 난민들 중 가장 과격한 난민들을 책임져야 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난민들은 네가 원하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 바꾸고 싶어해.”

“난 줄 게 없어.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건…….”

“잠깐만. 미안한데, 난 관심 없어. 난 주어진 내 것에 관심이 있어. 주어지지 않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난민들이 원하는 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야. 맞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달라. 난 내 원래 기억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난민들에게 뭔가를 주는 건 지금으로선 내게 중요하지 않아. 줄 것도 없으니까.”

### 3.

세타가 걸음을 멈춘 곳은 옥상이었다.

“여기서는 불을 피울 수 있어.”

세타는 메리를 쳐다보았지만 메리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작동하지 않는 환풍기에 기대어 메리가 숨을 고르는 동안 세타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드럼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나뭇가지 몇 개를 그 속에 넣었다가 뺐다. 세타는 돌아오더니 메리 옆의 넓은 공간에 나뭇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역한 냄새가 메리의 코를 찔렀다.

“그거 뭐야?”

세타는 대답 없이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았다. 세타는 탈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것들을 꺼내어 불에게 던졌다. 불은 널

름거리며 잘도 받아먹었다. 새로운 먹이를 먹을 때마다 불길은 거세졌고 그러면 세타는 한동안 먹이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불은 연약해졌다. 세타는 때 맞춰 불에게 음식을 주는 단조로운 동작을 반복했다.

메리는 그 리듬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 감흥이 없는 전주 같았다. 불을 확 타오르게도 하고, 꺼지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살려내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비슷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무감동한 표정, 무감동한 행동, 무감동한 불길. 어쩌면 그것은 세타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닮았을지도 모른다. 메리는 생각했다. 세타, 네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야. 삶이 활활 탈 수 있게 해주는…….

“석유.”

메리는 그것이 자신의 말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메리는 불평하려 했지만 세타의 말이 계속 이어져서 그러지 못했다.

“화전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지?”

“농업용어야. 모르는 게 당연해. 어떤 땅에 원래 살던 식물을 불태워서 거름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몇 년 후엔 그 땅은 못 쓰게 돼.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도시를 대상으로 말이야.”

“나한테 이런 말을 들려주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겪어야 했던 가장 과격한 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화전민들이야. 넌 거름으로 예정되어 있어. 불태워질 거라고.”

세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메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게 무슨…….”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넌 얼마 있으면 성인이 돼. 나는 그걸 기념해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줄 생각이야.”

“도시로 가게 해줘.”

세타가 우울한 얼굴로 메리를 바라보았다.

“그게 화전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야.”

“난 가야 해. 그들하곤 상관없어. 이건 내 문제니까. 내 기억을 찾을 거야.”

메리의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말에 실리는 결연함이 있었다. 세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세타가 앞서 걸었다. 메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씨익 웃더니 달려갔다. 세타는 어두운 얼굴로 자신을 밀치고 뛰어 내려가는 메리를 보았다.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와 함께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세타는 계단을 열 단씩 뛰어내리며 외쳤다.

“뛰어! 널 잡으러 온 거야!”

전망대가 무너지고 있었다.

세타는 달렸다. 살아야 해. 세타는 손을 꼭 잡았다. 메리는 반쯤은 타력으로, 반쯤은 관성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간헐적 폭음이 들릴 때마다 대지는 몸서리를 쳤다. 덕분에 세타는 몇 번인가 넘어질 뻔 한 고비를 넘겼다. 물론 메리도 고비를 넘겼다. 세타보다 한 번 적게. 앞으로 고꾸라지던 메리는 세타의 손을 세계 잡아당겼고, 세타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메리는 헉헉대고 있었고 세타도 나올 건 없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메리를 잡아당길 힘은 있었다. 메리는 찡그리며 따라 일어섰다. 세타는 메리가 잡아당긴 왼손 검지가 망가진 것을 발견했다. 메리는 세타가 잡아당긴 오른팔이 몸에서 뿜어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둘은 일어나 다시 달렸다. 그러나 이번엔 손을 잡지 않았다.

둘이 도착한 곳은 폐허의 외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건물이 서 있었다. 세타는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서 불을 켰다. 그곳은 주차장이었다. 메리는 놀란 눈으로 줄지어 있는 2인승 바이크들을 바라보았다. “고물이네?” 세타는 창고로 들어가서 헬멧

두 개를 가지고 나오더니 아직 숨을 고르고 있는 메리에게 하나를 던져주었다. 메리는 여전히 바이크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거, 움직이는 거, 맞아?”

#### 4.

2인승 바이크가 어둑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바이크 탑승자들은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곧 다른 바이크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곡예운전으로 폐허의 틈새를 피해가며 달려갔다. 고속으로 달리는 바이크가 일으키는 바람과 진동 때문에 폐허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와 떨어져 나간 건축자재들이 충돌하는 소리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폐허는 곧 먼지의 안개로 뒤덮였다.

어느 순간 시야가 확 트였다. 새벽빛으로 장식된 도시의 폐허를 뒤로 하고 평지로 접어들자 바이크들은 최고 속도를 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개조된 엔진이 내뿜는 굉음 때문에 청력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헬멧을 쓴 목적은 고막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헬멧 덕분에 이 추적자들은 마침내 목표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속도를 줄이고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다. 곧 그들은 서로 멀어졌다.

추적자들과 동떨어져 맨 앞에서 달리고 있던 바이크는 한결 같은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다. 탑승자들은 추적자들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들을 앞서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다. 플레이어에서 재생되는 길안내를 따라가던 그들은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추적자들도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추적자들의 연료는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저 멀리 도시가 보였다. 불빛으로 장식된 도시였다.

“저기가 네 고향이야.”

플레이어가 세타의 목소리를 재생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리고 자신이 왜 설레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는 기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거추장스러운 헬멧이 머리에 주는 압력에서 벗어나는 게 차라리 더 기쁠 것 같았다.

“네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도시를 출입할 수 있어.”

메리는 땀한 머리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단지 마지막 부분만 귀에 들어왔다.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어서 들어가고 싶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동안 미뤘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통은 안녕이다. 행복한 기억들과 함께할 수 있다.

도시 외벽에 ‘출입제한구역’이라고 쓰여진 출입구가 있는 곳에 도착했지만 세타는 멈추지 않고 바이크를 몰아 외벽을 따라 달렸다. 그리고 다음 출입문에서 멈춰 섰다. 메리는 문을 잘 볼 수 있게 되자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진짜 문이었다. 녹슨 철판도, 갈라진 나무판도, 텐트의 지퍼도 아니었다. 메리가 정신없이 문을 구경하고 있을 때 세타가 헬멧을 퐁퐁 두드렸다. 정신을 차린 메리를 잡아끌다시피 문 앞에다 데려다 놓은 뒤 세타는 그대로 팔짱을 꼈다.

“날더러 어찌라고?”

“열어.”

“어떻게?”

“넌 알아. 기억하고 있으니까. 플레이어가 아닌 네가.”

마지막 말은 해괴하게 들렸다. 자신을 마치 플레이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 나빴다. 뭔가 한 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에 주춤주춤 문 앞으로 다가갔다. 곧 플래시가 터졌고 메리의 눈은 그 빛을 반사했다. 플레이어가 안내문을 재생했다.

“신원을 확인합니다. 피부를 대 주십시오.”

메리는 왼손을 패널에 갖다 댔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패널의 색이 녹색으로 변했다. 메리는 녹색을 보고 드디어 제대로 찾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환영합니다, 메모리아 시에레바나.”

메리는 싱긋 웃고는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세타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왼팔로 벽을 부수고 전선을 뽑았다. 문은 열린 채로 정지했다. 메리가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경보가 작동할 것이다. 세타는 메리의 팔을 잡고 달렸다. 메리의 입에선 폭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저 앞에 PRT(자동 운전 궤도 수송차) 역이 보였다. 대기 중인 PRT에 탑승하고 나서 세타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황량한 평야가 보였다. 바이크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설명해 봐.”

달리는 PRT 안에서 메리가 불쑥 말을 꺼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제정신이야?”

“널 여기 보내 주는 조건으로 난 화전민들하고 약속을 했어. 그들을 들여보내 주기로.”

“그래서 도시를 망치겠다는 거야? 지금 네가 한 짓이 뭔지 알거나 해?”

“그들 입장에선 이 도시는 ‘주어진 내 것’이고 네 기억은 ‘주어지지 않은 남의 것’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니?”

“난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이야.”

메리에겐 세타가 석유로 목욕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보였다. 갑자기 세타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지금 플레이어에서 세타를 검색하면 전혀 다른 기억들이 재생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작동시키기가 무서웠다. 그때 음악 소리가 들리며 PRT가 멈췄다.

PRT에서 내린 둘은 입구로 달려갔다. ‘기억보관소’라고 쓰인 패널을 지나치고 쇠를 굽는 소리를 내며 열리는 자동문으로 들어섰다. 안은 아늑했다. 걸어가는 그들 위로 전등이 켜졌다. 밝기가 가지각색

이었다. 복도에 쌓인 먼지 때문에 그들 뒤로 발자국이 새겨졌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다가 그 중 하나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점검중 표시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메리는 도시에 들어온 이후에 들었던 풀벌레 소리를 재생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메리는 무엇이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플레이어를 뒤졌다. 세타에게 말을 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침묵과 고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은 목적인 층에 도착하면서 깨졌다. 도착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스르르릉. 정면에 문이 보였다.

기억열람실.

문득 메리는 바닷가에서의 일을 재생했다. 그때 바람이 차다고 말했던가. 세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 걸옷을 벗어 주었다. 관두라고 말하려다가 어쩐지 귀여워 보여서 그냥 받아서 걸쳤다. 그때 정신을 타고 흘렀던 느낌이 기억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느낌을 재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어떤 느낌이. 메리는 그것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그때 귓가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야.”

퍼뜩 정신을 차린 메리의 눈에 비친 세타의 눈에는 결심을 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눈빛이 반짝였다. 메리는 그것을 보았지만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들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마침내 모든 기억을 찾고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기쁨 때문에.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억열람실 출입구 안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 5.

안에 있는 것은 빈자리들이었다. 메리는 약간 안쪽에 있는 자리 하나를 골라 앉았다. 영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메리가 기대했

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기억열람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억탐색기를 처음 이용하실 때는 기억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동의와 거부. 동의는 녹색, 거부는 적색이었다. 메리는 녹색을 선택했다. 도시의 색이니까. 곧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와 비슷한 영상이 보였고 메리는 익숙한 느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검색했다. 그러나 기억탐색기의 검색 결과는 비어 있었다. 메리는 실망감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옷이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내던져 버리고 싶었다.

왜 나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은? 플레이어에서 얼굴들을 전송시키자 기억탐색기는 곧 반응했다. 1월 11일. 기억이 시작되기 6일 전, 그날은 휴일이었다.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 그 중에 아이들이 보인다. 저것이 난가? 메리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며 잠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근데 내 손을 잡고 달려가는 저애는 누구지?

영상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메리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플레이어로 얼굴을 검색하려고 할 때 메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이 나왔다. 두 아이가 달려가는 이유였다. 아이들의 뒤쪽에선 화염이 밀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필사적이었지만 불이 더 빠르다. 하지만 아이들은 출입구에 거의 도착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폭발이 일어나고 영상이 멈췄다.

메리는 영상을 과거로 돌린다.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대상으로 기억을 검색한다. 사망자의 기억은 유족만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메리는 자신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잠시 후 바뀐 메시지를 읽는다. 친족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점에서 본 기억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큰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캐리어를 데리고 가는 간호사의 모습도 보였다. 간호사 대기

실 옆의 데스크에서 항상 자신을 향해 웃어 주던 어머니였다. 메리는 자신이 병원을 떠나던 날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어머니가 다시 한 번 자신을 향해 다시 보자고 말할 것 같았다.

어떤 사내가 자신을 치고 지나갔다. 그가 자신을 흘끗 볼 때 자신도 그를 보았다. 아버지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가에 손가락을 올려 세운 뒤 몸을 돌려 떠났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메리의 손을 잡으며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메리가 좋아하는 딸기 맛 음료수. 메리는 그때처럼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메리는 아버지가 휴게실 중앙에 가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보았다. 고탈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옆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가 어린 자신을 감싸는 것도. 메리는 엄마 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를 보았다. 그는 상의를 펼쳤다. 금속의 반짝임이 보였다. 곧 화면이 하얘졌다.

딸깍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메리는 세타가 부서진 팔을 맞추던 일이 떠올랐다. 무엇인가가 그녀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영상에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메리의 눈은 현재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이 보고 있는 것은 고탈을 지르는 아버지의 잔영이었다. 어디지? 어디였지? 메리는 황급히 그 장면을 찾았다. 어디서 봤지? 저 얼굴,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메리는 급하게 조작하려다가 당황해서 시간을 현재로 돌렸다. 텅 빈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다. 기억열람실 앞이다. 메리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과거로 돌리기 시작했다. 복도에 불이 켜졌다. 세타가 보였다. 곧이어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둘이 서로를 보고 있었다. 메리는 재생을 시작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펼쳐졌다. 자신과 세타가 서로를 보고 있었다. 아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세타가 아니었다. 세타가 겉옷을 벗어 자신에게 입혀 줄 동안, 자신의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다. 메리는 그 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악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기억을 재생하다가 기억의 끝에 다다랐을 때, 거울에 비쳤던 눈이다. 추억 중독자의 눈. 거울 속의 산발한 유령이 영상 속의 멍청한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메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만졌다. 차마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차가웠다. 흠칫 놀라 내려다보았다. 옷 안쪽에서 반사광이 보였다. 금속 빛이었다. 사내가 입고 있던 옷에서 났던 것과 같은 빛. 그 순간 메리는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 냈다. 그 얼굴은 메리가 기댔던 어깨 위에 달려 있었다. 기억이 번개가 내려치듯 메리에게 꽂혔다.

‘넌 거름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때 누군가가 메리의 손을 잡았다. 메리의 눈에 비친 것은 표정을 잃은 세타의 모습이었다. 메리는 다른 쪽 손을 충전기에 대려고 했지만 세타는 메리의 어깨를 짊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메리는 시뻘게진 얼굴로 고함을 질렀지만 “이 개새끼!” 세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멍!” 메리는 잠시 멍해졌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으며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순종 미친놈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배터리 부족 경고가 멈췄다.

‘저건 누구지?’

플레이어가 꺼졌다.

‘이건.....?’

저항이 멎었다.

세타는 손을 뗐다. 메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세타는 의자 옆으로 돌아가 메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메리의 입은 실실 웃고 있었다. 허공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자유로워 보였다. 세타는 잠시나마 그 눈이 부럽다고 생각했다. 세타가 떠나려고 발을 떼는 순간 메리의 발을 쳤고, 세타는 무의식중에 메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릴 기억을 가진 눈과 소유하지 않은

기억을 잃은 눈이 마주쳤다.

부지불식간에 세타의 입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넌 완벽한 기억을 원했지? 내가 그걸 줬어. 난 준 자의 권리를 행사하겠어. 네게서 그걸 거두는 거지.”

기억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난 주어진 내 것에 관심이 있어. 주어지지 않은 남의 것이 아니라.’ 세타는 과거의 메리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내가 널 자유롭게 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거라고 하고 싶겠지?”

세타는 기억열람실의 창문을 모두 열었다. 해뜰녘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세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난민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굶주리고 가장 폭력적인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화전민들이다. 플레이어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불쏘시개다. 플레이어가 있는 한 그들의 마수를 피할 수는 없다.

세타는 메리의 핏빛 얼굴을 바라보았다. 메리의 입가에 실린 웃음과, 눈에 담긴 환희도. ‘환희라고?’ 자신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감정의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공감하기 때문에 떠올린 것이 아니다. 자신을 속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기억은 그녀의 이름이었다. 기억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졌을 것이다. 세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폭음이 들렸다. 화전이 시작됐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세타는 통로로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여기는 곧 새로운 정착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폐허가 되어갈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세타는 달렸다. 여기가 나가는 길이다.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끝>

## 식물 이야기

---

▪ 전서현

수학 숙제를 끝냈다. 시계의 작은 바늘은 아직 숫자 '4'에 미치지 못했다. 혹시 잊은 숙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이어리를 펼쳐 메모를 확인했다. 영어 독해하기랑 단어 외우기는 다 했고, 독서기록장도 한 페이지 꼭 채웠다. 수학도 방금 전에 끝냈고 한자쓰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 네 시도 되지 않았다니.

친구들은 학교 숙제가 많다고 불평을 하지만 나는 반대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숙제를 내준단 말인가. 나는 엄마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학교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사학년 이 학기 까지만 해도 도서관에서 숙제를 다 하면 다섯 시쯤 되었는데, 오학년이 된 후로는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 육학년이 된 지금은 오늘처럼 한 시간 넘게 시간이 남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이곳은 불만한 책이 꽤 많은 도서관이라는 사실이다. 고려시대에 대한 책을 두 권 정도 읽고 나면 다섯 시가 되려나.

다섯 시 십분, 집에 도착하니 쌍둥이 남동생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엄마는 주방에서 똑똑똑똑 칼질을 한다. 매일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된다. 나는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다섯 시 삼십분이면 집으로 피아노 선생님이 오신다. 중간에 이사 때문에 두어 달 쉰 적도 있지만 나는 오 년째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요즘은 베토벤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뉴에이지 곡을 병행한다. 하루에 사십분쯤 피아노를 치는데 참고 들을만해서인지, 이웃들



이 참을성이 좋아서인지 항의를 하는 사람은 없다.

피아노를 배우고 나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한다. 의사인 아버지와는 저녁식사를 함께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엄마와 나, 그리고 초등학교 이학년 쌍둥이 남동생이 함께 밥을 먹는다.

“미현아,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엄마는 늘 밥을 퍼 주며 나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묻는다.

“뭘, 별로.”

나는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아, 태형이네 엄마가 개 왕따 시킨 애 잡는다고 수업 중에 들어왔어.”

하지만 저녁밥을 먹는 시간에는 엄마가 묻는 말들에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다.

“어머, 수업 중에? 그 엄마도 보통 아니네.”

“어, 태형이는 순한 편인데 엄마가 좀 썩 것 같애.”

“그러네. 그래서? 들어와서 어쨌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최윤이라는 애를, 반에서 좀 간죽 대는 애 있거든. 개 먹살을 잡고는 한번만 더 태형이 약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구. 반애들한테 너희들도 기억하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썩 하니 나갔어.”

“어머, 수업시간에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개 엄마 진짜 이상하네. 그렇게 들쭉서봤자 뭐가 해결 된다고. 창피해서 애가 얼굴 들고 다니겠어?”

“.....”

“엄마 때문에 애 학교 생활하기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곧 중학교 갈텐데, 좀 참지.”

“.....”

“당한 애도 놀랐겠다. 것도 수업 중에.”

“응. 나 밥 다 먹었어. 영어 볼게 좀 남았어. 올라갈게.”

엄마와의 대화에서 빠져 나가고 싶을 때 나는 공부 핑계를 대곤 한다.

“그럴래? 과일도 먹고 좀 쉬지.”

내가 서둘러 밥을 다 비운 후에도 쌍둥이는 장난을 하느라 밥을 반도 먹지 못했다. 엄마는 쌍둥이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부지런히 먹으라고 말한다.

삼십분 후인 여덟시엔 영어과외가 시작된다. 오늘도 동그랗고 예쁘장한 얼굴의 대학생 언니가 벨을 누르고 들어올 것이다. 어머니이, 안녕하세요. 미현아 잘 지냈어? 현수 준수도 안녕! 방긋방긋 웃으며 상냥하게 인사하고 들어서는 대학생 언니의 과외가 나에게 썩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학생 언니는 한 시간 중 삼십분은 영어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대학생활이 어떻고, 학창시절에는 어땠고, 며칠 전엔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심지어 연예인의 열애설도 다양한 감정을 섞어가며 말한다. 전부터 나는 그녀가 수업준비를 잘 해오는 성실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흥분도 잘하고, 곧바로 수습하는 말도 잘하는 그녀를 보며 가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얼굴에 다양한 표정을 담아 쉴 새 없이 말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게 편하다. 이 시간은 하루 중 내가 어색하게나마 웃는 표정을 짓는 유일한 시간일 것이다.

수업 중에는 음료수며 과일을 가져다주던 엄마였는데, 인기척이 없었다. 어학연수 다녀온 이야기를 한참 하던 대학생 언니는 목이 마른지 물 한잔만 마실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음료수를 가지러 일층으로 내려왔다.

“기집애들 둘이랑 로얄피아노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첫째가 미현 아빠 판박이더라.”

옆 동 과일가게 아줌마의 흥분 섞인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미현아버지를요?”

“그래애! 참엔 나도 안 믿었지. 그게 말이 되냐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잘못 본 거라고, 그 여편네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까봐 그냥 닳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다니깐. 그래도 사람이 어디, 안 들었으면 모를까, 어디, 그냥 지나치게 돼?”

“.....”

“세상에, 어쩔 그렇게 십년 동안을 감쪽같이 속여?”

“.....”

“미현아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먼 곳도 아니고, 세상에, 같은 동네에서 두 집 살림을.....”

“아뇨, 잠깐만요.”

엄마는 과일가게 아줌마의 말을 끊었다.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자신 없게 끝을 흐리는 엄마의 말과 다르게 과일가게 아줌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 미현엄마가 좀 자세히 알아봐. 요구르트 아줌마 말로는 사는 집도 학원 근처라더라. 세상에, 정말 너무 하는 거지. 아우- 내가 정말, 소름이 끼친다.”

“.....”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대학생 언니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슬그머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나를 보았다. 대학생 언니는 몰래 새치기를 하려다 한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어색하게 웃었다.

“왔어?”

“네.”

“수업 계속 할까?”

“네.”

대학생 언니는 내가 불과 오 분전에 물을 가지러 갔었다는 것도, 아직 어학연수 다녀온 이야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도 잊은 듯 영어 지문을 읽어 내려갔다. 엄마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과일과 음료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지문을 바라봤다.

‘아흡시!’ 정각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폰의 알림음을 듣고 대학생 언니는 얇은 한숨을 토했다. 어색한 기운을 온몸으로 버틴 듯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오늘은 나, 그냥 갈게. 내려오지 말고 좀 쉬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무심하게 “네.”라고 말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 닮았다는 이야기를 칭찬으로 여겼다. 누군가 “딸이 엄마 닮았네.”하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눈을 흘겼다. 아버지는 꽃미남 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건장한 체구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다. 또 큰 대학병원의 의사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등을 도맡아 했다. 할아버지는 넓은 정원이 있는 멋진 집에 사신다.

외할머니는 칠이 벗겨져 얼룩덜룩하고 좁은 아파트에 사신다. 외할머니는 집이 가난해 하나뿐인 딸자식 대학 공부를 못 시킨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똑똑했으면 장학금을 받고라도 다녔을 거라며, 사실 엄마는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라고 변명처럼 덧붙였다. 외할머니는 가끔 사진을 펼쳐놓고 “니 애미가 영화배우 정윤희처럼 대단히 예뻐니라.”하셨다. 한번은, “참 예뻐니라, 그래서 니 애미가 니 할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지.”하며 “너도 니 애미를 꼭 빼닮아서 참 예쁘다.”하셨다. 엄마를 꼭 빼닮았다는 외할머니의 말은 기분이 나빴지만 얼굴을 쓰다듬는 외할머니를 흘겨볼 수가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뚱뚱한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얼굴이나 팔, 다리는 전체적으로 우동 면발처럼 통통하다. 외할머니가 대단히 예뻐다며 들여다보는 사진 속의 엄마 역시 할아버지께 맞서며 결혼한 것이 이해될 정도로 예쁘지는 않다. 사진 속의 엄마는 지금보다는 많이 날씬하지만 미인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왜 엄마와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유치원에서도 예쁘고, 공부 잘하고, 부자인 여자애들이 인기가 많았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건 더 심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예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엄마를 좋아했을까. 그러다 문득 <신데렐라> 이야기가 떠올랐다. 다락방 같은 외할머니 집에서 살던 엄마가 할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요정 할머니의 마법 덕분이 아니었을까.

나는 보통 열 시쯤 잠자리에 든다. 영어 과외 시간에 과일과 음료를 잊었던 엄마는, 평소처럼 내 방문을 열고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감이 배어있었다. 불을 꺼도 잠이 오지 않았다. 로얄피아노 학원이라면 나도 조금 알고 있다. 같은 반 친구가 가끔 학원 가방을 가져와 몇 번 본적이 있다. 나는 내일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 로얄피아노 학원부터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새벽 두시 이후에 어렵게 잠들었지만 깨는 시간은 평소처럼 여섯 시이다. 머리가 아팠다. 주방에서 '똑똑똑'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엔 아버지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직은 모르는 거라는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 아직은 모른다. 나는 아버지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그래. 잘 잤니?"하고는 신문을 읽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아침식사를 했고, 식탁 위에는 삶은 양배추와 다양한 쌈채소들이 놓여 있었다. 평소와

다른 것은 없었다. 오이와 당근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다. 그 뿐이었다.

로얄피아노 가방을 들고 다니던 친구에게 길을 물었고 나는 지금 그 학원 앞에 서 있다. 피아노 학원은 우리 집에서 도보로 삼십분쯤 되는 곳에 있었다. 같은 단지는 아니지만 같은 동네이다. 학원 앞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나는 피아노 학원 앞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아이들을 멍하게 보고 있었다. 사립초등학교 셔틀버스가 학원 앞에서 멈췄다. 하얀색,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둘이 버스에서 내렸다. 키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어 보였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키가 조금 큰 아이는 아버지처럼 코가 오뎅했다. 짙은 눈썹, 쌍꺼풀이 없고 큰 눈도 아버지와 꼭 닮았다. 첫째라고 생각되는 그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외모를 약간 축소한 듯 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두 아이가 로얄피아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성큼성큼 학원으로 들어갔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소파가 있었고, 순서를 기다리듯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장난을 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방금 전에 들어간 두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두리번거리자, 소파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한 아이가 "선생님, 누가 왔어요."했다. 이십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의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나왔다.

"어떻게 왔니?"

"네, 집에서 피아노 레슨은 몇 년 했는데 학원을 다녀보려고요. 엄마도 곧 오신다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준비한 것처럼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그래? 그럼 잠시만.."

피아노 선생님은 원장실이라고 적힌 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들어갔다. 잠시 후 선생님이 얼굴을 내밀고 나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원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방금 전 밖에서 봤던 두 아이가 그 곳에서 걸어 나왔다. 큰아이는 원장실 쪽을 향해 “엄마, 삼십분만 있다가 꼭 같이 가. 약속 지켜야 돼.”하며 다짐을 받았다. 나는 ‘첫째가 미현 아빠 판박이더라’는 과일가게 아줌마의 말이 떠올라 몸서리를 치며 원장실로 들어갔다.

소파에는 날씬한 아줌마가 앉아있었다. 멋스럽게 웨이브 진갈색 단발머리, 하얗고 가름한 얼굴에는 화사한 화장기가 감돌았다. 하얀 블라우스에 보라색 치마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해보였다.

“어서와,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다고?”

원장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고상한, 여왕의 그것 같았다.

“네. 오년정도 배웠고, 베토벤 치고 있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오실 때까지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기다릴래?”

“네.”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엔,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가족 사진이 있었다. 가족사진은 두 개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두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오늘 함께 아침밥을 먹었던 아버지가 있었다. 하나는 편안한 캐주얼 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색을 맞춰 입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와 가족이 되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낯설었다. 내가 벌떡 일어나자 주스를 가져오던 원장이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왜?”

“아, 문자가, 엄마가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다음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주스를 입에 대지도 않고 도망치듯 밖으로 뛰어나왔다.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들의 삶을, 조금

더 엿보고 싶어졌다. 고상한 여왕처럼 말하는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의 존재를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원장은 약속대로 삼십분 뒤, 두 딸과 함께 학원 밖으로 나왔다. 세 모녀는 동화에 나오는 여왕과 공주들처럼 행복하게 걸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저들이 여왕과 공주라면 나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나쁜 마녀쯤 될까? 아니,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시녀쯤 되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손에 쥐고 있던 실내화 가방을, 그들을 향해 힘껏 던졌다.

“아야!”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키 큰 공주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 얘, 너 왜이래?”

왕비는 찢어질 듯 소리를 질렀다. “너 거기 서!”라는 왕비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빠르게 달렸다. 하하, 저주까지는 몰라도 골탕 먹이는 마녀는 될 수 있겠군. 역시 동화에서 마녀가 빠지면 재미없지. 실내화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조금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집 앞이다. 시계를 보니 네 시 삼십분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긴장되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떨림이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에 당황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주방에는 엄마가 없었다.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쌍둥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는?”하고 묻자 쌍둥이들은 베란다를 가리켰다. 엄마는 베란다에서 건조된 빨래를 걷고 있었다. 빠르게 두근거리던 가슴이 갑자기 묵직해졌다. 굳어버린 듯한 가슴이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평온함에 나는 분노를 느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엄마는 서 있는 나를 보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나흘 잠을 못잔 사람처럼 눈이 쾅했다.



“어, 숙제가 별로 없었어. 올라갈게.”

“간식 좀 먹고.....”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서둘러 내 방으로가 문을 닫았다.

그래, 엄마는 그랬다. 할아버지 댁에서 가족들이 모여 음식 장만을 할 때도, 다 같이 외식을 할 때도 엄마는 모르는 척 했다. 엄마의 신앙은 그냥 조금만 참자, 였다. 요정할머니의 마법이 사라져버린 시간, 재투성으로 변한 신데렐라는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 참아냈다. 수군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점점 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의 신앙을 놓지 않았다. 나는 나약한 신앙에 매달리는 엄마를 경멸했지만, 결국 엄마에 대한 경멸까지 참아냈다. 지금처럼.

웃음이 빠져나왔다. 나는 결국 엄마보다 더 광적인 신도가 아닌가. 사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증조할아버지의 기일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엄마, 나와 유치원생 쌍둥이는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아버지 위로는 큰고모와 큰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아래로도 고모 둘이 더 있다. 나는 책을 보고 있었다. 두 달에 한번 꼴로 만나는 사촌들과 어울리는 것 보다는 책을 읽는 게 더 편했다. 아니, 그보다는 엄마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고모들의 태도가 싫었고, 고모들과 스스럼없이 말하는 큰어머니와 달리 고분고분하게 참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이 싫었다. 대학생이 된 큰고모의 아들은 큰아버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고, 고등학교 삼학년이 된 언니는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다.

“『이렇게나 똑똑한 식물이라니』 식물에 관한 책인가봐? 재밌어?”

말을 건 사람은 국제중학교에 진학했다는 작은 고모의 아들이다. 사촌오빠는 책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아는 척을 했다.

“그냥, 조금.”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식물은 한번 뿌리내리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생존하고 씨앗을 퍼트리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파리지옥 같은 벌레잡이 식물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동물이나 벌레를 유혹해 사냥한다고 한다. 씨앗을 멀리 퍼트려야 경쟁을 줄이고 넓은 땅을 차지해 살 수 있기 때문에 민들레나 단풍나무 열매는 바람에 멀리 날아가고, 야자나무 열매는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여행한 후 정착한다. 쥘레는 맛있는 열매 안에 씨앗을 만들어 열매는 새에게 먹히고, 씨앗은 배설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식물은 삶에 대한 의지도, 힘도 없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강인하고 똑똑한 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나는 무척 반가웠다.

사촌오빠는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할 듯 내 주변을 서성대다가 동생들이 노는 곳으로 갔다. 여덟 살, 일곱 살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면서도 다음엔 또 어떤 놀이를 할까, 궁리를 하며 깔깔대고 웃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지만, 어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넓은 방에서 놀다가 어울려 자곤 했다. 어려서부터 늘 그래왔던 터라 나는 책을 다 읽은 후 벽 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그날 밤, 뭔가 재미있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간질간질했다. 그런데 이 낯선 느낌은 뭐지. 문득 이 낯선 느낌은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내 몸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잠결인 듯 몸을 뒤척이며, 벽 쪽을 보고 돌아누웠다. 이 일로 누군가 수군거리는 게 싫었다. 나는 조용히 덮고 싶었다. 손은 잠시 기다리는 듯하더니 잠시 후 내 몸을 반대쪽으로 조금씩 돌렸다. 옷 속으로 또 손이 들어왔다.

그만하라고 소리쳐야 했다. 하지만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나는 왜 꿈쩍도 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나의 침묵이, 나는 지금도

끔찍하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내 몸을 더듬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눈을 감고 시체처럼 누워있었다. 잠든 척, 모르는 척, 그 순간을 참았다.

그 날 이후로 나는 가끔 시체가 되었다. 모멸감을 참아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처가 됐다.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나는 더욱더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자신에게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듯 가면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책을 폈다. '미현아' 세 글자를 썼다. 공책 위의 아이에게 어떤 말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해 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공책 위에 적힌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낮에 하지 못한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따라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선생님의 지적을 두 번 들으며 사십 분간 피아노를 쳤다. 어제처럼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대학생 언니의 영어 과외를 받았고, 열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달라진 건 없었다.

사 년 전, 초등학교 이학년 이 학기를 시작할 무렵에 우리 가족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신축 단지, 복층 아파트로 이사를 하며, 방이 이층에 있어 이전 친구들이 놀러와도 맘껏 뛰놀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하지만 이사 온 아파트로 친구들이 놀러오는 일은 없었다. 이곳의 아이들과는 쉽게 친해지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나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지는 않는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뿐, 집에서 뭘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두어 번 엄마에게 그 전에 살던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엄마는 처음이라 그런 것이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었다.

나는 내가 왜 그동안 참아야 했는지를 알고 싶어진 것이다. 도대

체 아버지는 왜 두 가족을 한 동네에 살게 한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하며 나는 로얄피아노 앞을 서성댔다.

아버지와는 많은 대화를 한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늘 병원일 때문에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 말이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무뚝뚝하지만 속정은 깊은 사람이라고 했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랑 표현도 잘 못하지만, 속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를 많이 이해해드리고 사랑해드려야 한다고, 엄마는 혼잣말처럼 내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다. 가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십오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는 아버지를 이해했을까, 엄마도 결국 엄마의 생각과 언어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의 반어적 표현이 아닐까.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는 두 가족을 한 동네에 살게 한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했다. 한참 동안 학원 앞에서 서 있다 보니 문득 수업시간에 부엌에 관해 배우며 '동선'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이 기억났다. 동선, 어떤 작업을 하기위해 움직이게 되는 선, 선생님은 동선이 짧을수록 작업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하지만 너무 짧으면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설명도 덧붙이셨다. 개수대와 가스레인지의 거리가 너무 짧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기 힘들지만, 또 동선이 길어지면 개수대에서 가스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느라 조리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힘이 든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잘 계산해 주방의 구조를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설명하셨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동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걸어서 삼십분 거리에 있는 로얄피아노와 우리 집의 동선. 나는 지갑 속에 만 원짜

리 두 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큰 도로로 걸어 나와 택시를 잡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육백 이십동으로 가 주세요.”라고 말한 후 시계를 봤다. 세시 사십분이다. 집 앞에 도착하자 시계는 세시 사십육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가정이라는 작업의 동선은 육분인가. 평소 이동시간을 고려해 학원보다는 개인과외를 선호했던 아버지였다. 육분이라는 시간은 시간의 효율을 따지는 아버지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의 효율을 계산해 두 집안의 거리를 결정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는 씩씩하게 택시비를 지불했다.

아직 쌍둥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시간이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있겠지. 나는 엄마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향해 걸었다.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다. 엄마의 ‘그냥 조금만 참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거북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은 이미 내 혈관 구석구석을 지나고 있다. 나야말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다섯시까지 숙제를 다 마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학생 언니가 방긋방긋 웃으며 인사를 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일주일전에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매너 없는 미팅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엄마가 노크를 한 뒤에 키위와 딸기, 매실차를 내려놓으면 “어머, 어머니야- 감사합니다아-”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한다.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매실차를 훌쩍훌쩍 마시며 미팅남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자, 다시 지문으로 가자. 오늘 독해에서 중요한건 인권의야. 내가 먼저 한번 읽어 내려갈게.”

영어 과외도 끝났다. 아홉시부터 열시까지의 한국단편을 읽는 시간이다. 중학교 입학 전에 한국 단편소설을 많이 접해봐야 한다는

담임선생님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 나는 매일 밤 단편소설을 한편씩 읽고 요약정리를 하고 있다. 책을 읽고 간단한 해설도 찾아 읽으며, 그 내용을 같이 정리했다. '수난이대, 작가는 하근찬, 천구백오십칠년 작품이고, 기본 줄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박만도가, 한국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오는 아들 진수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역사적 상황 속에 놓인 민족적 수난을...'

"누나! 엄마... 누나!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아파서 울어. 누나!"

동생 현수가 겁먹은 얼굴로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알았어, 누나가 가볼게."

"엄마가 침대에서 구르고... 울고, 누나, 엄마가..."

현수는 나를 따라 오며 횡설수설했다. 나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오며 "엄마 죽지마아- 엄마, 아프지 마아" 하고 울었고, 준수는 침대 옆에 앉아서 "엄마, 많이 아퍼? 많이 아퍼?"하면서 울고 있었다. 엄마는 몸을 웅크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있었다.

"으윽, 으윽, 아아..."

엄마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으윽, 으윽."

엄마는 자꾸 구역질을 하는 것처럼 "으, 으" 신음을 토했다.

"토할 것 같애? 비닐봉지라도 갖다 줄까?"

나는 엄마에게 비닐봉지를 갖다 준 후,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지한테 전화할게."

"으윽. 아니, 으윽."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여러 번 벨이 울려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안 받아.”

엄마는 공벌레처럼 몸을 더 웅크렸다.

“일일구에 전화할게.”

쌍둥이는 점점 큰 소리로 “엄마아, 엄마아” 하며 울었고, 엄마는 몸을 웅크리며 “으, 으” 하고 울었다. 나는 일일구 아저씨에게 엄마의 상태와 집주소를 말했다. 오분 후에 구조대원 아저씨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나는 휴대폰과 엄마 지갑을 챙겨 쌍둥이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다. 일 년 전에 동생 준수가 급성맹장으로 입원했던 병원이다. 엄마는 응급실로 들어갔고, 나와 쌍둥이는 응급실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참 후, 의사선생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급체인 듯 하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삼십분쯤 후에 간호사언니가 나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미안해, 걱정했지?”

엄마는 간신히 끌어올린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엄마, 이제 안 아파?”

코끝이 찡해졌다.

“어, 괜찮아. 이제, 안 아파. 근데, 수액, 다 맞으려면, 한참 걸려. 먼저, 택시타고 들어가. 엄마, 수액 다 맞고, 들어갈게.”

엄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아니야, 같이 들어가. 기다릴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먼저 가. 안 그럼, 엄마가, 맘이 불편해. 엄마도, 쉬고 싶어. 나는 엄마의 곁에 지갑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돈, 가지고 가.”

“알았어.”

지갑을 열고 택시비를 꺼내려는데, 지퍼 옆에 메모지가 있었다. 메모지에는 로얄피아노를 찾아가는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엄마도 아빠의 또 다른 가족사진을 본걸까. 나는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고 다시 지갑을 엄마 베개 옆에 내려 놓았다. 동생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다. 그날 아버지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불안해하는 동생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는 새벽 한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왜 아직도 안자고 있냐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거기서 좀 잤어, 괜찮으니까 어서 올라가서 자.”

엄마는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며, 이젠 정말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서른일곱 엄마의 모습이 문득, 여든도 넘은 할머니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래층의 소리를 듣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 두었다. 새벽 두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새벽 여섯시가 될 때까지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고요가 절망스러웠다. 여섯시가 지나자 엄마의 푹푹푹 툼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참한 기분이 되어 계단을 내려왔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그 시간에 아버지는 로얄피아노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병원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밤 아홉시 삼십분 경에 집에서 걸려온 두 번의 전화쯤은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중요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에게 이 가정이란,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의 칼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이층으로 올라와 문을 닫았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혼자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다. 나는 느즈막이 동생들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갔다.

숙제를 부지런히 끝내고 네 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는 아직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침대위에 누워 있었다. 잠이 든 엄마의 모습이 시체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집밖으로 나와 쌍둥이를 기다렸다. 오 분쯤 후에 태권도 학원 차에서 동생들이 내렸다.

“현수, 준수... 엄마 많이 아팠던 거 알지?”

“응, 근데 아침엔 괜찮다고 그랬잖아.”

준수가 말했다.

“그래, 근데 그건 엄마가 우리 걱정할까봐 그런 거고, 사실은 엄마가 아직 많이 아파.”

“엄마 아파?”

현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응, 어젯밤처럼 심한 건 아니지만 아직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좀 쉬게 해 드리자. 엄마 지금 잠들었어. 집에 가지 말고 밖에 좀 있다 가자. 응? 엄마 꼭 자게..”

“어, 알았어.”

현수와 준수는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어리게만 봤는데, 현수 준수도 많이 컸다. 나는 피아노 선생님과 대학생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은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제 엄마를 깨울 사람은 없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각자 책을 찾아 읽다가 폐관시간인 여섯시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누나, 나 배고파.”

현수였다.

“그래, 누나도 배고프네. 우리 뭐 먹을까?”

내가 묻자 현수와 준수가 “난 라면.” “나도 라면.”했다.

“그럼 저 앞에 분식집 가서 라면 먹자.”

쌍둥이가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쌍둥이가 웃는 모습이 이제 보니 엄마를 많이 닮았다. 웃으면 반달눈이 되는 쌍꺼풀진 눈도, 우동 같이 뽀얗고 통통한 얼굴도, 전체적으로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도. 나는 새삼 엄마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동생들과 함께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라면 두 그릇과 김밥을 주문했다. 쌍둥이는 라면을 먹고 나는 김밥을 먹었다. 잠을 못자서인지 머리가 아프다. 나는 동생들이 다 먹기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한참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준수가 “누나, 나 라면 안 먹으면 안 돼?” 하고 물었다. 준수의 라면 그릇에는 통통 불은 라면이 절반도 넘게 남아 있었다. 허영고 통통해진 라면. 누가 봐도 먹기 싫은 모습으로 그릇에 버려진 라면이었다. 서글픔이 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준수가 남긴 라면을 입에 넣었다. 쫄깃한 맛이랴곤 없는 폭 퍼진, 식어버린 라면을 나는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다.

분식집에서 나와 놀이터 벤치에 앉아 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다. 저녁을 과하게 먹어서인지 속이 좋지 않다. 전화벨이 울렸다. 집이다.

“어, 엄마!”

“너 어디야? 현수 준수랑 같이 있니?”

엄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응. 현수 준수랑 놀이터에 있어.”

“엄마가 낮에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일곱 시가 다 되도록, 너희 밥도 못 먹었지? 미안, 너도 엄마 좀 깨우지.”

엄마가 자다 깨서 많이 놀란 모양이다. 흥분한 듯 말이 툭툭 끊긴다.  
“어, 엄마 피곤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린 밥 사 먹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들어갈게.”

“그래, 들어와.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놀고 있는 동생들에게 “현수야, 준수야, 엄마가 들어오래. 집  
에 가자”라고 말했다. 현수와 준수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걱정 없  
이 노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많이 불안했구나. 오랜만에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갔다.

엄마는 거실 베란다에 서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왔어? 미안해. 엄마가 깜빡 잠들어서...”

엄마가 우리를 보고 급히 나오려다 베란다의 삼단 화분대를 밀었  
다. 화분대가 쓰러지며 화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퍽!!” 큰 소리  
를 내며 화분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는 잠시 얼이 빠진 사람처럼 깨  
진 화분들을 보고 서 있었다. 흙은 빨간 피처럼 바닥에 퍼져 있었다.  
나는 비닐봉지를 가져와 화분 조각을 담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엄마는 “내가 정말 왜 이러지?”하고는 화분 조각을 하나하나 비  
닐봉지에 담았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깨진 화분들과,  
화분에서 떨어져 나온 화초와, 그것들을 보며 축축하게 젖어가는 엄  
마의 눈을 나는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베란다 난간 위에 엄마가 불안하게 서 있었다.

“엄마!!”

다급하게 엄마를 부르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엄  
마의 눈은 젖어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가려고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 다리는 식물처럼 땅 밑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엄마, 위험해!”

내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십이 층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다.

“악!” 소리를 지르며 나는 눈을 떴다. 꿈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네시다. 나는 일층으로 내려와 안방 문을 열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채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조용히 안방 문을 닫고 내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여섯시. 엄마의 칼소리를 들으며 일층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아침 식사를 했다.

“미현이 피아노 선생님이,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번 달 말까지만 수업해야 한대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꺼낸 말인데, 나는 피아노 선생님께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그래?”

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했다.

“네, 근데 다른 선생님도 좋지만, 이젠 학원을 보내볼까 해서요. 이 동네에 학원들이 많으니까 직접 다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꼼꼼하게 골라서 선택할까 해요. 피아노 학원이 많아봤자 스무 개 이상 되겠어요? 매일 한두 군데씩 다니면서 알아보면 갈 데 정해지겠지. 이젠 애도 아니고, 좀 멀리라도 실력 있는 곳으로 보내보려고요.”

엄마는 아버지가 개입할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르게 말했다. 엄마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의 가시가 아버지를 찌른 걸까. 아버지는 밥그릇을 다 비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에 잠긴 듯 멍해져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엄마는 참을성 있게 주시했다. 아버지가 안방 문을 딸깍 닫고 들어가자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짓는 엄마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엄마는 나를 보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이사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그치?”하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응, 그러네.”하고 대답했다.

나는 엄마를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조용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는 나약한 사람. 약해보이지만 식물처럼 강한 게 없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식물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존하며 종족을 보존한다던 이야기였다.

베란다로 갔다. 어젯밤 깨진 화분에서 떨어져 나온 식물들은 재활용 음료수통과 크고 작은 김치통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의 숨씨다. 응급처치는 잘 되었지만 미관상 오래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와 함께 예쁜 화분을 사러 마트에 가야겠다. 쌀쌀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상쾌하다.

<끝>

## 아픈 손가락

---

### ▪ 정영숙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내린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 잔에 검지 손가락을 넣고 막 잔을 들려던 참이었다. '아버지'라고 뜨는 전화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손을 뺐다. 손가락을 급하게 빼느라 커피가 받침대와 식탁에 쏟아졌다.

“니 엄마가 또 동구 밖까지 나가는 것을 도연 애비가 데리고 왔다.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랜는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힘들다 증말.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곧 갈게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마을 만 벗어나면 집도 찾지 못하는 엄마. 부쩍 치매증세가 심해진다. 이젠 집 전화번호도, 주소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엄마를 벌써 잃어버렸을 것이다. 몇 년 째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시지만, 속도만 늦출 뿐 멈출 수는 없단다. 약을 타러 가는 일도 아버지가 하신지 이미 오래 전이지만, 이제는 끼니 때 밥도 아버지가 하신다. 가스 불 켜는 것도,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손으로 넘어 간지 오래되었다.

친정 엘 가는데도 한껏 치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럴 새가 없다. 머리에 말고 있던 세트를 빼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친정집은 고양시 오금동에 있다.

지하철 삼송역에서 내려 시장 쪽으로 나갔다. 시장이라야 가게들이 몇 개 들어서 있는 소박한 곳이다. 문구점 옆 참기름 집에서는

연신 기름을 짜느라 정신이 없다. 아낙들 서너 명이 웅성대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고소한 냄새가 골목 안에 진동을 한다. 한창 때 엄마도 저렇게 기름을 짜서 우리 형제들에게 1.8L 소주병으로 한 병씩 나눠주셨다. 기름집 아주머니와 눈인사만을 건네고 발걸음을 옮겼다. 채소가게 옆을 지나 과일가게를 지나 떡집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좋아하는 무시루떡 두 개를 사서 학교 옆 골목길을 걸었다. 10여분쯤 걸어서 친정집에 도착했다.

“어이구, 진택 어머니 오네, 이런 낮 시간에, 바쁘디 니가 웬일이여?” 친정 엄마가 반색을 한다. 엄마는 내가 지금도 출근을 하는 줄 아나보다.

“당신 땀에 왔지 오긴 왜 와. 내가 전화했어.”

“뭘 전할허요. 애 놀라게.”

“그럼, 잃어버리고 나서 전화를 혀?”

아까 놀란 것이 안 풀리셨는지 아버지는 여전히 통명스럽다.

“내가 잠시 뒤란에서 나무 손 보고 있었는데, 없어졌지 뭐냐. 은행이 많이 떨어졌길레, 그거나 좃고 있으랬더니, 땀분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읊어져 부렸어. 아 글씨, 장단 할머니 만나러 시장 간다고 허더란다.”

“오다 들으니 장단 할머니가 돌아 가셨다네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드세요.”

“그러, 너도 들었구나. 그 노인네가 세상을 버렸다고 허드라.”

“니 엄마가 놀랐나부다. 장단할머니와 가깝게 지냈으니까.”

“정말 안됐네요. 왜 돌아가셨대요?”

“왜는 왜냐. 갈 때가 됐으니 갔겠지. 저녁 잘 드시고 자는 듯이 가 싶단다. 그 노인네가 죽을 복은 타고 났지 뭐냐. 살아서는 고생 고생만 하더니, 죽을 복은 있었던 게야. 나도 그렇게 죽어야 허는디…….”

“별 소리를 다 하구 그래요”

엄마는 요즘 들어 말끝마다 죽어야한다는 말을 한다. 듣기 좋은 소리도 자주 들으면 듣기 싫은데, 가슴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았다. 시장 끝의 한 모퉁이. 수십 년을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계셨던 장단 할머니. 엄마의 오랜 단골이자, 벗. 누런 쌀자루를 터서 보자기 삼아, 그 위에 계절마다 나오는 고춧잎이랑, 애호박이랑, 고구마 순이랑, 상추, 숙갓 등등의 채소를 올려놓고 팔았다. 할머니가 파는 상추는 오뉴월 햇볕아래에서도 아주 싱싱했다. 장단 할머니 콩이 맛있어서 장맛이 좋다, 고 엄마는 다른 집 콩을 사는 적이 없었다.

“근디, 더 놀라운 건, 고등학교 때 가출한 막내아들이 왔단다. 그 노인네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가출해서 가슴에 못을 박더니, 세상을 버렸다니까 왔는지 뭐냐. 쫓쫓, 그 아들 보고 잡아서 워터키 눈을 감었나 몰라. 죽은 담에 오면 뭐 허냐. 살았을 적에 한번이라도 얼굴 좀 봐주지.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어찌 알 것냐”

“.....”

“글고, 더 기막힌 건 장단 할미 누워 자던 방 바닷 비닐 장판에서 돈이 2천만 원이나 나왔는지 뭐냐. 것도 모조리 만 원짜리였는데, 월매나 오래됐는지 어떤 것은 구들에 눌러서 바삭바삭 허드래. 돈 방식은 들어 봤시도 돈 구들장은 못 들어 봤는디. 월매나 폭신평신했었냐.”

“어머, 그렇게나 많아요? 그 할머니 대단하시네. 언제 그렇게 많이 모으셨대요?”

“아 을마 전에 그 손녀딸 세탁기 새로 사준다고 신바람을 내더만... 근디, 나 헤티도 돈 있단 소린 안했어야. 맨날 돈 읊다고만 헐는디. 돈을 방바닥에 묻어노니까 읊지. 맛난 거 한번 지대로 안 사 먹더만. 또 왜 그 시장에서 신발 가게 하는 진혁 엄마 안 있냐. 그이에게는 8백 만원 빌려줬다고 하더라. 시장에 소문이 짝 안 퍼졌냐. 그 에



펜네 젊은 것이 노인네 헌티 돈을 빌렸다구 남편하고 대판 했대더라.”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없어졌을 떡을 엄마는 손도 대지 않고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참 불쌍타. 고생을 그러키 하더만. 통일되면 고향에 가야한다고 그 먼 길을 매일 왔다갔다 안했냐. 근디, 그렇게 먼 길을 왔다갔다 허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허드라. 시엄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징하더라. 그 할미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읍싸야. 젊었을 적부터 그러서 매일 수건을 쓰고 있는 거여. 그 무거운 오이를 한 접씩 머리에 이고 이리저리 다니며 팔았단다. 헌디, 때에 밥도 안 주더라. 워찌 살았는지 참 용혀. 자석을 서희나 넣으면 모허냐. 한나도 제대로 건사를 몬했으니…… 큰아들은 큰 집에 양자 보내고 병어리 둘째 아들은 이쁜 색시와 어린 딸래미를 두고 집 뒤에 웅덩이에 빠져 죽었다. 말 몬허는 병어리닝께 누가 밀어 넣었는지도 몰러.”

“아무려면 그랬겠어요?”

“그러 그러. 그럼 안 되지. 그 젊은 메뉴리는 탄데 가라고 손녀딸을 말아 안 키웠냐. 니도 봤제?”

“네, 어렸을 때 가끔씩 할머니 옆에 있던.”

“맞어. 참말로 이뻐는디. 셋째 말이다. 막내, 막내아들은 나 헌티도 월매나 사랑을 헐는지 몰러. 서울로 유학 보냈다고 매일 그 얘기만 해 쌓더만. 아 그러더니 어느 날 부턴지 힘이 읍어 보이드라. 왜 글냐고 물으니, 그 목심과도 같은 아들이 글씨, 집을 나가빠릿다고 하등만. 목심 꿩고 싶었을 거여. 죽지 못허서 살었제. 참 말 가없다.”

장단 할머니의 죽음에 잠시 총기가 돌아온 듯 보였던 엄마가 며칠 뒤엔 더 심한 증세를 보였다. 친정 형제들 간에 아이들 키울 때 채워줬던 미아방지용 팔찌를 엄마에게도 채워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너무 좋은 것으로 하면 은값도 비싸서 연락조차 안 해 줄테니 적당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만 분분하고 엄마한테 팔찌를 해드

리지 못했다.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나를 아버지는 '사위 저녁 챙겨 주라'며 등을 떠밀어 보내신다. 친정집에서 1주일 이상 머물며 엄마랑 잔 적이 언제였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뭐에 그리 바쁘게 살았는지. 퇴직을 한 후에도 그러질 못했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퇴근 시간으로 지하철 안이 붐빈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노곤한 어깨에 남편의 모습이 들어있다. 저마다 고단한 어깨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 있다. 저들처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던 남편. 이제는 저런 일상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의 짐까지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아들 승택의 문제로 나하고도 데면데면하게 지낸지 오래다. 군대 갔을 때 승택이가 마음을 여는 것 같았는데, 사귀는 여자 문제로 남편과 또 다시 칼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둘째 아들 승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몇 달 전 남편과 둘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승택이의 여자 친구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었다. 나는 몇 번 만나 보았는데,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승택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만나보니 심성도 곱고 괜찮아 보이던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느 집 딸인데?”

“그냥 뭐, 애가 괜찮아요.”

“부모가 뭐하는 사람이요?”

다그침 같은 남편의 말에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 엄마와 여동생이랑 세 모녀가 살아요. 아빠는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대네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까지

막 나갈 거야? 사귀든 말든 그건 맘대로 하라고 해. 그러나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승택이 그놈 당장 들어오라고 해!”

남편은 젓가락을 내 던지고 주방을 나갔다. 좀처럼 나에게 큰소리를 내지 않는 남편인데 승택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이 달라진 듯 언성을 높인다. 이런저런 것을 다 따지다보면 영영 작은 아들을 잃을 것 같았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인 것을. 이젠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었다. 출세고 성공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아들의 가슴에 또다시 멍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벌컥 서재 문을 열었다.

“뭣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체면 때문에?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겨우 맘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앤데, 당신 체면에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승택이 인생을 또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난 이 결혼, 시킬 거예요. 나도 동서지간도 엇비슷한 며느리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요? 이번에 반대하면 승택이는 영영 당신 안 보고 살 거예요. 또 등지고 살 거예요?”

속사포처럼 쏘아 붙이곤 “탕”하고 닫은 문을 닫았다.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곧 바로 남편이 박차고 나온다.

“뭐야? 당신은 큰애 결혼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런 결혼이 말이나 돼?”

“큰애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잦아요. 큰애 결혼하기 기다리려면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승택이가 왜 그렇게 엇나갔는지 당신 아직도 몰라요? 큰애랑 당신 무게에 눌러서 작은애가 숨통이 막힌 거예요. 집에서 기 한번 못 피고.”

“내가 뭐라고 했소?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소!”

“그게 더 문제예요. 작은애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쬐어요? 제대로 관심 한번 가졌냐구요? 매일 큰애, 큰애, 당신한테는 큰애만 최고였어요. 아버지라고 권위만 내세우고. 무언의 압박에,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좀 못 하면 당신 아들이 아닌가요?”

“뭐라고! 당신 점점, 왜 그래 당신, 당신답지 않게.”

“나 다운 게 뭔데요? 우린 이제 살만큼 살았어요. 누릴 만큼 누렸구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줍니다. 당신과 큰애의 입장 만 생각하지 말고 승택이만 생각하세요. 자식이 행복하다는데 그걸 막는 부모가 어딴어요? 우리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난, 큰애도 의사라고 해서 조건보고 며느리 맞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애들만 좋다면 아무 조건 없이 시킬 거예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동안 그렇게 속만 썩이더니, 이젠 결혼 문제로 또 속을 썩여? 한 번도 내 뜻에 따라 준 적이 없잖아. 이번 문제는 나도 더 이상 양보 못 했!”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날까 싶게, 양재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온다. 남편과 의견 다툼이 많은 것은 아닌데, 승택의 문제에서는 번번이 충돌을 한다. 사춘기 시절 외롭고 혹독하게 보낸 작은 아들, 승택. 이젠 승택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걱정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모친상을 당한 친구가 있다며 문상을 간다며 나갔다. 남편이 나간 뒤, 물이나 한잔 먹으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갈아만 놓고 반은 옆지른 커피와 커피 기구들이 그대로 텅굴고 있다. 남아있는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 버리고 정리했다. ㄷ자형 주방의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커피 기구들. 요즘 커피를 갈아서 내려 마시는 재미에 빠져있다. 저것도 안 했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잠시 다녀온다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님이 없어서 밤을 새워야겠다고. 다음 날 오후에나 돌아온 남편은 친구 이야기를 한다. 몇 달이 지났지만 승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난 아직 남편이 곱지 않다. 헌데, 남편은 승택이 문제만 아니면 여전히 다정하다.

“허 참, 그 친구, 고1때 같은 반을 했었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더니 모친상을 당하니까 연락이 오네. 성격이 툭툭하고 좋아서 인기가 많았었어. 우리 둘이 마음이 잘 맞았어. 난 그저 책만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친구가 참 부러웠지. 나랑 다른 점이 많았거든.”

“어디 사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 당신 친구가 있나?”

“그 친구가 고2때 가출을 했어. 애는 똑똑한데, 가정환경이 좀 그랬나 봐. 그걸 친구들이 아는 것을 못 견뎠거든. 어디 가서 든 잘 살고 있으려니 했었지. 다 각자 사느라 바빠서 찾아볼 생각도 못했고. 이제는 좀 살만한 나인데…… 강원도 산골에서 심마니를 한다네.”

“그래요? 좋은 것은 혼자 다 먹고 살았네. 뭘.”

“이 사람이, 그게 아닌가봐.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 언제 산에 같이 가자니까, 한번 가봐야겠어.”

남편의 이야기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새삼, 승택이 일만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승택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다. 그 애 얘기를 할 때면 생기가 돌고 얼굴이 밝아진다. 사랑에 흠뻑 빠졌다보다. 난, 그 애를 만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장협착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애가 왔다. 지혜.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낮이 설면 어찌지, 맘에 안 들면, 내게 아픈 손가락인 승택이가 좋아하는 애. 웬만하면 나도 지혜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회복기간 내 내 했었다. 문밖에서 똑똑 소리가 났다.

“들어 와요.”

미리 전갈을 받은 지라 지혜임이 짐작이 갔다.

“안녕 하세요?”

방긋 웃는 얼굴이 맑다.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으며,

“어서 와요. 승택이는 얼굴도 안 내밀고 지혜양 혼자 가래요?”

“네.”

“이리 와서 앉아요.”

지혜는 듣던 것처럼 고왔다. 아들이 좋아할 만 했다. 꼭 얼굴이 예쁜 것보다도 다소곳하면서도 야무져 보이는 인상. 가름하고 깨끗한 턱. 어떤 분인지, 이렇게 예쁜 딸을 버리고 가다니…… 이런 딸을 버리고 간 아빠는 무슨 사연이 깊을까. 지혜가 두 살 때 아빠가 집을 떠난 후 소식이 없다는 얘기를 승택이한테 들었다. 그 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워 걱정만 앞섰다.

“까칠한 우리 승택이가 지혜양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아니예요. 오빠가 이해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빠를 좋아해요.”

승택이 이야기가 나오자 방긋 웃는다. 집에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더니 밖에서는 다른가보다.

“충청도에서 오기 힘들었을 텐데, 먼 길을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몸조리, 잘 하세요.”

“그래요. 다음엔 병원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 좋은 곳에서 만나요. 조심해 가요.”

이렇게 지혜와는 몇 번을 더 만났다. 아들과 함께, 아들 빼고 우리 둘만. 볼수록 아이가 마음에 들었다. 지혜로 인하여 나와 작은 아들의 관계가 사춘기 이전의 돈독했던 시기로 서서히 돌아왔다. 승택이가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할 때, 지혜는 대학을 졸업을 해서 서울에 취직이 되었다.

“지혜가 방을 얻었는데, 오늘 도배를 해야 해요.”

“누가? 네가?”

“그럼요. 그 집에서 남자가 나 하난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밤늦게 돌아온 아들은 피곤한 내색도 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배를 하다니, 나는 웃음이 났다.

“힘들지 않았니? 내가 뭐 도와줄 것 없어?”

“혹시 우리 집에 청소기 안 쓰는 거 없어요?”

승택이가 내게 친근하게 묻는다. 뭐든 내가 알아서 해줬지 승택이가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있지. 다용도실에, 한 번도 안 썼으니 작동은 될 거야. 내일 갖고 가. 구석에 선풍기도 있다. 냉동실에 잔뜩 쌓여있는 대하랑, 랍스터도 너무 오래되면 못 먹는데…….”

승택이는 말없이 배시시 웃는다.

“내 눈치 볼 것 없이 필요한 것 있으면 갖고 가. 우리는 다 못 먹잖니.”

직접 달라고 하기가 뭐했는지 쭈뼛쭈뼛 말을 못하던 승택이는 내 말에 ‘반짝’ 눈이 빛난다. 지혜가 아빠로 인하여 모든 남자들에 부정적일까 봐 걱정은 됐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승택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고마웠다. 부모와 형이 있지만, 외롭고 혹독한 사춘기를 겪느라 충청도의 대학에 진학했던 아들, 둘째.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기숙사도 신청해 놓고, 집 떠날 준비를 다 해놨던 아들. 발표가 있자마자 그 다음날로 집을 떠났었다. 갓 스무 살의 얼굴이 칠십 노인의 얼굴을 하고서. 그때 나는 승택이에게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한 죄인이었다.

나는 중학교 영어 교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편을 잡고, 공무원 남편과 결혼을 했다. 남편도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갈현동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지하에서 셋방살이를 할 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집 안까지 빗물이 차곤 했다. 비에

젓은 가재도구를 보면서도 행복했다. 둘이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살림을 늘려 나갔다. 독채 전세에서, 내 집으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겼다. 아이들이 대학 1, 고2때 서대문 무악재의 47평 아파트에서 지금 사는 양재동의 주상복합아파트 53평으로 옮겼다. 큰 아들 진택이는 강남으로 가고 싶어 했다. 적당한 때에 분양 받아서 잘 늘린 덕도 컸지만, 남편 또한 부지런하고 성실했다. 고3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27년간 몸담았던 학교에 사표를 던졌다. 큰 아들 고3 때. 그것에 보답이라도 하듯, 큰 아들은 원하던 Y의대에 들어갔다. 의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레지던트 과정에 있다. 좀 더 공부를 해서 모교 교수로 남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걱정이 없던 집안에 둘째 승택이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고1, 1학기까지는 그런대로 공부도 했었다. 형과 우애도 있었고, 머리도 웬만했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승택이가 방황하기 시작했다.

“승택아, 오늘은 일요일이니 저녁에 밥 같이 먹자. 학원 가야하는 것 아니지?”

해가 중천에 뒀는데,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승택이는 아직도 잠에 빠져있다.

“그만 일어나자.”

“아니, 아직도 잔단 말야? 고등학생이 저러고 있을 새가 어디 있어!”

남편의 고함소리가 터져 나온다.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내가 얼른 남편을 가로 막았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 이제 막 잠이 든 모양이 예요. 좀 더 자게 놔둬시다.”

“에이, 정신머리 없는 놈.”

“여보, 우린 빨리 성당이나 갑시다.”

남편의 소매 깃을 끌고 집을 나섰다. 요즘 부쩍 예민하게 구는 승



택이 때문에 미사시간에 집중이 되질 않았다. 신부님 강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영부영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승택이가 일어난 기척이 느껴진다. 뻘뻘히 문을 열고 보니,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175cm, 58kg. 옆에서 봐도 군살이라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날렵한 몸매이다. 모델로 나갈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방을 나왔다.

“배고플 텐데, 얼른 나와라. 너 좋아하는 고기 구워줄게”

승택이는 아무 말이 없다. 순간 가슴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숨을 깊게 쉬고, 마음을 다스렸다.

“승택아,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살 거야?”

“참견 말고 나가 주세요.”

일이 있다며 성당에 남아있던 남편이 같이 들어오지 않은 게 다행이다.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샤워를 하려는지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뭔가 이상하여 가까이 가보니 엉덩이에서 빨갛게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승택아, 어디 아프니? 뒤통이 왜 그래?”

“알 것 없어요.”

“왜 그런 거냐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냐?”

“윗몸 일으키기를 했더니 그래요.”

얼마나 했으면 엉치뼈에서 피가 줄줄 흐를까.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할퀴어 놓는다. 승택이가 나올 때를 맞춰서 상을 차렸다. 승택이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내가 슬며시 안방으로 들어왔더니,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았다. 둘이 있는 집안에 정적만 흐른다. 저녁 무렵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은 꺾꺾 눌러 담고,

“당신이 조용하게 승택이 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여태 당신하고 잘 통하는 것 같더니, 뭘 문제가 있어?”

“글쎄요. 말도 잘 안하고, 투명스럽고, 사내애들은 아빠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잘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소. 그때 얘기 하지 뭐.”

“승택이가 나가지 않겠대요. 그러니 당신이 따로 불러서 얘길 해 보세요.”

“평일은 나나 승택이나 바쁘고 천상 주말 밖에 없는데, 알았소. 오늘이 좋겠네.”

단판을 지으려는 듯, 남편은 성큼성큼 아이 방으로 간다. 휴우~ 긴 호흡을 하며 쇼파에 쪼그리고 앉았다. 승택이가 남편에게라도 말을 하기를 바라면서. 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의 고성이 들린다.

“야, 인마. 말을 해! 말을! 말 안 할 거야?”

놀라서 달려가 보니 남편이 아이의 먹살을 잡고 흔든다.

“이놈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려.”

찰싹하며 승택이의 뺨을 때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매 한번 들지 않은 남편이었다. 매를 한번 들면 어찌될지 모른다고, 회초리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하라고. 다 큰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는 걸보니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그래도 승택이는 꿈쩍도 안하고 서 있었다.

“여봇! 말로 해야지, 왜 애를 때려요? 잘 얘기해 보랬더니.”

둘 사이를 가로 막고 남편을 밀고 아이 방을 나왔다. 밤이 늦도록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보니 아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온다.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나? 숨죽이며 들여다보니,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가슴속으로 찬바람이 또 한 번 세차게 지나갔다. 죄지은 사람처럼 아이의 모습이 남편에게 들킬 새라 얼른 안방 침대에 와서 누웠다. 다행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 집에선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는 잠만 자고. 옛그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진택이와는 다르다고.

같은 학교인데다 큰애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었다. 그 그늘이 작은 아이에게 그렇게 버거웠는가.

이유는 다르지만 승택이와 난 그날 밤을 하얗게 지냈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양 아침에 남편을 출근 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우유 잔을 치우며 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 울었다.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이 부분만 수 백, 수천 번 불렀다. 즐겨듣던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가슴에 쿵쿵 배긴다. 동창회나 남편과의 동반 외출에서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울고 있어도 눈물이 났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새 하얗다. 승택이는 고2, 고3까지 그런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식탁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먹었다. 학교에 오갈 때도 아무 말도 없이 쓱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다. 아빠와 형하고는 일체 말을 안했다. 오직 나에게만, 싫어, 안 할 건데, 짜증나, 전화 하지 마,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등 시비 거는 말투로 모든 의사소통을 했다. 주말엔 당구장이나 pc방에서 밤을 새고 들어오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다. 1, 2년의 세월이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승택이가 지던지 내가 지던지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잘라 낼 수는 없었다. 차츰차츰 마음을 비우니 내 마음이 편해지고 승택이에게 접근도 쉬웠다. 그렇게 수능을 치뤘다. 재수를 시키겠다는 남편을 말려서 승택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다. 충청도에 있는 학교에라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승택이는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났다.

고급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승진은 거의 확실했었다. 언제쯤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일찍 퇴근한 남편의 입에서 퇴직을 당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고

위 공무원들의 신세는 추풍낙엽과 같다. 나와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이야 하겠지만,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상심이 컸다. 갑자기 퇴직을 해서 할 일이 없어진 남편은 집에 있지 않았다. 봄부터는 약초 산행을 다녔다. 채취한 약초를 조금씩 갖고 왔다. 저걸 어쩌나 싶었는데, 설탕을 넣고 효소를 담궜다. 단오 전에는 쑥을 제법 많이 캐왔는데, 향아리에 효소를 담가 뒷 베란다 그늘진 곳에 놓았다. 그리곤 매일 일과처럼 향아리를 쓰다듬으며 효소를 뒤적여 주며 발효야 잘 되거라, 며 말을 건넨다. 100개의 약초로 효소를 담그는 백초 효소를 담그는 것이 희망이란다. 이렇게라도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자신의 상황이 변했을 때 좌절만 하지 않고 금방 받아들이는 남편이 고맙기조차 했다.

승택의 문제로 친정엔 가지 못하고 엄마와 통화만 매일 했다. 엄마의 정신은 왔다 갔다 했다. 당신이 손수 마련해서 길들인 집안의 오래된 솔단지며 향아리 등을 웬 거냐며 낫설어 하기도 했다가 아주 오래전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도 정확하게 기억해 내곤 했다. 승택이 결혼 문제로 집안이 시끄럽자 작은 놈, 허락해라, 너도 그랬다. 작은 놈이 꼭 너야, 했다. 내가 25살에 결혼한다고 하자 남의 집으로 일찍 가버린다고 친정엄마는 서운해 했었다. 결혼 후도 몇 년 동안 그 말을 해서 남편을 서운하게 했었다. 아들 노릇한다던 내 다짐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보다.

강원도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며칠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며 남편이 배낭을 꾸려 떠났다.

내심 승택이와 친정엄마의 문제에서 벗어나 혼자 있고 싶은 참에 집을 나가는 남편이 고마웠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없다. 하루 이틀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라는 말만 나온다.

켜 놓은 TV에서 뉴스 특보가 나온다. “가리왕산에 산사태 발생 실종자 4명 예상.”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강원도 어느 산으로 갔단 말인가, 그 친구 전화번호라도 알아들 걸, 후회가 된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두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아들에게서 도리어 전화가 빗발친다. 아직 어찌 된 것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불안하다.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쏟아 부은 비로 인하여 강원도 가리왕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종자는 심마니 들일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화천군 상서면에 사는 김모씨에 의하면 함께 간 심마니들이 2인 1조로 움직였는데, 그 중 두 팀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KBC 뉴스…….” 앵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TV를 껐다. 다시 켜다. 껐다 켜다를 몇 번이나 반복 했다.

전화만 하던 작은아들이 집으로 왔다. 아무래도 강원도를 가야겠다고 나섰다.

“형은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 제가 가 볼게요.”

“네가? 혼자? 아니, 아니야, 나도 가자. 나도 갈게.”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다녀올게요.”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서 그래.”

주섬주섬 가방에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럴 때도 큰 아들은 시간을 낼 수 없다. 의대 공부할 때도 그랬고,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지금도 너무나 바빠서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 숙된 말로 잘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러더니 그 말이 꼭 맞는 말인 것 같다. 승택이까지 의사가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곁에 승택이가 있어서 든든했다.

승택이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지혜가 같이 가겠다고 하나보다. 허락을 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지혜는 가방을 들고 주차장에서 있다. 승택이가 만류했는데도 굳이 가겠다고며 짐을 챙겨 온 것이다. 승택이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셋이서 가리왕산 입구에 도착했다. 산

입구의 팬션에 숙소를 정했다. 지혜는 나랑 함께 방을 사용하기로 했다. 짐은 푸는 등 마는 등, TV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뉴스 특보입니다. 가리왕산의 산사태에서 두 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심마니로 큰 부상 없이 구조 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둘 뿐이었습니다. 두 명씩 행동하기로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2인 2조가 되어 네 명 이상씩 움직이고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날은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둘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매몰된 지점이 다섯 곳 중 세 곳은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지형이 워낙 험한 곳이라 탐색하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엄마, 이 근처에 현장 상황실이 있다니까 가 볼 게요.”

“그래라, 너도 조심해라.”

지혜는 옆에서 살뜰히 나를 챙기고 있다. 짐도 풀고, 이것저것 꺼내 놓는다. 가을 해가 많이 짧아졌다. 벌써 해가 누엿누엿 지고 있다. 상황실에 나가있던 작은애가 돌아왔다.

“밤에는 위험해서 수색작업을 못 한대요. 내일 동이 트면 한다면, 일찍 나가 봐야겠어요.”

급작스럽게 출발하느라 먹을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나에 비해, 지혜는 꼼꼼히 챙겨왔다. 손끝도 야무지고 사려도 깊다. 저런 점들이 승택이의 마음을 사로 잡았나보다. 대강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혜와 마주 앉았다. 조심스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대?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해 주셔?”

“가끔씩이요. 엄마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힘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행복했었다고……. 저를 낳았을 때 아빠가 많이 기뻐하셨대요. 이쁜 공주를 선물로 주셨다고,

고맙다고. 사업을 하셨었대요.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꾸려 나갔었는데,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셨나 봐요. 제가 두 살이고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자 아빠는 잠시만 몸을 피한다며 집을 떠나셨는데, 그 길로 끝이었어요. 엄마는 빗쟁이들한테 시달리시다 못해 한 밤중에 어린 저를 데리고 살던 곳을 뺐어요.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피신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때부터 살길이 너무 험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공부시켜야 한다고 남의 집 일에, 새벽에 건물 청소,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하셨어요. 엄마와 저희들은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를 찾지 않은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슴에 웅하니 찬바람이 훑고 지나간다. 밝은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대견하기만하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괜히 물어봤나 봐. 힘들면 그만 해도 돼. 우리 잘까?”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빠 정도면 좋은 사람 만 만날 수 있는데.....”

“좋은 사람이 따로 있나? 나도 지혜가 좋은데.”

“요즘 조건 많이 따져요. 오빠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마. 조건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먼저야 사람. 난 사람이 제일 중요 해. 승택이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말썽쟁이였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대학 때도 알바 한번 안 했을 걸? 남자는 적당히 고생도 해봐야하는데, 고생이라곤 겨우 군대 갔다 온 것뿐이야. 그나마 안 갔으면 정말 큰 일 날 뻔 했어. 군대 갔다 오더니 조금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 덩치만 크지, 애야 애. 지혜가 많이 도와줘.”

“처음 동아리에서 오빠 만났을 때, 제가 오빠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남자를 사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공부도 해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해서 시간도 없었구요. 그런데, 오빠가 한결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란도란 우리의 말소리가 들렸는지, 옆방에 있던 아들이 빨리 자라며 얼굴을 내밀었다.

얼마나 지났는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TV를 켰다.

“뉴스 속보입니다. 어제 구출된 사람들에 의하면 실종자는 두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떠난 여덟 명중 여섯 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실종자는 강원도 화천군 화서리에 사는 심마니 조덕상씨와, 서울에 사는 이철수씨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두 군데 매몰지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쳐서 구조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의 이름이 나왔다. 나는 승택이와 지혜를 깨워 황급히 구조현장으로 달려갔다. 부디 남편의 무사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승택이와 지혜도 아무 말 없이 매몰지를 바라만보고 있었지만, 그 간절함은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단다. 한 낮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속이 탔다. 늦은 오후나 되어서야 탐지견을 보낸 결과, 다섯 번째 매몰지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낭보가 들렸다. 그러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역이란 다. 아무런 대책 없이 또 날이 저물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 왔다.

“어떻게 된 일이나? 이 서방이 거긴 왜 갔어? 얼마나 놀랐니? TV에 나오기에 놀라서 니 엄마한테 말 허고 말았다. 그럴 땐 워찌 그리 잘 알아듣는지, 니한테 전화 놓으라고 성화다. 니 엄마 걱정은 말아라. 이서방 무사할거야.”



놀라긴 아버지가 더 놀라신 것 같았다. 침착한 분이셨는데, 당신 말씀만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다. 급하게 전화를 끊는 아버지의 음성 에 역정이 묻어났지만 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숙소로 돌아오니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며칠 동안 흠 속에 묻혀 있을 남편 을 생각하니 목이 멘다. 좀 더 잘 해 줄 걸,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마음에 걸렸다. 그런 내 맘을 알아챘는지 아들이 내게 다가오더니 나를 안았다.

“엄마,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무사하실 거예요. 그동안 너무 속만 썩여 드려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별 소릴 다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말거라. 아빠는 꼭 살아계실 거야. 우리 힘내자. 응?”

지해도 살그머니 다가와 안긴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제만 해도 다른 곳에 잘 있겠지 하는 일말의 희망과 안도감이 있었는데, 밝혀지고 나니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다. 가을밤이 길기만 하다. 우리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달은 밝았다.

발견 2일째, 언론에서는 매몰 예상시간과 극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표하고 있었다. 난 그 말을 애써 피했다. 듣고 싶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꼭 살아 있을 것이라는 굳은 신념뿐이다. 급경사 지역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소방대원들과 특수 구조원들이 파견된다고 한다.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다. 아침부터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 하는 짧은 함성이 들리는 듯 했다. 저 멀리 들 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이 보인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통제선 가까이 갔다. 가족조차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호자 분,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와 승택이가 달려갔다. 남편이다. 눈을 가리느라 얼굴에 검은 수

건을 덮었지만, 알 수 있었다.

“여보, 승택 아빠!”

“아빠!”

나와 승택이가 동시에 외쳤다. 남편은 말을 대신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다. 의식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 가족은 대기실에 남겨놓고, 환자만을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 셋은 손을 꼭 잡고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다른 구조자도 들어왔다. 오늘의 구조는 모두 성공적이라 한다. 수 십 년 같은 몇 시간이 지났다.

“보호자 들어오셔도 됩니다.”

“얼른 가 보자. 애들아.”

말은 했는데, 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나를 두 애들이 부축하여 병실로 들어갔다.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다. 많이 마른 것 외에 다친 곳은 없어보였다.

“아빠, 죄송합니다.”

“여보.....”

지혜를 나와 승택의 사이에 두고 남편을 맞았다. 지혜는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고생스럽게 해서 미안해.”

“무사하니 다행이에요.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난 괜찮소. 그런데, 내 친군 어딴소?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살았소.”

“친구 분이요? 그 분도 무사히 구출됐으니 걱정 마세요.”

“그 사람도 잘 돌봐야 해요. 내 은인인데.”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다 법석을 떨었지만, 우리 모두 거절하고 서둘러 강원도 병원에서 진택이가 근무하는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남편 친구도 함께. 한사코 싫다는 것을 치료만 하고 내려가라

고 남편이 강력하게 권했다. 남편의 구급차에는 나와 지혜가, 덕상씨의 구급차에는 승택이가 탔다. 진택이 있어서인지, 기다림 없이 병실로 들어갔다. 지혜는 남편 친구가 낯설지 않은지 덕상씨에게도 살갑게 잘한다.

“애들아, 너희들은 이젠 집에 가서 쉬 거라. 여긴 내가 있으마.”

“엄마, 제가 있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있을 거야. 지혜 데리고 어서 가거라. 지혜도 고생 많이 했다. 피곤할 텐데, 어서 가, 어서.”

한사코 병실에 있겠다는 승택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초췌한 모습의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 안정을 위하여 링거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진택이가 말했었다.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남편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깰어요? 내가 잤나보네.”

“당신도 고단 했을 거요. 코까지 골던데?”

“어머 그래요, 잠시 눈만 붙인다는 것이.”

“잠을 깨워서 미안하오. 그동안 당신을 못 봤더니, 너무 보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소.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구료.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농담을 하는 걸 보니 이제 살만한가 보네.”

어느 새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다.

“덕상이한테 가 봐야겠어. 나 좀 일으켜 줘요.”

일어나겠다는 남편을 만류하고 내가 덕상씨 병실로 갔다. 덕상씨는 남편보다 더 많이 다쳤다. 다리와 팔에 골절상도 입었다. 다른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병실이 따로 배정됐었다. 병실에 가보니 진택이가 다녀갔다며 오히려 남편을 걱정했다. 자기는 괜찮으니 남편 간호나 하란다.

남편에게 가기 전에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친정 엄마와 통화를 했

다. 친정 엄마는 찢찢 우셨다. 매몰되었던 사위보다도, 딸인 내 걱정을 더 하는 엄마. 엄마와는 통화를 해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치 않다. 애써 밝은 표정으로 남편 병실로 왔다.

“덕상씨, 아직 반 기브스를 했어요. 얼굴은 밝아 보였어요. 자기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빨리 완쾌하라던데요.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 자기가 온다고 당신은 오지 말래요.”

“그런 게 어딴. 내가 가야지. 나 때문에 많이 다쳤는데. 애썼소. 고마워.”

“고맙긴, 내가 남인가? 당신 고마워 소리가 입에 났네요. 호호. 듣기 싫진 않는데.”

“당신과 애들은 많이 놀랐겠지만, 난 참으로 좋은 경험을 했소. 그동안 내가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산 것 같아.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요. 정말 다행이요.”

“그런 경험은 안 해도 돼요. 난 얼마나 놀라고 자책했는데…….”

그때, 동생한테 문자가 왔다. ‘언니, 고생 많지? 며칠 전에 엄마가 장독대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많이 안 다치셨으니 걱정 마.’ ‘지금 올케네 동네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셔. 형부 때문에 일부러 연락 안했어.’ 연거푸 두통이 온다. 무슨 문자냐 물으며 남편은 또 내 손을 잡는다. 차마 남편에게 말 할 수 없어서 친구라고 돌려 댔다. 표현을 잘 하지 않았던 남편. 생사의 기로에서 남편이 많이 놀랐나보다.

“가리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오. 병원에서 나가면 함께 가 봅시다. 다른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데, 그날은 나에게 산야초를 알려준다고 둘이서 골짜기를 택했지. 온통 바위산이라 골짜기로 가야만 산야초가 많다고.”

“나도 가리왕산이 보고 싶네. 빨리 나아서 함께 가요.”

“흠속에 갇히고 보니 자연 앞에선 우리 인간도 한갓 미물에 불과

했소. 오만했던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당신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야, 하고 싶어. 이렇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아쉬웠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더라구. 살아난다면 우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소.”

남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편안한 웃음을 짓는다.

“덕상이 덕에 내가 살았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다 그 친구 덕택이야. 비가 많이 내렸지만, 내가 가리왕산에 오기 힘들다고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 고립 되었고, 그곳이 무너져 내린 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친구 침착하게 잘 대처하더군.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난 처음으로 부끄러웠소. 평생을 책상물림으로 산 것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세상을 헛산 것 같았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 혼자 그렇게 되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 했을 거요.”

병실 밖에서 똑똑 문소리가 났다.

“네~”

주치의 선생님 곁에 함께 있는 몇몇의 의사들 사이에 큰아들도 있다. 같은 병원에 있어도 진택이 얼굴은 이렇게나 볼 수밖에 없다.

“회복이 빠르십니다. 조금 안정되시면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진을 마치고 의료진이 나갔다. 맨 뒤에 있던 진택이가 우리에게 눈인사를 하고 간다. 남편이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그 애 있잖소, 승택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애.”

“지혜요?”

“그 애가 정말 당신 맘에도 드는 거요? 승택이가 뭘 볼 줄 알아야지?”

“보면 볼수록 예뻐요. 어린 데 사려도 깊고, 아주 반듯하게 잘 컸어요. 승택이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지혜라면 승택이를 제대로 사람 만들 것 같아요. 지혜와 함께 있을 때 승택이한테서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남편의 평온한 모습이 이제는 지혜와 승택이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친정 엄마의 일 때문에 한시바빠 동생과 통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의 대화를 끊을 수가 없다.

“지혜를 몇 번만 보면 당신도 좋아질 거예요. 애가 어찌나 싹싹한지. 당신이 그래주면 승택이가 엄청 좋아 할 텐데.”

“승택이 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니까…… 당신 좋으라고 한 거요.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다 맞춰주고 싶소.”

나도 모르게 싱긋 웃음이 나왔다.

“당신 그 맘 변치 말아야 돼요. 안 그래도 필요한 게 있는데, 내일 지혜한테 갖고 오라고 해야겠네.”

상기된 목소리로 승택이한테 내일 지혜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 빨리 지혜를 제대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승택이보다 더 컸다. 승택이와 통화를 끝낸 뒤 동생과도 통화를 했다. 친정엄마는 장독대에서 낙엽을 쓸며 뒷걸음질하다가 떨어지셨단다. 장독대는 한 길이 넘는 높이에 있다. 아마도 평지인 줄, 위치감을 잃으셨나 보다.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살림을 하지도 않으면서 거긴 왜 올라갔느냐며 동생이 한탄을 한다. 아버지한테 지청구를 들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또 마음이 저린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나보다. 그런 엄마 때문에 밖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아버지는 아예 엄마한테 아무것도 시키시지 않는다. 그냥 다치지 않게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신다.

그러나, 발 달린 짐승이 어떻게 집에만 있냐며 텃밭에도, 뒤뜰에도  
엄마는 나갔었다. 그런 아버지도, 엄마도, 다 가없다.

덕상씨는 남편보다 열흘이나 더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다. 남편  
이 승택이와 집을 나서면서 하룻밤이라도 우리 집에서 재워 보내야  
한다며 함께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난 오랜만에 손님 맛을 준비로  
분주했다. 지해도 거들겠다며 왔다. 우리는 덕상씨가 무얼 좋아할까  
선문답으로 묻고 답하며 음식을 만들었다. 지혜의 재치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음식을 만들었다. 우선 김치가 두 가지나 있어서 한결  
수월했다.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지혜 어머니께서 배추김치와 파김  
치를 보내주셨다. 병원 생활하느라 김치가 없을 거라며. 파의 흰 부  
분이 일렬종대로 맞춰진 파김치를 보고는 그 정성에 깜짝 놀랐었다.  
어떻게 파김치를 이렇게 담글 수 있는지, 보는 것처럼 맛도 있었다.  
현관 벨이 울린다.

“어이구……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승택이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지혜를 소개했더니 ‘내 딸 이름하고  
똑같다. 반갑다’고 한다. 오랜 세월 산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덕상씨  
는 고기보다는 채소를 더 좋아했다. 특히 김치가 입에 맞는다며 김  
치 그릇을 비워서 세 번이나 더 내왔다.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승택이와 지혜는 말씀들 나누시라며 찻잔을 들고 승택이 방  
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덕상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병실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두 사람이 잘 어울리네.”

“허허. 그렇지? 내가 첨엔 반대를 했었는데, 아들놈이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네.”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난 두 사람은 오래 묵은 술처럼 잘 통해서  
보기에도 좋았다.

“심마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자네는 심을 많이 보지 않았나?”

“많이 켜지. 그러나 심마니는 오직 캐기만 할 뿐이야. 먹는 사람은 따로 있지. 그것이 누구한테 팔려 나가는지 전혀 알지 못 한다네. 난 내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었어, 산을 모시는 사람이었거든. 그것을 중단하니까 형이 병어리가 됐고. 난,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네. 어머니가 평생을 행상과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며 사셨지. 고생고생 이루 말 할 수 없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어.”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덕상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과일을 내 온다며 얼른 일어섰다. 몇 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남편과 덕상씨는 매일 만났던 사람들처럼 술술 대화가 이어진다.

“자네, 가족은?”

“나도 있었지. 이젠 다 옛날이야기가 되었지만. 나도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 그러나 그게 맘대로 안 되더군. 사업을 했는데, 처음 몇 년은 괜찮았는데, 부도를 내고 말았어. 사정이 급해서 내 몸만 빠져 나왔지. 2~3년만 고생하면 일어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군. 다시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잘 안 되었어. 집 사람이 어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한 게야. 식솔들을 찾으러 살던 곳으로 몇 번이나 가보았지만, 흔적도 없었어. 하긴, 빛을 잔뜩 지고 있으니 흔적을 남길 수가 없었겠지.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기할 의욕도 없어지고, 죽으려 했지만, 죽는 것도 맘대로 되질 않았어. 그래서 강원도 산골 첩첩 산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았지.”

“그래서 그렇게 자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구만. 내가 자네 좋아했었는데, 사내답고, 화통해서.”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죽지 않고 사니까 세상과 소통하게 되더군.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는데, 미워



하면 닳는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것 보다 더 아내에게 상처를 줬으니……. 아버지가 미워서 내가 가출한 뒤로 부모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셨더군. 그래서 자네도 만난 거고. 암튼, 고맙네, 자네 덕분에 모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보냈네.”

“별소리, 내가 고맙지. 백초가 뭔가 담근다고 약초하나 더 캐주려다 죽을 뻔하고, 나를 살린 것도 자네 아닌가. 정말 고맙네.”

두 남자들의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른다. 나도 살며시 자리를 피해 주었다. 승택이와 지혜와 함께 덕상씨에게 보낼 잠바와 셔츠와 음식들을 다시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끝>

## 얼음 동굴

---

### ▪ 황혜성

옛날, 먼 옛날에 한 산골마을이 있었다. 워낙 깊고 깊은 산골인지라 봄은 늦게 찾아왔고 겨울은 서둘러 찾아왔다. 마을의 서쪽에는 뾰족한 산이 하나 보였는데,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의 정상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정상 어딘가에 있다는 동굴에서 눈과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무녀가 그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믿었다. 무녀가 언제부터 동굴에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오래전에, 어쩌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에 마음이 얼어버린 무녀가 동굴을 찾아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마을사람 누구도 무녀를 본 적이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산을 경외하다 못해 무서워했고 산세도 험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가끔 사냥감을 쫓아 산 정상 부근까지 가봤다는 사냥꾼들 중에 무녀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녀를 봤다는 날은 눈보라가 심해 천지와 사물을 분간하기 힘든 날이었다. 그가 봤다는 것도 정확히는 무녀의 얼굴이 아닌 무녀로 추정되는 형체였다. 때문에 그들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었다.

산골마을에 짧은 가을이 찾아왔다. 마을사람들은 서둘러 추수를 하고 장작을 준비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 붉은 입술과 붉은 뺨을 가진 신부와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신랑이 결혼식을 올렸다. 가난한 산골에는 원삼과 족두리도 없어서 두 사람은 정화수 앞에서

맛절만 했다. 그러나 신랑의 부지런함에 삼간도 안 되는 오막살이 집에는 겨울장작이 쌓였고 신부의 살뜰함에 한 뽕짜리 부뚜막에서는 때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별빛은 없고 초승달만 등실 떠있던 밤, 신부는 저녁밥을 짓다가 서쪽 산의 정상에서 불빛을 보았다. 불빛은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경계선쯤에서 반짝거렸다. 그날 밤, 앞집의 다섯 살 난 순둥이가 쓰러지더니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약을 살 돈도 없었고, 깊은 산골이라 의사를 데려 올 수도 없었다.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전염병은 빠르게 번졌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었다. 마을사람들이 4분의1쯤 죽었을 때, 사람들은 무녀가 신혼부부를 시기해서 전염병을 퍼트렸다고 말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기도 했다. 죽거나 도망가서 마을사람의 2분의1만 남았을 때, 신랑도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다. 마을에는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도 없었다. 신부는 신랑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서쪽 산의 무녀뿐이라고 생각했다. 신부는 혼수상태인 신랑을 노새 등에 업히고는, 그날 밤 작은 불빛이 반짝이던 자리를 향해 올라갔다. 거친 수풀을 신부는 허벅지로 헤치며 길을 만들었다. 절벽위에 난 좁은 길을 가다가 돌을 밟고 미끄러지기도 했다. 산 정상에 다다를수록 초목의 숫자가 줄더니, 만년설의 경계에 이르자 회색 돌덩이들만 굴러 다녔다. 신부는 만년설의 아래에 섰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눈이 나온다는 동굴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바위와 바위틈과 바위가 만드는 그늘만 보였다. 그러다 살얼음으로 변한 눈 더미가 쌓여있는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 뒤부터 만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부는 그 구멍으로 다가갔다. 구멍은 동굴 입구였고 동굴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신부는 신랑이 업힌 노새를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벽은 차가웠다. 안으로 들어 갈수록 동굴 벽에 살얼음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내 얼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동굴 끝에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커다란 동굴 내부가 나왔다. 내부 안쪽에는 제단처럼 생긴 계단이 있었다. 무녀가 산다는 얼음 동굴이 틀림없었다. 신부는 무녀를 불렀다.

“서쪽 산을 지배하시고 마을에 겨울을 불러오시는 무녀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얼음벽에 그림자가 생기더니 무녀가 걸어 나와 계단위에 섰다. 머리를 땅아 올린 무녀는 입술까지 하얀색이었다. 무녀는 계단 밑에 신부가 뉘어 놓은 신량을 보았다. 그리고 신부에게 신량을 살리고 싶으면 약의 재료를 구해오라고 했다. 단 한 여자만을 사랑하여 순결을 지킨 남자의 머리카락,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의 짚신, 병든 가족을 위해 일을 하다 손가락이 굽어진 자의 손톱, 마지막으로 이 산에 하나밖에 없는 폭포 끝에 달린 보라색 꽃을 구해서 올해의 첫눈이 오기 전에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무녀님, 당신이 늘 동굴에서 눈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만든 눈도 아니고 서리도 아닌 하늘에서 쏟아지는 첫 눈이 내리기 전에 돌아와라.”

신부는 신량을 얼음동굴에 두고 산을 내려왔다. 산속에 퐁퐁 숨어서 가족을 팔러 올 때만 마을을 찾아오던 사냥꾼을 찾아내서 그의 머리칼을 잘랐다. 올해 여름에 계곡에 빠져 죽은 삼돌이의 집, 폐가의 마루 밑에서 짚신을 찾아냈다. 아비 없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맨손으로 화전을 일구다 손가락이 굽어진 파주댁을 찾아 수십 리 떨어진 화전민 마을을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는, 폭포 끝에 매달려 보라색 꽃을 따 망태기에 담았다. 그리고 마을에 첫눈이 오기 전에 다시 산을 올라갔다. 얼음동굴에 다다를 때쯤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얼음동굴에는 동굴 깊은 곳에서 자라나온 얼음이 입구까지 붙어 있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간 신부는 계단위로 올라가 무녀의 발아래

에 재료들을 풀어놓았다. 무녀가 말했다.

“마을에는 이제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나, 이 곳 정상에서는 세 번째 눈보라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무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신부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신부의 눈물이 뺨을 흘러 턱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신부는 무녀에게 애원했다.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무녀가 말했다.

“좋다.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을 터. 약을 만들 마지막 재료로 네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신부는 생각에 잠겼다. 신랑이 새 옷을 지어 입으라고 준 옷감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물려준 가느다란 금가락지도 아니었고, 산골마을에서 중요한 겨울식량도 아니었다.

“무녀님, 지금 이 순간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드릴 순 없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제 생명입니다.”

“진심을 증명하라!”

무녀의 목소리가 얼음동굴에 울려 퍼졌다. 신부는 나뭇을 뜯고 열매를 따던 칼을 꺼내 목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신부 입술의 붉은 색이 피를 따라 흘러 나왔다. 붉은 피는 얼어붙지 않고 흘러 계단을 타고 내려가 계단 밑에 누워있는 신랑의 옆을 흘러갔다. 입술까지 새하얗던 무녀의 입술이 붉어지고, 뺨에 붉은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신부의 피라는 겁니까? 이 투명한 돌덩이는 무녀의 얼음이고요?”

나와 할머니 사이에 놓인 테이블에는 길이가 6센티미터에 직경이

2센티미터 정도 되는 육각기둥 형태의 투명한 물체가 놓여 있었다. 수정처럼 보였는데 깨끗한 수정은 아니어서 가느다란 갈색 실 같은 이물질이 군데군데 들어 있었고 중심부에는 붉은색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마치 영화『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호박 속에 갇혀 화석이 된 모기 같았다. 한쪽 끝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목걸이처럼 줄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자, 자세히 들여다봐. 안에 있는 액체가 출렁이는 것 같지 않니? 만져보면 얼음처럼 차가운 느낌도 있어.”

팔순 노인이 싸구려 기념품 같은 것을 서른여섯이나 먹은 손자 앞에서 흔들여 뒀다. 계속 만져보라는 할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손에 쥐어 보았다. 차가운 촉감이 있을 거라더니, 만져보니 확신이 섰다. 그것은 수정도 아니고 싸구려 유리 기념품이었다.

“어디 여행가서 사오신겁니까?”

“여행이라니?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야.”

“그럼 집안 대대로 이 물건과 함께 그 신부이야기도 전해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래.”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 입증된 수확공식을 맞다고 말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삼십 넘는 평생 동안 할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일 년에 명절 때만 만나는 관계였다. 그런 할머니가 내가 5년 만에 발표한 소설을 읽고는 나를 불러내셨다. 소설작가로서 존경받고 계신 분이기에 나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라도 하실까 하여 명절도 아닌데 찾아왔다. 그런데 늘어놓으시는 소리가 전래동화였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면 이야기의 배경이 한반도군요. 그런데 여긴 그 정도의 만년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돌이 얼음이라면 벌써 녹아 없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법이 걸려 있지.”

“마법이요?”

차라리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긴 시대의 리얼리즘을 반영해온 그간의 할머니의 작품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동화였다. 얼음동굴에 산다는 무녀는 무녀보다는 마녀라는 말이 어울렸다. 여자가 단도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면, 남편은 살아난 다음에는 어찌 되겠는가? 할머니는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살아난 뒤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자의 선택은 어리석었다. 또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클라이맥스로는 비현실적이었다. 독자가 신부의 행동에 감동을 받는 다고해도 감동만 받을 뿐, 신부처럼 사랑을 위해 뭔가를 희생하지는 않은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발가락에 난 티눈이 더 아프기 때문이다. 신부의 희생은 이야기이기에 가능한 희생인 것이다. 극단적이고 감상적인 클라이맥스로 감정과잉을 불러일으키기만 할 뿐이었다. 아이들이 읽을 동화로도 정당하지 않았다. 나의 비판에 할머니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셨다.

“구전되어 온 이야기니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의 중심이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느껴야지.”

할머니는 그 물건을 가져가라는 듯, 다시 내 코에다 들이미셨다. 나를 보호해 주는 부적이 될 테니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전설을 믿으라는 강요였다. 따지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손자가 할머니가 애써 내어놓으신 물건을 유치하다면서 물리친다면, 노인네 특유의 뼈침이 발동할 것이 뻔하였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전화할 테고, 전(前)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내게 히스테리를 풀어 놓을 것이다. 나는 얼른 수정을

주머니에 찢러 넣고는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왔다. 유치한 전래 동화를 듣느라 아침부터 두 시간이나 할머니와 마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빈소 앞에 앉아 있을 때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가 너무 서둘러 나온 것을 할머니도 눈치 채셨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니 서운하게 생각하신다 한들 양심에 걸리지는 않았다.

철진의 작업실은 지하철 합정역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뮤지컬 연습도 하고 작곡도 해보겠다며 마련한 작업실이었다. 나는 철진에게 작곡에는 소질이 없으니 관두라고 했었다. 그래도 기어이 역사에 남을 뮤지컬 곡을 만드는데 도전해 보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내 예상대로 작업은커녕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는 부모님을 피해서 놀거나, 술 마신 뒤 친구들과 키보드를 뚱땡거리며 노는 아지트로 이용되었다. 그래도 뮤지컬 배우라는 본업은 잊지 않았는지 공연 준비에 들어가면 작업실에서 작품분석도 하고 연습도 했다. 오전 내내 눈이 내렸는데 작업실이 있는 건물 주변만 이미 눈이 다 치워져 있었다. 분명 오지랖 넓게 1층에 있는 해장국집 사장을 미소를 날리며 꼬여내서 같이 눈을 치웠을 것이다.

철진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할머니 댁에.”

철진은 내 표정만으로 내가 한 바탕 시달리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수정을 꺼내 보이며 할머니가 해 주신 기가 막힌 옛날이야기를 들려 줬다. 철진은 수정을 보더니 분명 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닌 게 확실하다며 키득거렸다. 나는 돌의 종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철진은 할머니와는 맞지 않는 전혀 리얼리티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동화는 동화로서 그냥 재미있게 받



아들이라고 했다.

“넌 전래동화에까지 평론을 붙이냐? 작가란 놈이 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냐? 너한테는 예술보단 분석이 딱 인가 보다.”

이번 작품의 초고를 본 누군가가 내게 그랬던 것 같다, 소설보다는 기록물 같다고. 다른 사람의 작품과 공연을 평가해오던 내가 작품을 내자, 내 독설을 맞았던 이들이 한 평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글의 특징이었다. 몇몇 사람의 불만이야 어떻든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흥행이었다. 내 글은 흥행을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곧바로 영화화 제의가 들어 왔다. 감독은 감성적인 멜로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원작의 주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느낌의 영화, 즉 자신의 성향에 맞게 만들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의 작품을 비난하던 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했다. 물론 작품의 영화화는 작가로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에 영화화가 엮어지는 것은 나 역시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기로 극적인 타협을 봤다. 철진은 감독과 나 때문에 시나리오가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감독과 나, 둘 다 타협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작품과 시장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보더니 철진은 덩석 주인공 자리를 물었다. 철진에게는 두 번째 영화이고, 영화에서는 첫 번째 주연이었다. 그런 철진이 지리산에서 있을 첫 촬영을 이주일 앞두고 작업실로 나를 불러냈다.

“영화 때문에 할 말이 있다.”

“그런 건 감독하고 해야지.”

그의 미소가 정지화면처럼 잠시 멈추었다.

“산장 종업원, 미진이 역의 배우가 바뀌었어.”

“어, 그래? 누구로?”

배우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것 보다 철진의 미소가 멈춘 이유가 더 궁금했다. 철진이 대답했다.

“현지씨가 하기로 했어”

순간 현지씨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현지라는 여자인가 의심이 들었다. 철진은 원래 미진이 배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배역을 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급하게 여배우를 구하던 중 어찌어찌하여 정현지가 배역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철진은 감독이 나와 현지의 관계를 알게 되면, 나와 감독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서 감독에게는 자신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 10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3월이었다. 현지는 내게 헤어지자고 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카페로 나를 불러낸 날, 현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화창한 봄날, 공원에서 풍선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맑았었다. 대화를 할 때 도 곧잘 흥분을 해서 팔과 머리를 과장되게 흔들며 대곤 했었다. 그렇게 머리를 흔들며 댈 때 마다 웨이브 파마를 한 그녀의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리듯 팔락 거렸었다. 그러나 그 날, 그녀의 얼굴은 어린 아이가 하루 만에 성숙한 어른이 된 것처럼 무게감이 느껴졌고 어깨까지 내려오던 파마머리는 귀밑까지 짧게 커트가 쳐져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을 보고 있던 그녀가 내게 말했다.

“헤어져요.”

그녀는 그간 꺾꺾 참아왔던 말들을 터트리듯 헤어지는 이유를 말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의 요점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간 사귀면서 지헌씨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맞춰주고, 챙겨주려 노력했다. 그런데 지헌씨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지도 모르는 것 같고 차갑기만 했다. 물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지헌씨도 내게 이만큼 내놓으라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녀의 말에 나도 반박할 말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내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 지 등등 내게 참견이 많았었다. 그리고 내가 바쁠 때도 그녀는 자주 데이트를 요구했고 심지어 내가 일하고 있는 『무브먼트』잡시사의 사무실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순수하다고 느꼈으나 이런 점들 때문에 점점 그녀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난 늘 그녀에게 너 편할 대로 하라고 했었다. 내게 맞추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내게 무엇을 맞춰주었는지, 무엇을 헌신했는지, 그 것이 그녀가 그렇게 울분을 토로할 정도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했다고 해도 뭘 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나 역시 현지에게 안 해 준 것은 없었다. 생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에 선물과 함께 저녁식사를 꼬박 꼬박 챙겨 주었다. 그녀가 무슨 뮤지컬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 물론 영화와 문화를 다루는 잡지사 부편집장 일을 하고 있어서 공연정보에 밝았기에 잘 알 수 있었던 점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져 물었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다. ‘지헌씨는 뭐가 그렇게 혼자만 잘났느냐. 돈이 많다고 그러느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갑부도 그렇게 권력자도 아니지 않느냐. 나 역시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살기 힘들만큼 가난하지도 않다. 내가 꿀릴 것이 무엇이나’ 그 말은 도대체 왜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굳이 이해할 이유도 없었다. 그 동안 많은 여자를 만나 봤지만 1년을 넘기며 사귀어 적은 없었다. 그녀와는 그 전해 겨울에 만

나 사권이 1년이 조금 넘었으니 오래 사권 것이었다.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나도 헤어지자고 했다. 그녀의 반응은 다른 여자들 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울었던 것 같다. 살짝 눈물을 비치는 여자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시원스럽게 일어나 나갔었다.

철진이 걱정스레 말했다.

“지리산 촬영에는 쫓아가지 않는 게 좋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불편하지 않겠어?”

“일 때문에 보는 건데, 일만 잘 하면 됐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

“하긴 넌,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랬지. 솔직히 난 너보다 현지가 더 걱정된다.”

“어린애가 아니잖아. 알아서 잘 하겠지.”

감독이 대사 몇 마디 안 되고 몇 컷 나오지도 않는 미미한 단역의 캐스팅을 바꾸기 전에 나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화나지는 않았다. 단지 원작과 시나리오가 누구의 글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한 정현지가, 왜 배역을 맡았는지가 더 궁금했다. 철진은 주연 배역을 한 번 놓친 이후로 현지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말은 안했지만 생활고도 겪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던 중 배역이 들어오자 내가 촬영장에 나타날 것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덩석 말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철진이 알려줬을 때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앞 뒤 생각 안 하는 건 여전하구나.”

헤어지자고 말할 때의 모습을 보고는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여의도 공원 근처의 주차장에 촬영스텝들과 배우들, 그들을 태울

버스들, 각종 촬영장비를 실은 차량이 지리산으로 출발하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7시 20분이 지났다. 7시에 출발하기로 했지만 현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졸거나 수다를 떨며 현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밖에 서있는 천 감독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옆에 서있는 어린 스텝은 연신 핸드폰의 통화 버튼을 눌러대며 발을 굴러댔다. 무관심한 네댓 명은 차량 주변을 배회했다. 나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짜증을 가라앉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철진처럼 내 차로 따로 가겠다고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 봤다. 멀리서 현지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 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일일이 사람들에게 늦게 나온 사연을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다. 현지의 목소리가 열려있는 차문을 통해 차안까지 흘러들어 왔다.

“첫차를 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결국 집에 다시 갔다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현지에게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서둘러 떠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 현지는 버스 뒷자리로 가면서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현지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현지와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했다.

정현지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1월, 그러니까 이맘때쯤이었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철진의 작업실에 찾아 갔었다. 지하 작업실의 문 밖에서부터 뮤지컬 『시카고』의 변호사 빌리가 여자들과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새 뮤지컬을 준비한다더니 배우들과 연습중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의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러나 여러

명의 동료배우는 없었고 철진과 정현지, 두 사람 뿐이었다. 철진은 내게 앙상블 배우로 들어온 대학 후배라며 현지를 소개해 주었다. 조연도 아닌 앙상블 배우를 작업실까지 데려와 연습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철진은 내가 물어 보기도 전에 후배의 첫 뮤지컬이란 것을 알게 되어 연습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내 의심의 눈길을 피하려고 했다. 철진은 현지에게 나를 칭찬에 인색한 냉철한 평론가이자 공연기획사 『해담』 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철진은 나의 평가를 받아 보라며 현지에게 뮤지컬의 한 대목을 시켰다. 현지는 『캣츠』의 『Memory』를 불렀다. 그때 현지의 나이가 28살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일을 보다가 꿈을 버리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또래에게 한참 뒤떨어져 있었다.

“다시 직장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의 평가는 그게 다였다. 현지는 무척 당황해했다. 나의 평가가 짧았다는 것도 이유였겠지만, 그것 보다는 예의상으로라도 최소한 ‘열심히 해보세요.’라는 말은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철진은 현지가 나를 독설만 내뿜는 못된 사람으로 생각 할 것이 걱정되었는지 푸근한 미소를 유지하며 현지에게 말했다.

“이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통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현이 지금 말하는 게 재수 없더라고 ‘내가 너한테서 만큼은 잘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해 봐. 그러면 분명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실력을 갖게 될 거야.”

지리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방에 산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 넘어 산, 또 넘어 산만 보인다. 첩첩 산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게 해주는 곳이다. 그 한가운데서 나를 둘러싼 설산들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세속에서 벗

어나 평온한 해탈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첩첩산중 속,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산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첩첩설산을 배경으로 두 남자가 마주보고 있었다. 의지에 찬 두 남자의 눈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천감독이 시원스럽게 ‘오케이’를 외치자 모든 스텝과 배우들이 이 영화의 마지막 촬영을 마친 듯 박수를 쳤다. 몇 명은 눈이 반사한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 있었다. 그들은 빨리 도시로 돌아가 피부색을 하얗게 돌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더 열심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재빨리 촬영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앉던 의자를 챙기고 일어서려는데, 기자가 말을 걸었다.

“여기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어제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촬영장에 도착해서는 촬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설산과 분주히 움직이는 스텝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몇 장 찍더니 내게 질문을 퍼부었다.

“어머니가 유명한 공연기획자인 신옥순씨세요.”

“네.”

기자는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녀의 인터뷰에 성실하게 응하고 싶지 않았다. 기자는 내가 대답을 짧게 하며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자 조금해 졌는지, 도리어 자신이 많은 말을 하며 대답을 유도하려고 했다.

“오지헌씨는 6년 전에 장편 소설을 발표하시면서 데뷔하셨고, 그 다음해 연달아 단편 소설집을 발표하실 때만 해도 전도유망한 작가로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랬죠.”

“그 후에는 평론가, 『무브먼트』의 부편집장 그리고 『해담』의 본부

장으로만 일하셨잖아요? 더 이상 작가로서 글을 쓰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작품을 발표하신 계기가 뭔가요? 더욱이 영화 시나리오에 까지 참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는데, 혹시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싶다는 생각 때문이셨나요?”

“서른여섯에 홀로서기라뇨? 전 스물 셋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면?”

“전 제가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세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세상에 내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뿐입니다.”

“작가를 포기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군요. 그러면 작가로서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으셨다는 거네요.”

“차라리 그 말이 맞겠군요.”

“그래도 이번 작품은 출판한지 얼마 안돼서 영화화가 결정될 만큼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이 작품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꿈? 아니면 주변사람의 경험담이 계기가 되었나요?”

기자 너머로 현지가 보였다. 그녀는 스텝들과 함께 종이컵들과 간식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선배 배우가 지나가자 수고하셨다며 넉죽 인사를 했다.

2년 전 여름이었다. 한 국제연극제의 예술감독을 맡게 된 어머니는 해외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야망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면서 당분간 『해담』을 부탁한다면 나를 본부장 자리에 앉히셨다. 『해담』의 임직원들은 대부분이 어머니와 10년을 일해 온 사람들이다. 어머니처럼 그들도 그 바닥에선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늘 방관자처럼 어머니와 어울리지도 않았던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란 건 분명했다. 자주 봐왔던 드라마속의



재벌2세와 같은 상황이 내게도 벌어진 것이다. 회의 때마다 그들의 대화를 기록만하는 녹음기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내가 타고 온 낙하산의 성능을 입증해야 했다. 그 상황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현지에게 한탄을 풀어냈던 적이 있었다. 내 집에서 샴페인 몇 잔을 마시다 취기가 올라온 그녀는 소파 밑에서 뒹굴거리며 내 애길 들었다. 그녀는 자신감 없어하는 내 모습을 처음 본다면 재미있어 했다. 그러다 소파위로 올라와 내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오빠도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연극도 해봤다며? 희곡도 하고 제작도 해봤다며? 전혀 생소한 분야가 아니니까 잘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옆에 바짝 붙어 팔짱을 끼더니 내 눈치를 봤다. 내 기분이 조금 풀린 것 같자 그녀는 다른 말을 꺼냈다.

“오빠는 직업이 많아. 문화평론가로 이름도 날렸고, 종종 강의도 하고, 부편집장도 해보고, 이젠 기획사 본부장까지 하고 말야. 젊은 나이에 참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나는 오빠의 여러 직업 중에 소설가라는 직업이 오빠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난 오빠의 소설이 좋았거든. 물론 오빠를 처음 봤을 때는 소설가 같은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했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소설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거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소설을 다시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소설이 가장 맞는 것 같고. 만약 오빠가 소설을 다시 쓴다면 내가 오빠의 뮤즈가 되어 줄게.”

현지는 술 때문에 상기된 뺨을 내 어깨에 비벼댔다. 그녀의 말에 머릿속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던 생각의 조각들이 부르르 몸을 떨며 일어났다. 잊혔던 나의 세 번째 소설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촬영장 정리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끝났다. 밤에 산을 내려가는 것은 힘드니 하루를 더 머무르고 다음날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긴장이 풀어진 사람들은 지리산에서의 무사고 촬영을 자축하며 술을 마셨다. 술기운을 빌은 온갖 담소가 오가는 가운데 조명감독은 등산 예찬론을 펼쳤다. 산장 뒤에 산봉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조명감독은 산장주인의 추천으로 사흘 전에 그 봉우리의 정상에 올랐었다. 조명감독은 그 걸로도 성에 안차는지 일출을 보러 가자고 사람들을 꼬드겼다.

“천왕봉 일출 같지는 않지만 장관이라더군. 주인장 말이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명소래. 어때 같이 갈 사람 있나?”

일기예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천감독이 말했다.

“형님, 내일 오후부터 눈이 온다는데요.”

“새벽에 갔다 올 건데 상관있겠어?”

“그래도 겨울 산은 위험하지 않겠어요?”

“딱 왕복 두시간거리야. 후딱 갔다 올 수 있어.”

사흘 전에 조명감독과 함께 산을 올랐던 철진은 흥분에 휩싸여 말했다.

“내일 일어나서 날씨 괜찮을 것 같으면 갔다 오죠.”

철진은 최근에 산타는 재미에 빠져서 산악회에까지 가입했다. 철진 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자, 철진은 나를 부추겼다.

“같이 가는 게 어때?”

“피곤해. 다음에 봐.”

“나중에 일출 보겠다고 일부러 지리산에 오게 될 것 같냐?”

“아니.”

“그러니까 온 김에, 기회가 생긴 김에 보러 가자.”

철진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를 끈덕지게 설득했다.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현지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다.

“저도 갈래요. 지리산도 산에서 일출을 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럼 아침 먹고 바로 내려갈 거니까 그 전에는 꼭 돌아오세요.”

천 감독의 말로 산행이 확정 된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 둘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나와 철진, 현지, 조명감독을 비롯한 조명팀 3명, 멋진 풍경을 찍어 보고 싶다며 디지털 카메라를 챙기는 카메라 감독과 그 외 스텝 2명, 배우 4명까지 총 13명이 일출을 보러 가기로 했다.

새벽 5시가 되자 철진이 나를 깨웠다. 피곤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에 눈이 아팠다. 겨울 산 등산을 위해 옷을 단단히 껴입고 펜션 밖을 나가자 현관에 달린 조명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 일출을 볼 수 있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서로에게 되새기고 있었다. 우리는 따듯한 물이 담긴 보온병 8개와 500ml 생수병 9개를 나누어 가졌다. 한겨울에도 얼음물은 고수하는 나는 보온병이 아닌 생수병을 선택했다. 손전등 8개를 적당히 배분하고는 등산 중에 배고플 것에 대비해 과자와 초콜릿 등 간편한 먹을거리는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다. 11명이 배낭에 먹을 것을 챙겨 넣고 있을 때 현지와 여자 스텝 한 명이 이 뜨거운 김이 나오는 냄비를 하나 들고 나왔다. 누룽지를 끓여 온 것이다. 따듯한 것으로 몸을 데우고 올라가자며 두 사람은 뜨거운 누룽지와 송농을 나누어 주었다. 간밤에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들은 누룽지 국물에 기운이 돌았다며 산행을 강행했다. 올라가는 길은 순조로웠다. 좁은 산길을 한 줄로 걸으며, 손전등을 가진 사람들은 손전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잘 보고 걸을 수 있게 길을 비춰 주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상에 도착해서 생겼다. 정상에 비좁은 장소에 모여서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잔뜩 끼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구름이 걷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쪼그리고 앉

아서 기다렸지만 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동쪽 하늘에 있는 구름이 붉어지는 것을 보다가 구름의 찢어진 틈으로 태양의 한쪽 귀퉁이만을 잠깐 볼 수 있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실망이야.”

“밑에서 볼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산은 변덕스럽잖아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요.”

다들 일출을 못 본 것을 한탄해 하며 한마디 씩 해댔다. 나도 거들었다.

“귀한 잠을 버려가며 왔는데 이게 뭐냐?”

철진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했다.

“일출은 신이 허락해 주셔야 보는 거다. 그래도 운해는 열심히 봤지 않냐.”

차라리 일출을 봤으면 산을 내려가는 시간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13명은 일출을 포기하고, 산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이제 길이 밝아져 손전등은 필요 없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구름은 더욱 두터워 지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눈발이 점점 굵어지자 모두 마음이 급해졌다. 바람도 불지 않고 굵은 눈만 내리는데 툭툭하며 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현지는 일행보다 몇 걸음 뒤쳐져서 걸었다. 철진은 현지가 낙오되지 않도록 현지의 뒤에서 걸었고 나는 그 두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걸었다. 눈 쌓이는 소리 속에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워낙 등산에는 재주가 없어서…….”

그리고는 곧바로 현지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하고 뒤돌아보니 현지는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는 엉거주춤 앉아 있었고, 철진은 현지의 오른팔을 붙잡아주며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현지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나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 철진에

게 갔다. 철진이 말했다.

“발목을 뺨 것 같아.”

철진이 현지의 발목을 만지자 현지는 눈을 찌푸렸다. 나 보다 앞서 가던 두 명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철진이 외쳤다.

“현지가 발목을 빼끗한 것 같아.”

“괜찮아?”

두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눈이 시야를 가려 누구의 입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철진이 소리쳤다.

“우린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가.”

“길은 알지?”

“내가 알아.”

철진의 외침에 두 사람은 뒤돌아서 갔다. 철진이 현지를 부축하고 나는 현지의 배낭을 들기로 했다. 현지는 철진과 나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 했는지 죄송하다는 말을 다섯 번은 되풀이 했다. 눈 발이 엄지손톱만큼 굽어 졌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허공에서 떨어지는 눈들이 나를 감싸서 사방에 벽을 만드는 것만 같았다. 그 벽은 시야를 가려 전방 몇 미터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주변의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막았다. 눈 쌓이는 소리와 나의 숨소리, 눈 밟는 소리만 들렸다. 눈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멈춰 설 순 없었다. 일행은 아마도 몇 백미터는 앞섰을 것이다. 갈림길도 없던 단순한 등산로에 폭이 두 뼘 정도 되는 샛길이 나타났다. 철진은 그 앞에 멈춰 섰다. 철진이 말했다.

“지름길이야.”

내가 되물었다. “지름길이 있어?”

“사흘 전에 올라왔을 때 주인장이 알려줬어.”

“처음부터 이 길로 올라오지 그랬어?”

“조명감독이 이 길은 미끄러워서 안 된다고 했어.”

나와 철진은 망설였다. 현지의 상태로는 좁고 미끄러운 길은 더 힘들 것 같았다.

“이러다 눈 속에 갇히겠어요.”

현지의 말에 철진은 결심했다.

“지름길로 가자.”

나도 현지도 동의했다. 지름길은 두 사람이 같이 걸을 수는 없었다. 철진이 앞서서 길을 잡기로 하고 내가 현지를 앞에서 잡아주며 걸기로 했다. 나는 나뭇가지를 주워 지팡이로 삼으라고 현지에게 주었다. 현지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으며 발을 내디뎠다. 길은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았다. 그 위에 눈이 쌓여 있으니 위협적이었다. 우리를 또 다시 고민에 빠트릴 복병이 나타났다. 철진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외쳤다.

“갈림길이다.”

지름길이 새끼를 쳐서 둘로 갈라졌다. 철진은 또 다시 당황해 했다.

“분명 외길이었는데.”

“전화로 물어봐.”

철진이 핸드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불통이었다. 내 스마트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현지의 낡은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가 떨어져 있었다. 철진이 말했다.

“깊은 산골이라 그런가?”

나는 철진의 말에 반박했다.

“신호는 정상에서도 잡혔어.”

“그럼 눈 때문인가 보다.”

철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두 개의 길을 번갈아 봤다. 나는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느 길이 맞을 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산장이 저쪽 방향이니 이 길로 가자.”

철진은 왼쪽 길을 택했다.

나는 현지의 손을 잡아주고 발 디딜 곳을 봐주느라 철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가 웃고 있지 않았던 적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다. 내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 철진이 조모상을 당했을 때, 고등학생 때 양아치 선배에게 엄청나게 쥐어 터져서 얼굴이 퉁퉁 부은 탓에 미소를 지을 수 없었을 때, 그리고 무명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도인 것 같다. 대학 입시에 떨어 졌을 때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런 철진이 미소가 사라진 얼굴로 멈춰 서서는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다.

“길을 잃었나봐.”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내 입에서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 나왔다.

“뭐?”

“길을 잃은 것 같아.”

“왜?”

“이쯤 걸었으면 저 앞에 산장이 보여야 하는데.....”

“설마 더 가다보면 나오겠지. 지금은 내리는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걸 거야.”

우리의 대화를 듣던 현지가 염소 소리를 내며 물었다.

“그럼 되돌아가요?”

철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핸드폰은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굵은 눈발에 바람까지 더해지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철진이 다시 말했다.

“지금 와서 되돌아가기도 힘들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일단 쉬었다 갈 곳을 찾아보자.”

우리는 유심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런 산속에서 눈과 바람을 피할 곳이 있을까? 있다 해도 이런 눈 속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때, 현지가 소리쳤다.

“저기 있어요!”

철진과 나는 현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러나 내리는 눈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철진이 되물었다.

“어디 있는데?”

“저기, 까만 게 보여요.”

철진과 나는 눈이 만드는 장벽 너머를 꿰뚫어 보려고 눈에 힘을 주었다. 현지가 가리키는 곳에 타원형 모양의 까만 것이 아른 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은 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초목을 헤치며 없는 길을 만들며 그 것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것은 높이가 1.5미터쯤 되었고 가장 넓은 곳의 폭이 1미터쯤 되는, 절벽에 난 삐뚤삐뚤한 마름모 꼴 모양의 구멍이었다. 철진은 입구 벽에 왼손을 대고 몸을 기울이며 오른손에 든 조명등을 비추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철진이 말했다.

“현지가 눈이 좋은 가봐. 어떻게 이걸 봤어?”

“하얀 눈 속에 까맣게 보이는 게, 꼭 동굴 입구 같더라고요.”

뒤에 서있던 나는 신비의 세계로 가는 입구를 발견한 듯 흥분한 두 사람의 대화를 끊기로 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했다. 내가 말했다.

“들어갈 만한 공간이 될 것 같아?”

철진이 대답했다.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철진은 돌을 두 개 정도 밟고 내려가더니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현지와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자 철진이 허리를 숙인 채 동굴 입구로 머리를 내밀었다.



“허리는 펴기 힘들데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은 있어.”

철진은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전등을 흔들었다. 동굴 입구에서 네 걸음 정도 들어가자 세 사람이 어깨를 붙이고 누워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 동굴 바닥에는 흙이 깔려 있었고 돌들이 굴러 다녔다. 동굴의 가장 높은 곳은 1.8미터 정도 되었지만 위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면서 뾰족하게 들어가는 세모꼴 형태의 동굴이라 허리를 펴고 설 수는 없었다. 현지도 서있으려면 고개를 푹 숙여야 할 정도였다. 나는 동굴 안쪽을 보며 철진에게 물었다.

“안쪽에 공간 없어?”

“5미터만 들어가면 끝이야. 앉을 때는 여기 밖에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춰보았다. 바로 바위벽으로 막힌 동굴 끝이 보였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안락한 공간을 만들려고 바닥에 있는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돌을 동굴 안쪽으로 던지자 동굴 벽에 부딪혀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현지는 벌레라도 기어 다닐까 봐 걱정됐는지, 계속 동굴 벽을 훑어보았다. 그다지 크고 흉측한 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는지 벽을 훑어보는 것을 그만 두고는 머리를 무릎사이에 파묻었다. 동굴입구 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배고프지 않아? 먹을 거 뭐 남았어?”

철진의 말에 우리는 모두 가방을 뒤졌다. 철진의 배낭에는 빈 보온병 한 병과 초코바 껌질 두 개, 굴껌질 두 개만 들어 있었다. 내 배낭에는 삼분의 일 정도 남은 생수 한 병과 다 먹은 빵 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철진이 내 배낭을 보고 말했다.

“너도 올라가면서 다 먹었냐?”

“아침 안 먹고 출발했잖아.”

“소식가라고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싸왔구나. 더 없어?”

철진은 내 배낭을 뺏어 가더니 작은 주머니 하나까지도 다 뒤졌

다. 앞주머니에서 껌이 나왔다. 철진은 껌 씹다가는 배만 더 고프겠다며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속주머니를 뒤지더니 수정을 꺼냈다. 철진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고 떠들더니 여기까지 가져왔냐?”

“서울에서 짐 쌀 때 넣어 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래도 챙기긴 한 거네.”

“할머니께서 전날 전화하셔서 꼭 챙기라고 하시더라.”

“은근히 말 잘 듣는다.”

철진은 수정을 도로 집어넣었다. 철진과 나는 현지의 배낭에 시선을 집중했다. 현지는 배낭 속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반 정도 남은 생수 한 병, 초코바 세 개와 굴 두개를 꺼냈다. 철진이 신기하다는 투로 말했다.

“올라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니, 아직도 먹을 게 남아있네.”

현지가 대답했다.

“제가 좀 많이 싸왔거든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를 고민했다. 만약을 대비해 초코바 한 개와 굴 한 개만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아껴 먹기로 했다. 물은 내 물을 셋이서 나누어 마시고 현지의 물은 아끼기로 했다. 짧은 식사가 끝나자 눈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 밖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다시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철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쯤 우리가 길을 잃은 걸 알고 있겠지?”

내가 대답했다.

“그렇겠지. 그래도 눈이 그치기 전까지는 찾으러 나오진 못할 거다.”

“눈 때문에 우리 발자국도 다 지워졌을 것 같다.”

현지는 동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목만 주무르고 있

었다. 철진이 다시 말했다.

“3시간 밖에 못자고 산을 탔더니 너무 피곤하다. 잠시 눈 좀 붙이자.”  
내가 말했다.

“추운데 괜찮을까?”

철진이 다시 대답했다.

“30분 있다가 깨워줘. 돌아가면서 자자.”

철진은 말이 끝나자마자 동굴 벽에 팔짱을 낀 채 어깨를 기대고는 눈을 감더니 금방 잠이 들었다. 또다시 내리는 눈을 보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어졌다. 굵은 눈 덩어리들은 우리의 발자국뿐만 아니라 동굴 입구마저 막아버릴 것 같았다. 내가 이 산속에서, 그 것도 눈이 툭툭 떨어지는 날에 길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일이었다. 저 눈만 그치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들이 차올랐다.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불길한 생각이 목소리를 얻으면 생명마저 얻을 것 같았다. 현지가 어두운 생각에 잠긴 나를 깨웠다.

“그 유리 같은 건 뭐예요? 취향에 맞지 않는 물건이던데.”

“수정이야.”

“그거 봐도 돼요?”

현지에게 수정을 꺼내 주었다. 현지는 수정을 받아 들더니 동굴 입구 쪽으로 가, 희미한 태양빛에 비춰보았다. 현지가 말했다.

“전혀 오빠 취향이 아닌데요.”

“부적이라고 할머니가 주신거야.”

“할머니? 친할머니?”

“응.”

현지는 나에게 친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신기해했다. 내 기억으로도 현지에게 친할머니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하긴, 오빠는 가족 애길 별로 안했지. 선배가 애길 안 해줬으면, 난 아마 끝까지 오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난 늘 남들에게 가족 애길 별로 하지 않았다. 가족사와 내 가족들의 근황을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싫었다. 사귀는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가족 애길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할머니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엄마하고는 아직도 사이가 그런가 봐요?”

“느닷없이 어머니 얘긴 왜 해?”

“오빠 신간, 다 읽었어요. 초고 읽었을 때는 완전 기록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소설이 나와서 놀랐어요. 근데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은 초고나 출판된 작품에나 그대로더라고요.”

“그랬나?”

“소설을 읽으면서 나만 느낀 건가요? 여튼 초고 읽으면서 내가 꼭 두사람은 화해시켜야겠다고 맘먹었었죠.”

“그 때나 지금이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하여간 못된 아들이야. 못된 송아지 엉덩이 때려주고 싶은 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거든요.”

“말재주가 늘었구나.”

“아직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24시간 옆에 붙어있어 줘야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모양처가 꿈 아니었어? 남편과 자식 밥해주는 게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

“물론 그게 중요하죠. 특히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하지만 그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 엄마는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을 포기했잖아요.”

“현모양처의 필수덕목이 참견과 잔소리인가 보구나. 추웠는데 덕분에 열이 확 올랐다.”

나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동굴 안으로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독립심이 강한 여자였다. 그 또래에, 그 시대에, 그 정도로 독립심 강한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 어머니는 스물셋에 나를 가졌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혼전임신을 한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떳떳하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와 결혼했다. 어머니는 내게 결코 임신한 것 때문에 결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랑해서 결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출산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했고 유학까지 가길 원했다. 어머니의 꿈은 원대했다. 박사학위에 자신만의 극단과 극장을 갖길 원했다. 어머니의 꿈이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 아버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꿈은 어머니에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한 채 더 나아갔다. 어린 내가 보기에 어머니는 성취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독선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두 분은 내가 열 살 때 이혼을 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사랑에 빠져서 철모르고 결혼했었다고 말한다. 이혼 후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와 만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살게 된 나도 자연스레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편모슬하에서 자란다는 티는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는 티가 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나에게 엄했고 무조건 자신의 결정에 따르게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폭정을 꼭꼭 참고 살다가 군제대 직후, 친구의 자취방에 얹혀살기로 하고는 어머니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란 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나를 『해담』의 본부장 자리에 앉히려 할 때, 나는 극렬히 저항했다. 나는 이미 『무브먼트』의 부편집장 일로도 바빴다. 어머니의 성취욕을 위해서 어

머니의 부하가 될 이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종병기, 신파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내가 열다섯 살 때 미국행을 포기했던 얘기를 꺼낸 것이다. 어머니는 한 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했었다. 그는 재미교포 사업가였다. 어머니는 그와 재혼하면 미국에서 살아야 했었다. 어머니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이혼 후 남들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한국에서의 삶에 지쳐있었고, 미국에서 바라던 유학을 할 수 있었기에 어머니에게는 이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느긋느긋한 사업가라고 싫어했었다. 그가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내게 사주었는데 내 눈에는 어린애에게 뇌물 바치며 아부 떠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한창 사춘기였던 내가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고, 그러면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주었는데 또 다른 큰 상처를 줄 것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재혼도 미국행도 포기했었다고 했다. 결국 그 신파가 내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내가 독립을 선언할 때 들었던 신파였다. 그리고 그 일 하나만으로 내가 평생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하지도 않았다. 단지 제대 후 한 번도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도 나의 어머니이니 절절한 소원을 딱 한번은 들어주자며 『해담』의 본부장직을 맡았던 것이다.

현지가 나를 쏘아 보며 말했다.

“자기가 양보한 것 만 기억하고, 남이 양보한 건 기억 못한다니까. 정말 고마워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오빠를 평가하니까 기분은 좋네.”

현지는 동굴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낮은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나 금방 웃음 끝이 흐려졌다.

눈발이 가늘어 졌다. 곧 그칠 것 같았다. 그러나 첩첩산중의 공기는 개어가고 있는 날씨를 따라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차분히 가라앉고 있었다. 곧 해가 질 시간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몸에 한기가 올라오자 동굴 밖을 나가 계속 한 자리를 맴돌며 움직였다. 철진이 동굴 밖으로 기어 나오며 말했다.

“길 좀 찾아볼게.”

내가 대답했다.

“곧 해가 질 텐데.”

“어두워지기 전에 올게.”

철진은 동굴입구 옆에 있던 눈을 한 주먹 집어 먹고는 성큼성큼 나무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다. 곧 철진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현지는 동굴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현지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길을 찾으면 산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만약 못 찾으면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죠? 불 피울 거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불을 붙일게 없어.”

“밤에 엄청 추울 텐데, 걱정이네요.”

“밖에 나와서 걸어. 그럼 덜 추울 거야.”

현지는 동굴 밖으로 나와 내가 서있는 반대쪽, 동굴 입구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몇 번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다가 멈춰서는 우두커니 서서 무언가를 훑어지게 보았다.

“조난만 당하지 않았으면 참 멋진 풍경인데요.”

현지의 말에 내 눈에 눈 덮인 풍경이 들어 왔다. 눈에 보이는 모든 능선과 산봉우리, 계곡에 눈이 쌓여 있었다. 모든 나무 가지들에 눈이 한 움큼씩 쌓여 있었다. 한여름의 무성한 잎이 없어도 쌓여있

는 눈으로 나무들은 풍성했다. 현지가 말했다.

“벚꽃 축제 때 봤던 벚꽃 같지 않아요?”

봄, 현지는 갑자기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자고 했다. 그 곳에서 연애 놀이를 하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매년 피는 똑같은 꽃이라 새로울 것도 없는데 뭣 하러 가느냐고 했다. 벚꽃이라면 그 곳에 가지 않아도 길가에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 많은 그 곳을 굳이 가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현지는 원래는 진해 군항제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내가 가기 싫어할 것이 뻔해 여의도로 목표를 바꾸었으니 꼭 가자며 계속 졸라댔다. 분명 길거리에서 보는 벚꽃하고는 느낌이 다를 거라며 나를 꼬였다. 결국 나는 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허락을 했다. 차를 몰고 가려고 열쇠를 집어 들자 현지는 주차하기 힘들다며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했다. 지하철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열차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인 채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내렸다. 사람들에게 밀려 개찰구를 지났고 여의나루역 1번 출구를 빠져 나왔다. 신경 써서 입고 나온 옷이 금방 수세미처럼 구겨졌다. 내가 옷을 털며 짜증을 내자 현지는 주말인데다가 불꽃놀이를 해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도 벚꽃축제에는 처음 와봤는지라 어디로 가서 뭘 봐야 할지를 몰랐다. 그녀는 인파를 따라 가면 될 것 이라며 무턱대고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쫓아갔다. 겨우 여의서로를 찾아 벚꽃을 구경했다. 말이 벚꽃 구경이지 내 눈에는 사람구경 같았다.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현지는 7시 반에 불꽃놀이가 시작할 것이라며 나를 강변가로 끌었다. 자리를 잡고 30분을 기다려 7시 반이 되었으나 불꽃놀이는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불꽃놀이가 8시에 시작한다는 걸 알아냈다. 시간을 잘못 알아 온 것이었다. 결국 30분을 더 기다려 불꽃놀이를



구경했다. 불꽃놀이 하나를 보려고 한 시간이나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던 셈이 되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언제 무엇이 하는지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정도는 미리 조사하고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예상 따위는 없었다. 결국 길을 헤맸고, 인파에 시달렸으며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짜증이 난 나는 강하게 항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야간조명을 받은 벚꽃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있었다. 나의 비난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표정을 일그러트려서 내 의사를 드러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 표정을 읽고 미안한 기색을 드러내면 말로 சொ아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분명 내 표정을 읽었을 것이다. 내가 입을 떼기 전에 그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더 아름답다며 같이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철진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 또다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말했다.

“도저히 길을 못 찾겠다. 우리가 어디쯤에 와있는지도 모르겠어서, 길을 되짚어 가는 것도 힘들다.”

나와 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철진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철진의 눈길은 우리와 마주치지 못하고 땅을 향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어느 방향으로든 걸으면, 저 산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집이 있을 것만 같았다. 오늘 밤 따듯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나라의 땅은 자그마하지 않은가? 그래, 내일 날만 밝기만 하면 곧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밤이 되고 추위가 몸을 파고들자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졌다. 우리는 잠이 들 수 없

었다. 추위를 물리치려고 배낭을 바닥에 깔고 서로의 몸을 붙이고 앉았다. 알뜰게도 밤에는 눈이 그치고 하늘까지 맑게 개어서 초승달이 뜬 것을 볼 수 있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현지는 초코바 한 개와 굴 한 개를 꺼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씩 마셨다. 더 이상 남은 물이 없었다. 현지가 말했다.

“이제 눈을 먹어야겠어요.”

“다행이네, 사방이 눈 천지이니 목말라 죽진 않겠다.”

현지의 말에 나는 신경질 적으로 대꾸했다. 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화장실을 핑계로 동굴 밖을 나갔다. 철진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안그래도 현지가 많이 불안해 할 텐데, 말을 그렇게 하나?”

“누구는 불안하지 않아? 물이 없다는 걸 꼭 그렇게 확인 시켜줘야 돼?”

“그냥 눈을 먹자는 얘기지. 어차피 서로 힘든데 말이라도 좀 좋게 하자.”

철진의 말이 맞았다. 내가 예민해 졌는지 애꿎은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철진은 기회는 이때다 인 듯, 아니면 긴 밤을 보내기 위한 수다 거리를 발견한 듯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굴어. 현지가 늘 너를 먼저 배려해줘서, 현지한테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냐? 너 불어 공부한답시고 빠져 있을 때는 잘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

그때는 『해담』의 본부장 직을 맡기 전이었다. 일주일에 사흘, 세 시간씩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초급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달의 『무브먼트』에 실을 영화감독과의 인터뷰가 취소되는 바람에 마감을 앞두고 대체할 기사거리를 찾느라 일주일 동안 바빴다. 불어공부도 매일 아침 해왔던 운동도 일주일 동안 할 수 없었다. 그 일을 해결하고 겨우 불어를 공부할 시간을 내었기 때문에 그녀와 데이트할 시간을 낼 수 없

었다. 나는 데이트는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어차피 내일도 바쁘고 그 다음날도 바쁠 것 아니냐며 계속 만나자고 즐랐다. 그녀가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내가 불어 공부를 하는 동안 옆에서 책을 읽으라고 했다. 그것도 같이 있는 것이니 데이트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녀는 냉큼 내 집에 와서 음악을 틀어 놓고 책을 읽었다. 나는 그녀도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고 나도 하고 싶던 공부를 했으니, 둘 다 충분히 만족스런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해가 떴다. 밤새 추위를 쫓기 위해 몸을 비비고 제자리 걷기를 했던지라 햇빛이 반가웠다. 우리는 동굴을 나와 햇빛아래서 마지막 남은 초코바 한 개를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요동치는 뱃속을 달랠 수는 없었다. 철진이 먼저 말했다.

“일단 계곡을 찾아보자. 계곡을 따라 가다보면 인가가 나오기 마련이거든.”

나와 현지는 철진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동굴에서 배낭을 꺼내 들고는 무작정 산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현지는 여전히 절룩거리며 걸었다. 내가 현지의 왼쪽 팔을 잡아 부축해 주고 철진은 앞서 나가 길을 잡기로 했다. 철진은 오른손에 핸드폰을 쥘 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앞서 나갔다. 오른쪽 어깨로 현지의 몸무게가 느껴졌다. 어젯밤 현지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냥 모른 채 물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도 나의 성격을 알 테니 대수롭게 여길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이 무거웠다. 어깨를 통해 현지의 몸무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무거운 마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인정 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지에게 사과했다.

“어젯밤에 목말라 죽지 않겠다고 말한 거, 미안해.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오빠 덕분에 인생의 쓴 맛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위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현지는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진난만했던 현지가 말하는 쓴 맛은 아마도 그때 일 같다.

내가 『해담』의 본부장으로 처음 맞게 된 일이 『오페라의 유령』이었다. 나는 이 뮤지컬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 그래야 차기작으로 준비 중인 창작 뮤지컬도 수월하게 기획할 수 있었다. 주요 배역 몇은 흥행을 위해 유명배우를 캐스팅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배역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다. 주인공 크리스틴 역은 더블 캐스팅을 했다. 한 명은 유명 여배우였고 다른 한 명은 공개오디션을 통해 정현지가 맡게 되었다. 현지에게는 첫 주연이었기에 나는 축하해 주었고 그녀는 세상을 정복한 듯 기뻐했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배우들이 캐스팅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말이 나왔다. 크리스틴 역에 쟁쟁한 배우들을 두고 내세울만한 경력도 없고 무명인 정현지가 캐스팅됐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연습 전에 배우들이 단합하지 못한 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더블 캐스팅된 다른 여배우가 유명 배우라는 것도 정현지에게는 불리했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서도 불안하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지도 사람들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나는 한마디로 잘라 대답해 주었다.

“실력으로 입증해!”

어느 날, 강희주란 여배우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캐스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자신 있게 크리스틴 역을 달라고 말했던 배우였다. 회의 때도 그녀가 현지의 배역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녀는 내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더니 바로 현지와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나는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이를 전에 심야영화를 보는 나와 현지를 봤다면 서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별 볼일 없는 정현지가 크리스틴 역을 맡게 된 이유가 그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노리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뜯어먹을 고깃덩어리를 줄 필요가 없었다. 현지와 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주변의 친한 사람 몇 명만 알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강희주에게 친한 친구의 대학교 후배일 뿐이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그래요? 오해했나보네요.'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강희주가 오해를 풀지도 않았고, 입도 가벼운 여자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다. 김과장이 내게 오더니 회사에서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정현지가 배역을 따내기 위해 나를 접대했으며 그 대가로 내가 현지에게 크리스틴 역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임원들이 몰려와 나를 둘러싸고 추궁했다. 그들은 소문이 외부로 새어 나갈까봐 전전긍긍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야 그 여자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강희주에게 했던 해명을 똑같이 임원들에게 했다. 그리고 공개 오디션시, 여주인공의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현지가 캐스팅 됐으며, 결코 내가 사적인 친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소 평론가로서의 나는, 친한 관계인 사람에게도 냉철한 평론을 하기로 유명했었다. 그런 내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했겠느냐며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는 나의 분명하고 강력한 태도가 사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지가 곳곳하게 잘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

러나 얼마 뒤 현지는 동료들과 지내기 힘들다며 『오페라의 유령』을 그만 두었다.

현지의 절룩거림이 심해졌다. 다친 발로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밟으며 걷기가 힘든지 식은땀까지 흘렸다. 나는 현지에게 『오페라의 유령』을 그만 둔 이유가 정말 그 것 뿐이었는지 묻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녀나 나나 다시 입 밖에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떨어지려는 입술을 도로 붙였다. 좁은 길로 들어서자 나는 현지와 몸을 바짝 붙여 걸었다. 길 오른쪽에 절벽이 생기더니 그 밑에 얼어붙은 계곡이 보였다. 철진은 산속에 묻혀 있다가 트인 공간으로 나오자 핸드폰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휘저으며 걸었다. 그의 시선은 핸드폰의 안테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철진이 소리쳤다.

“신호가 잡혀!”

나도 얼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현지를 혼자 세워두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신호가 잡히는 위치를 찾아 다녔다. 안테나 그림의 막대기가 한 개가 떴다. 두 개가 떴다. 방향을 바꾸자 다시 한 개가 사라졌다. 나는 신호가 조금 더 잡히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내 눈도 핸드폰에 고정되었다.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현아, 멈춰!”

땅을 짚으려던 나의 발은 허공을 짚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미 내 몸은 앞으로 기울어졌다. 나를 부르는 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현지의 얼굴도 본 것 같다.

온 몸이 아팠다. 근육 한 가닥 한 가닥, 뼈마디 마디가 내 몸에서

이탈하려고 버둥거리는 것 만 같았다. 머릿속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떠드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너무 시끄러워서 내 정신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겨우 겨우 수백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정신 조각을 하나씩 찾아내어 한 곳에 모았다. 그제야 가느다랗게 눈이 떠졌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사라졌지만 단 하나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현지의 목소리였다. 현지가 얼어붙은 계곡 물가에 서서 어딘가를 향해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무와 바위와 절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다. 눈이 크게 떠지자 현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현지는 반복해서 소리쳤다. 나는 일어나려고 몸에 힘을 주었는데 등이 너무 아팠다. 입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났다. 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머리를 붙잡고 현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철진이?”

그녀는 눈짓으로 내 뒤를 가리켰다. 철진이 누워 있었다.

“오빠 잡으려다가 같이 떨어졌어요.”

나와 철진이 떨어진 곳을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에는 계곡이 굽어지면서 얼어있었고 나머지 삼면은 절벽으로 막혀있었다. 나와 철진은 절벽과 계곡이 만나는 곳에 생긴 작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았다.

“여긴 어떻게 내려 왔어?”

“몇 미터 가니까 내려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계곡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는 다시 계곡을 건너서 오빠가 떨어진 데 까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

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계곡 한복판의 얼음이 깨져서 구멍이 생긴 것이 보였다. 그녀의 바지가 종아리 중간 부분부터 젖어 있었다.

“빠진 거야?”

“네.”

그녀의 대책 없는 성격을 또 발휘했다. 나는 버럭 화를 냈다.

“뭣 하러 여기까지 건너와! 절벽위에서 불려서 대답이 없었으면 그냥 너 혼자 가서, 빨리 인가를 찾아서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냐!”

현지는 더욱 울먹이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인가가 어디 있는 줄 알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면, 그러면? 깨어나지 못해서 얼어 죽으라고요? 깨워는 놓고 가야 할 거 아녜요!”

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됐다는 듯으로 손을 저어보이고 등을 돌려 철진에게 갔다. 나는 철진의 뺨을 때리며 깨웠다. 철진은 신음소리만 가늘게 내며 눈을 뜨지 못했다. 옆에서 현지가 철진을 불렀다.

“선배! 선배!”

철진이 반응이 없자 현지는 철진의 가슴팍을 잡고는 흔들었다. 나는 도끼눈을 뜨고는 현지에게 소리쳤다.

“목뼈라도 다쳤으면 어찌려고 마구 흔들어!”

놀란 현지는 철진의 가슴팍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앞뒤 생각 안 해?”

현지는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았다. 철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힘겹게 말했다.

“자식아, 넌 여기서도 소리를 치니?”

“정신이 들어?”

“물 좀 줘.”



현지는 벌떡 일어나 물을 뜨기 위해 얼음구멍으로 갔다.

“나야 네 성격을 이십년을 겪었지만, 현지는 아니잖아. 너 때문에 주연까지 포기했는데. 잘 좀 해주라니까.”

“잔소리 하는 거 보니까 살만 한가 보구나.”

“다리가 너무 아프다.”

철진이 가리키는 왼쪽 정강이를 만져 보았다. 철진이 비명을 질렀다. 부러진 것 같았다. 아픈 곳이 또 있느냐고 묻자 철진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철진의 머리를 만져 보았다. 손에 피가 묻어났다. 철진도 내 손에 묻어난 피를 보았다. 철진은 피식거리며 말했다.

“몇 바늘 꿰매야 되려나 보다.”

현지가 철진에게 물을 먹이는 동안 나는 핸드폰을 찾아보았다. 내 핸드폰은 내가 누웠던 자리 옆에 떨어져 있었다. 이미 짹짹 금이 갔고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전원을 키려고 두들기고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철진의 핸드폰은 찾을 수 없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쉬이 그칠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이러다 바람까지 불면 끝장이다.”

결국 동굴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철진을 조심스레 등에 업었다. 등이 끊어질 것같이 아팠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쭉 나왔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철진은 내 등에 업혀서도 고통을 참으려고 온 몸에 힘을 주고 어금니를 꽉 물고 있었다. 현지는 먼저 뛰어 가더니 계곡물의 얼음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 지를 확인하고는 내게 건너오라고 했다. 현지는 자신이 온 길을 가르쳐줬다. 현지는 절룩거리며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온 몸에서 땀이 흘렀고 숨이 거칠어 졌다. 철진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내가 산을 탈 줄 안다고 자만한 덕분에 길을 잃었어.”

“그게 너 때문이기만 해?”

“자신감이 넘치는 게 문제라고 네가 늘 그랬었는데, 미안하다. 난 너한테 말썽 많은 친구인 것 같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진은 고통 때문에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았다. ‘약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라고 혼을 내고 싶었지만 등의 통증과 철진의 몸무게를 이겨내며 걷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냥 철진의 말을 받아 주기로 했다. 철진이 다시 읊조렸다.

“너는 나한테 은인 같은 친구야.”

“내가?”

“그래. 20년 동안 친구로 있어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도와줬잖아. 네가 준 돈 덕분에 밥은 굶지 않았다.”

“네가 떼어먹고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 안했으니까.”

“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친구니까”

내가 그렇게 큰돈을 빌려준 건 아니었다. 철진은 당시 무명 배우였다. 수입이 없었던 철진은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것도 힘들어 했다. 옆친 데 뒷친 격으로 생활비를 벌겠다고 퀵서비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까지 했다. 남은 것이 빚 밖에 없었다. 나도 당시에는 작가로 데뷔하기 전이었고 돈벌이가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돈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 물론 어머니 덕도 있었다. 그래서 철진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오백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철진은 일 년에 한 번쯤은 자기 주량의 최대치를 마시고는 그 때 일을 얘기하곤 했다. 벌써 십년이 다 되가는 얘기였다. 철진은 나를 고마운 친구라고 했지만 오백만원 외에는 내가 친구로서 뭔가 해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학생 때, 철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조문을 가지 못했다. 반면 철진은 내가 열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일 밤낮을 내 곁에 있어 줬다. 명절 때만 만나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상주라는 이유로 빈소를 지켜야만 했다. 조문을 오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고 나도 그들을 전혀 몰랐다. 불편하고 무서운 자리였다. 나와 친한 사람은 같이 있어준 철진 밖에 없었다. 철진이 같이 있어준 덕분에 장례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었다. 그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뒤로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철진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철진은 내 등에서 '친구니까'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씩 내리던 눈은 눈발이 굵어지더니 바람까지 섞이기 시작했다. 한 낮인데도 사방이 어둑했다. 나는 철진을 동굴 바닥에 내려놓았다. 눈을 감고 있는 철진은 더 이상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다급한 마음에 나는 무작정 철진의 뺨을 때렸다. 철진은 번뜩 눈을 뜨고는 횡설수설 거렸다. 그러다 정신이 들었는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들면 안 돼. 아무 말이나 시켜.”

“무슨 얘기?”

“아무거나.”

나는 꺼낼 말이 없었다. 철진의 명령을 현지가 대신 이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 현지를 보았다. 현지는 동굴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가슴에 딱 붙이고 앉았다. 현지의 바지에는 얼음이 붙어 있었다. 현지는 온 몸을 떨며 춥다는 말을 반복 하더니 등산화를 벗어버리고 두 손으로 발을 감쌌다.

“아무 말이나 걸어봐.”

철진이 힘없이 응얼거렸다. 춥다는 말을 반복하던 현지의 목소리도 약해져 갔다. 정신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떻게든 말을 걸어 대답을 하게 만들어야 했다.

무슨 말이든 걸어야 했다.

“『오페라의 유령』 왜 그만 뒀어?”

따뜻한 봄날 수업시간에 졸다가 화들짝 깬 사람처럼 현지는 눈을 떴다.

“왜 또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랑 지내기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현지는 예전에 했던 대답을 똑같이 반복 했다.

“이유가 그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랬던 건 없었어?”

“없진 않았죠. 나 때문에 회사에서 오빠 입장이 난처해 졌으니까. 오빠가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게 생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일에 흔들릴 사람으로 보였니?”

그 정도의 루머에 쓰러질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지도 알고 있었다. 현지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였다. 는 이유로도 날 위해서라는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현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추위를 쫓기 위해 시작한 질문이 추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왜? 내가 실력으로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잖아. 너도 그러마 했고.”

“.....”

“실력에 자신이 없었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때려치우고 취직이나 하라고 해서 분노가 일었다며? 나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이를 갈며 연습했다며?”

“자신 없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어? 크리스틴 역은 절호의 기회라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

현지는 필사적으로 추위와 싸우며 토해내듯 대답했다.

“오빠가 사랑하지 않는 다고 했으니까.”

그 대답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해도 무서웠고 비난도 무서웠던 건 사실이야. 오빠한테 피해가 가는 게 싫었던 것도 맞고. 하지만 결정적인 건 오빠가 사랑하지 않는 다고했기 때문이야.”

나는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면 현지의 처신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밀에 부치려던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 도 현지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현지는 조용히 ‘고맙다.’고 대답했었다. 그렇게만 대답했었다. 현지에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줬다.

“널 위해서 거짓말 한 거라고 했잖아.”

“그게 어떻게 널 위해서야? 오빠가 널 정말 사랑했다면, 아무리 나를 위해서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은 못 했을 거야. 오빠의 마음이 진심이였다면 ‘그래, 우리 사귀는 거 맞다.’ 인정하고, 오빠 말대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였어. 아니야? 오빠 널 사랑하지 않은 거야.”

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그 때 상황이 왜 그렇게 돌아간 것인지를 다시 파악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해 졌다. 현지가 왜 나의 의도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현지는 그런 내 표정을 읽은 것 같았다.

“사람들의 오해가 왜 더 커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현지는 강희주가 찾아와 했던 말들을 말해주었다. 내 머릿속에서 현지의 말에 맞추어 그 때의 일들이 짜 맞추어졌다.

강희주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현지에게 먼저 우리의 관계를 물었을 것이다. 현지는 그때 사귀는 사이가 맞다고 인정했다. 강희주는 친절한 표정으로 우리의 연애사를 꼬치꼬치 물었고 현지는 그저 동료의 연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겼다. 강희주가 연애관계 때문에 크리스틴 배역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을 때도 현지는 그저 농담으로만 여겼다. 그리고 사무실을 찾아와 내 답변을 듣고 돌

아간 강희주가 현지에게 내가 우리의 관계를 부인 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지씨 혼자 짝사랑한 거네?'라며 비아냥거렸다. 아마도 강희주가 현지가 나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고 접대해서 배역을 떠낸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것 같다. 현지는 탈의실에서 동료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다. '오지헌은 유명한 평론가에 대학교수인데다가 공연계의 큰 손인 신옥순의 외동아들로 영향력과 재력도 있으니 현지에게는 오지헌을 잡는 것이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느냐'라는 말들이었다. 현지는 그래서 그만 두었다. 내가 우리의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오해가 더 커졌고, 현지는 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눈이 떠졌다.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동굴 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무릎사이에 파묻었던 고개를 들어 철진을 보았다. 고요했다. 철진의 손을 만져 보았다. 차가웠다. 얼른 철진을 일으켜 내 무릎위로 앉히고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손으로 철진의 팔뚝을 비비고 손을 비볐다. 내 뺨을 철진의 목에 대고 비볐다.

"현지야, 이리 와봐 의식을 잃은 거 같아."

현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웅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현지를 다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계속 웅얼거렸다. 현지의 웅얼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 끝 ..... 미안하단 말은 ..... 사랑..... 안 한 거야..... 자기 밖에 ..... 못된..... 아들....."

웅얼거림이 끊어졌다. 현지는 고개가 왼쪽 어깨위로 쓰러졌다.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현지? 현지야?"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 팔을 뻗어 현지를 끌어 당겼다. 현지는 힘없이 내 품으로 끌려 왔다. 얼음이 들러붙은 주현지 바지가 보였

다. 현지의 발에 신겨있는 양말이 젖은 것이 보였다. 나는 현지의 언 발을 비비고 주물렀다. 이 추운 날 현지는 계곡물에 빠졌다. 옷과 신발이 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것을 미처 생각 하지 못했을 까? 철진이 찬 바닥에 누워 있다는 걸 왜 미처 생각 하지 못했을까? 내 바지라도 벗어 뚫으면 현지가 추위에 덜 떨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나는 옷을 세 겹을 입었다. 내 점퍼 한 겹이라고 벗어서 철진에게 깔아 뚫으면, 아니면 두 사람에게 덮어 주었으면, 아니면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서로 껴안고 있었으면 두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의식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대화를 계속 했었어야 했다. 그 간단한 것도 나는 두 사람을 위해 하지 못했다. 내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이 들었다. 내가 두 사람에게 해줘야 될 말들 만 늘어놓았어도 되는 것이었다. 철진에게 고맙단 말을 지금이라도 했으면 됐었다. 철진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내 곁에 있어줬다. 그러나 나는 그가 대학에 두 번째 낙방했을 때도 대학 친구들과 연극을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위로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먼저 내게 괜찮다며 웃음을 보였다. 그의 모친상에도 같이 있어주지 못했다. 그는 내게 어머니를 이해하고 잘 지내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철진은 말했었다, 어린 나에게 엄격하게 대했던 것은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랬는지도 모른다. 현지의 말처럼 내게 소홀하고 자기중심적인 것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수험생인 나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고 늦은 밤에 나를 데려가기 위해 차를 몰고 학원에 왔었다. 하루도 빠지 않았다. 현지는, 현지는 내게 그녀의 말처럼 헌신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기에 나의 까다로운 성격도 이해해줬다. 자신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한가하니까 데

이트 시간도 내게 맞춰준다고 했었다. 그녀 자신도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연습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을 것이 분명했었는데도 말이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동굴 안에 울릴 때 나도 내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비겁한 마음이 있었다. 임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일로 시달리는 것이 싫었다. 아무리 내가 캐스팅이 공정했다고 해명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근 될 것이 뻔했다.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현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남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던 내가 두 사람을 위해 단순한 것조차도 돌봐주지 않았다. 추위를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작은 조치라도 취할 생각조차 못했다. 나는 두 사람을 위해, 두 사람이 잠이 들지 않도록 말을 계속 거는 것도 해내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건네지 못했다.

철진과 현지의 이름은 번갈아 불렀다. 계속해서 불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뺨에서 온기가 사라져 가고 있었다. 두려움은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몸 밖으로 튀어 나왔다. 내 뺨을 흐르는 눈물이 턱 끝에 닿기도 전에 식었다. 나의 입에서 끄억끄억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입김이 터져 나왔다. 입김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칼에 얼음이 되어 엉겨 붙었다. 동굴안의 한기가 우리 세 사람을 얼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한기가 무녀가 만들어내는 한기라면, 무녀가 이 동굴 안에 있다면, 나도 산골마을의 신부처럼 무녀에게 빌고 싶었다. 이 두 사람을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다. 수정안에 든 붉은 것이 신부의 피라면, 그 것은 신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약일 것이다. 그 것은 신랑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약이다. 나는 왼팔로 두 사람을 끌어안고 파르르 떨리는 오른 손으로 수정을 꺼냈다. 수정을 입술에 대고 주문을 외웠다.

“산을 지배하시고 겨울을 지배하시는 무녀님! 무녀의 마음을 지배



한 신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 진심을 바치겠습니다!”

수정을 동굴 바닥에 내려놓고 돌을 하나 집어 들어 수정에 내리쳤다. 부딪히는 충격이 돌을 통해 나의 손바닥뼈로 전해졌다. 다시 한 번 돌을 높이 들어 올려 수정위에 내리쳤다. 충격이 손목과 팔꿈치를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울렸다. 돌을 더 높이 들어 올려 내리쳤다. 충격은 내 척추까지 울렸고, 내 손은 돌이 수정을 비껴 치는 바람에 돌의 거친 표면에 미끄러져 거친 동굴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손바닥과 손날의 피부가 찢어졌다. 손에 피가 흘렀다. 나는 그 손으로 수정의 위치를 바로 잡았다. 돌을 다시 쥐었다. 그리고 더 높이 들어 올려 수정위에 내리쳤다. 수정에서 묘한 진동음이 나더니 균열이 생겼다. 균열을 따라 붉은 연기가 흘러 나왔다. 연기는 동굴 천장에 모여 덩어리를 이루더니 눈처럼 희게 변하며 빛을 냈다. 나는 연기 덩어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뺨과 입술이 붉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우리 세 사람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옅은 미소에 빨려 들어갔다. 연기 덩어리는 여자와 함께 빠르게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다. 연기는 공중에서 작은 덩어리로 나뉘더니 하나씩 하늘위로 솟아 오색의 불꽃이 되어 터졌다. 불꽃은 하늘에서 한 참을 머물다 천천히 사그라졌다. 그리고 앞서 터진 불꽃이 사그라질 때 다음 연기 덩어리가 불꽃이 되어 터졌다. 첫 번째 불꽃이 터졌다. 붉은 빛이었다. 첫 번째 불꽃이 사그라지자 두 번째 불꽃이 터졌다. 녹색 빛이었다. 세 번째 불꽃이 터졌다. 노란 빛이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불꽃이 터졌다. 불꽃은 동굴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동굴 안까지도 빛이 스며들어왔다.

창밖으로 길을 가득 메운 빛나무들이 보인다. 빛나무들은 자신의

꽃봉오리들에게 물을 가득 채워 부풀리더니 봉오리들을 터트렸다. 벚꽃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경쟁적으로 다른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렸다. 간간히 살랑대는 바람에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벚꽃 잎과 싱그러운 색색의 봄꽃들, 그리고 연한 풀내음은 겨우내 얼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화사한 벚꽃은 봄을 시샘하는 차가운 바람 한 번에, 아니면 봄을 부르려는 푸근한 비 한 번에 우르르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꽃이 화사한 만큼 길바닥이 지저분해 졌다고 비로도 슬리지 않는 다고 투덜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마저도 봄의 정취라며 벚꽃은 화사한 미소를 날리며 사람의 마음을 설득한다.

바리스타가 나를 부른다.

“아메리카노 한 잔, 카푸치노 한 잔, 카페모카 한 잔 나왔습니다.”

나는 커피들을 쟁반에 담아 철진과 현지가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진해 균형제 일정표와 행사장이 나온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현지는 손에 들고 있는 펜으로 지도 몇 군데에 표시를 해놓았다. 나는 카푸치노는 철진에게, 카페모카는 현지 앞에 내려놓았다. 그제야 두 사람은 눈을 일정표와 지도에서 눈을 떼다. 내가 말했다.

“아직 못 정했어? 군악대 공연이 오후 7시에 공설운동장에서 하나까 그전에 요트체험하고 해군 사관학교에 들렀다가 가는 걸로 하자.”

현지가 철진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요트를 태워줄까요?”

철진은 깁스를 한 왼쪽 다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마! 탈 정도는 돼!”

현지가 말했다.

“선배가 못 타더라도 난 탈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럼 정한거지?”

철진이 말했다.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제황산 모노레일도 타자.”

현지가 말했다.

“안민도로가 그렇게 멋있대요. 그리로 가요.”

철진이 말했다.

“둘 다 하기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지가 말했다.

“안민도로는 야경이 더 멋있다니까, 공연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철진이 말했다.

“그럼 서울 올라가는 게 너무 늦어져. 그리고 난 목발이라 오래 걸기가 힘들어.”

현지가 말했다.

“휠체어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밀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자며 티격태격했다. 나는 지도를 보며 각 행사장의 위치와 시간을 다시 계산하고는 두 사람을 중재해 주기로 했다.

“군악대 공연이 4시에도 있으니까, 먼저 요트를 타고 해군 사관학교를 들른 다음, 군악대 공연을 보고 제황산에 갔다가 저녁 먹고 안민도로에 가자. 그 때쯤이면 안민도로의 조명이 켜져 있을 거야.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거야. 어때? 시간이란 이동 코스가 딱 맞지 않아? 휠체어는 내가 밀어 줄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내 의견에 동의했다. 내가 다시 말했다.

“자 그럼 커피 들고 움직이자.”

현지는 자신의 커피와 함께 철진의 커피까지 들고 일어났고, 나

는 철진이 목발을 챙겨 일어나는 것을 도와 줬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나의 왼손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고 문을 여는 나의 오른손에는 동굴 안에서 다친 것이 흉터로 남아 있었다. 내 앞을 지나 문을 나서는 현자와 철진의 눈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도 벚꽃이 만개했다.

<끝>

## 여자, 50세에 나를 찾다.

---

### ▪ 표제분

그녀는 방금 뉴욕 출장길을 마치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몇 시간 뒤에는 그녀의 출판기념 파티가 있을 예정이다. 그녀는 어디엔가 전화로 일정을 체크한다. 2미터 전방에서 그녀의 여행 가방을 대신 끌고 들어오는 한 옛지 있는 남성이 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피곤한 듯 해 보이나 검은 선글라스 안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다. 누가 그녀를 50대라고 할까? 그녀는 바빠 걸음을 재촉한다. 공항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태운 차는 공항을 천천히 빠져 나온다. 몸을 비스듬히 뒷 자석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비탈길이 있고 지은 지 이삼십년이 족히 지난 듯한 아파트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고 단지 옆에는 몇 동의 균열이 난 빌딩이 있다. 이 빌딩들은 영세 인쇄업체와 봉제 공장들로 밀집 되어 있는 곳이다.

3층은 살림집, 2층은 교원학원, 1층엔 바다이야기 호프집과 희망 부동산, 순이네 분식집이 있는 상가 건물이 있다. 지하에는 옷을 만드는 봉제공장 M. K 어패럴이 있었다.

작업을 위해 되도록 환하게 형광등을 가득 켜놓았지만 낮에도 흐릿흐릿한 지하.

공장 가득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커다란 원단을 작업하는 작업대 앞에서 키가 작은 사내가 말한다.

"자 이번 오더는 폴라포리스를 원단으로 한 요가 트레이닝 상하셋트 3,000장입니다. 여성만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객층은 루비족을 타킷으로 삼았습니다."

사장 장주앙이다. 그는 샘플과 작업지시서를 샘플 실장에게 넘기면서 너스레를 떠다.

"칼라는 블루 1,000장, 핑크색 1,000장, 퍼플 1,000장해서 모두 3,000장입니다. 죽여주는 비비드 컬러로 뽑을 겁니다."

그녀는 사장님 말씀에 결눈질을 하며 작업지시서를 슬쩍 본 후, 자신이 2인자임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큰 목소리로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은다.

"원단 도착했으니까 빨리 빨리 날라요!"

이윽고 멍석같이 둘둘 말린 원단이 직원들의 어깨에 실려 원단 작업대 옆에 차곡차곡 쌓인다. 샘플사 미쓰 리는 작업지시서를 다시 한 번 훑어보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이번 작업은 쉬울 것 같아.'

사장은 원단수량을 체크 하더니 점심시간에 미팅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벽에 걸려있는 뼈꾸기시계는 십분 전 열두시를 가리킨다. 라디오에서는 오전의 지루함을 가요로 박음질 하고 있다. 노래가사가 흘러 나온다.

"꽉 낀 청바지를 갈아입고 거리를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 갔지만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자 식사하러 가세요."

샘플사 실장 말 한마디에 작업이 멈춰진다.

지하식당은 영세인쇄소가 밀집 돼 있어 한 번에 백명씩 수용할 수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장소다. 식당에 들어서면 매캐한 섬유의 휘발성과 미세 먼지가 느껴진다. 마치 목을 조이는 듯한 불쾌함이다.

'이 식당은 정말 최악이야.'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정수기 옆으로 다가선다. 식권 3,800원짜리와 휴대폰을 파우치에 넣고 늘 불안한 마음에 손에 꼭 쥐고 있다. 긴 정수기 줄을 따라 서 있다.

"김 기사, 어제 술깨나 마셨군."

"납품 날짜 맞추느라 어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니까. 아마 그 셔츠가 제주도 굴 농장 농부가 입고 제초제를 뿌리고 있을걸."

매번 오는 식당이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과 그녀의 시야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마치 처음 본 듯 생경하다. 눈과 귀가 긴장되어 뒷목이 뻗뻗하게 느껴진다.

"나도 물 한 잔 줘. 아이고 목 말라."

낮익은 중성적인 목소리와 둥글고 넓은 어깨, 실직한 허벅지가 그녀의 시선을 잡는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에 설마 했다.

"어? 너 혹시! 장신영?"

"나, 이영재야."

고등학교 동창생 신영이를 만난 것이다. 둘은 줄을 서서 차례가

오자 식판에 반찬을 담는다. 김치찌개, 오뎅볶음, 김, 콩나물 무침 오  
이지가 오늘의 메뉴다.

"고등학교 때 생각나지? 김치를 찹 병에 담아오고 김치 국물이 새  
서 가방 속에 책 옆면이 주황색이 되고 콩자반 국물이 흘러나와서  
먹물처럼 물들고 가방 안에서는 반찬이 냄새가 뒤 섞여서 백반집에  
서 나는 냄새가 났었잖아?"

문득 식판의 담겨진 반찬을 보니 고교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그녀와 신영은 식당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들고 식당  
건물 모퉁이를 돌아 어린이 놀이터로 자리를 옮긴다. 공원에서 녹색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철제 벤치에 앉는다.

따스한 햇살에 지하실에서 녹록해진 몸과 마음이 가을볕에 말린 고  
추마냥 꼬실꼬실 해진다.

그녀와 신영은 고교 졸업 후 처음 만난 것이다. 신영과 그녀는 초.  
중.고를 같이 다닌 막역한 사이였다. 신영은 그녀에게 말한다.

"우리 남편의 아버지가 교무 주임이었잖아. 니가 모르는 사건이  
많아. 공부해서 대학가라니까 공부는 안하고 둘이서 데이트 하는 장  
면이 여러 번 목격되어서 벌서고 얻어맞고. 결국은 졸업 후에 가출  
하여 살림을 차렸잖아."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편 놀라면서도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신영은 생각난 듯한 마디를 더 한다.

"참 있잖아. 나는 애들 아빠 죽고 난 뒤 바로 봉제공장에 시다로  
들어와서 본봉을 탈 수 있는 기술자가 됐어."

그녀는 신영에게 "전화 해." 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원단이 원단 봉에서 휴지처럼 두르르 풀리면서 원단 작업대 위에 무지개떡이 되어 차곡차곡 쌓인다. 그녀에게 샘플사 미쓰리는 먼저 원단 커팅 하는 작업을 보조하고, 다하면 봉제사들 보조를 하라고 지시한다.

"시다할 때 라인 안 끊기게 잘해요."

그녀는 베트남 사람인 네남이의 원단 커팅을 보조해주는데 점심때 우연히 만난 신영이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맴돈다. 반짝 반짝 빛나는 은백향, 감색 교복에 풀을 먹인 하얀 칼라, 단발머리가 귀밑 1cm 이상 내려오면 규율 부장에게 체크 당하여 벌을 섰던 그 시절.

"영재 씨, 똑바로 해야지!."

잔뜩 성이 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잡고 있던 재단 가위가 원단 작업대 밑으로 떨어진다. 성난 소리에 봉제사들의 시선이 온통 그녀에게 쏠린다. 그녀는 얼굴이 활활 타오르며 쥐구멍이 있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은 기분이다. 미쓰리가 여기저기 공정을 돌아보며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왜 보조를 초짜를 들여? 사장님을 이해 할 수 없다니깐!"

손에 들고 있던 초크를 냅다 집어 던져 두 동강이 나고 만다. 애꿎은 초크한테 화풀이를 한다. 미쓰리는 20년 경력을 자랑하듯 늘 말에 힘이 들어있다. 그녀의 말은 이 봉제공장에서 곧 법이다. 그녀는 차츰 차츰 미쓰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는다. 네남에게 슬쩍 말을 건넨다.

"오늘 저녁에 호프집에서 한 잔 어때요?"

네남은 잠시 망설이다 약속을 한다.

"네 그러죠."

네남은 한국에 온지 일 년이 지났다. 베트남에는 부인과 두 딸이 있다. 네남은 베트남 최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후라이드 치킨과 호프 500cc 두 잔을 시키고 마주 앉아 있다. 네남은 먼지로 목이 잠기던 차에 500cc 한 잔을 한 번에 쭉욱 들이킨다. 한국말이 어려운 네남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직접 들은 말은 아닌데 미쓰리는 마흔세 살이고, 결혼 한 번도 안 한 올드 미쓰예요."

보조 고참인 행자 이모가 다른 보조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들은 것이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 회사에 와서 보조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인 2인자가 되었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을 옮기면 안돼요! 어쩌면 사장님하고 얼레리 끌레리 사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술이 한잔 들어가자 네남은 묻지도 않는 말을 술술 풀어낸다. 네남은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비공식 루트로 와서 강제 출국 당할까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옮길 수가 없다고 하며 어느새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본사에서 작업 현황을 체크하러 실장이 왔다. 잔근육이 잘 발달된 팔에는 'TAGHEUER'시계를 차고 스카이블루 슈트에 핑크색 셔츠 브라운색의 TANADY 구두를 신은 그는 사람을 한 눈에 꿰뚫어 볼 듯한 비범한 눈을 가지고 있다.

미쓰리 평상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마치 벌이 꽃 주위를

뱅글뱅글 돌듯 주변을 맴돌며 두 눈에 하트가 보인다. 노처녀의 중심이 보인다. 그녀는 실장에게 침이 마르도록 샘플보다 더 좋은 옷이 만들어질 거라며 요번에 들어온 미싱사가 이 바닥 최고 기술자라고 자랑을 한다.

미쓰리가 네남씨에게 박카스 박스를 들이밀며  
"실장님이 사 오신 거니까 나눠 줘."라고 말한다.

봉제 공장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공장 안에는 식수가 없다. 식사 때에는 국도 없다. 간식은 박카스와 각성제인 커피다. 커피도 석 잔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화장실에 자주 가면 라인의 공정 작업이 끊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영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온다.  
'오늘 저녁 7시에 너와 나 호프에서 만나.'

호프집은 좁은 공간을 살린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올라 갈 때마다 오래된 나무계단이 삐그덕 삐그덕 소리를 내며 신경을 거스른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복층이다. 그 복층 밑 귀퉁이에 자리를 잡는다. 어둡지만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다. 내일이 휴일이라 인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영세 공장에 다니는 이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흑여 목소리가 큰 신영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새어 나갈까 봐 조심스레 주위를 살핀다.

"15년 만에 만났지? 난 졸업하고 막상 가출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라.

친정엄마에게 근근히 도움 받아. 아기를 낳았을 때도 연료비를 못

내서 냉방에서 산적도 있어."

"애기 차차 하기로 하고 안주부터 시킬까?"

그녀는 말하며 A4사이즈에 코팅되어 있는 안주 판을 뚫어져라 보다가 후라이드 치킨, 노가리, 황도와 2000cc를 시킨다.

"맛난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풀자 신영아."

맥주가 먼저 나오자 음료수 잔에 맥주를 반씩 따라서 한 번에 주욱 들이킨다. 컵에는 거품만 남는다. 갈증도 나고 출출하던 차에 맥주에 알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느낌이 온 몸에 전율이 싸하게 느껴진다.

"참! 너 모르지? 애들 아빠가 그러는데 너가 학교 메이 퀸이었는데, 우리 학년이 세 개 반이었잖아. 화훼 장식과, 식품가공학과, 인문과 거기서 말이야. 학생회장, 우리 반 반장 가릴 것 없이 너 좋아하는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었대!"

"그랬어?"그녀가 되묻는다.

"그러니 기호한테 짬을 당하지. 수많은 남학생들이 너를 두고 내기를 했다. 매점에서 빵 사기, 청소 대신 해주기 등. 그 당시에는 남학생들 다반수가 담배를 폼뽕아, 담배 사주기도 하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넌 늘 남학생들의 관심 대상이었지."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도서관 옆 미술부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다. 무언가 집중을 하면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도 모른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빠르게 비운 남녀 학생들은 미술부 교실로 들어온다. 그 중 한 남학생이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다가온다. 그녀에게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건넨다. 그 남학생 책을 펴보라며 그냥 나간다. 책 사이로 뼈죽이 보이는 쪽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 버린다. 그녀의 학교는 삼송종합고등학교다. 그녀의 전공은 식품가공학과다. 말대

로 식품을 가공하는 과다.

봄이 가고 초여름이 깊어 가면 실습시간에 소나무 밭으로 강통 한 개와 나무젓가락을 들고 간다.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면 소나무 사이로 하얀 체육복이 박나무의 박꽃처럼 보인다. 그녀는 혼잣말로 '이 징그러운 송충이가 실습 점수에 포함 되다니. 이것은 부조리다.' 저 만치에서 남학생이 다리를 절며 또 다가온다. 그녀에게 체육복 뒷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건넨다.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쪽지를 받는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다. 그녀는 생각한다.

'피할 수만은 없다.'

'내일 학교를 지나 삼거리를 가면 곰다실 옆 만나당제과 옆에서 방과 후 6시에 만나자.'

두 번째 쪽지를 받은 그녀는 쪽지의 주인공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그녀는 왠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게가 실려 있다.

다섯 평 남짓한 조그만 빵집. 나온 이의 이름은 도기호. 짙은 눈썹에 커다란 쌍거풀과 오뚝한 코, 키는 173CM 정도 잘생긴 얼굴이다. 왼팔에 붕대를 감고 감색교복에 빼딱하게 눌러 쓴 모자, 교복 상의의 단추는 두개 정도 풀어져 있다. 모범생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7왕자 그룹을 탈퇴했어."

붕대 감아 있는 왼쪽 팔을 가리키며

"네가 만약에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내 자신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말을 들은 소심한 그녀는 태연한 척 찰빵을 한 입 베어 물다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 후 그녀는 부탁을 거절한다.

"나는 안들은 걸로 할께."

그 뒤 기호는 이삼일 간격으로 방과 후 버스정류장 앞, 서울역 앞에 있는 국제타자학원, 학교 도서관 등지에 나타난다. 심지어는 그녀의 꿈속에게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그와 졸업 후 결혼을 한 것이다.

7월 장마가 시작되어 장대비가 내린다. 기호는 출산 예정일을 기다리다 어제 친구들과 함께 대전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났다.

그녀는 늦은 아침에 일어나 요 위에 오줌을 지렸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그녀의 전화를 걸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다. 옆집 아주머니께 미리 준비해둔 출산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인근의 가까운 산부인과에 도착했다. 의사는 진찰한 뒤 양수가 터져서 촉진제를 맞아 빨리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아기가 위험 하다고 한다. 주사 맞은 뒤 약 2시간 만에 예쁜 여자 아기를 출산한다. 그녀는 아기를 받아 안은 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 코, 입 손가락이 다섯 개인지 확인한다.

그녀는 서서히 기호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란다. 그녀와 기호는 레코드점을 오픈한다. 만년필과 우표를 함께 취급하는 가게이다. 이 근처에는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매출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었다. 생활은 점차 안정 되어갔다. 그녀는 얼마만의 평안함인지 기억조차 없다. 그녀는 창문에 기대어 즐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막내 올케다.

"아가씨 어제 불광동에서 애 아빠가 웬 여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더라."

그날 밤 기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기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 기호의 동창 종삼이가 가게로 찾아와서는 기호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 한 것은 다 그녀의 탓이라고 나무라고 갔다.

가끔씩 집을 나가서 한동안 소식이 없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녀는 '또 시작인가 보다.'하며 체념한다.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다. 그녀의 딸은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녀는 내심 기호가 집을 나간 것을 즐기고 있나 보다. 두 모녀가 살아가는 데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종삼이 레코드 가게에 나타나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기호가 대전에 있는 부잣집 연상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종삼이 다녀간 이틀 뒤 기호는 7년 만에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동거녀와 생후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연신내에 성심병원 영안실에 빈소가 차려졌다. 그녀는 그 뒤에 레코드 가게를 정리한다.

네남은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려준다. 네남은 공장에서 원단 작업대 위에서 슬리핑백을 둘러쓴 채 잠이 들었다. 해야 할 일이 밀려서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려고 공장에서 잠을 청한 것이다.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사장님과 미쓰리는 네남이 자고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따고 들어왔다. 비틀 비틀 거린다. 네남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이야기를 한다.

"도저히 못 참아."

"자기야 왜 그래?"

두 사람은 쇼룸으로 들어갔다. 성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는 것처럼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 거칠고 난폭한 소리가 들리더니 미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네남은 들킬까봐 화장실도 못가고 오줌보 터지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사장님은 걸보기완 달리 K대 의상과를 나오고 그 일대의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줄부다. 임대료만 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 자기 취향에 맞는 여자를 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싱사, 보조 가릴 것 없이 수 없이 애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쓰리는 작은댁 같고 아예 본처는 그 사실을 알고 가면 종교에 심취해 바깥출입조차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공을 살려 무료함을 달래려고 봉제 공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색하기로는 스크루지보다 더하고 호색으로는 돈 주앙보다 한 수 위다. 미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늘 신경을 곤두세운다. 네남은 그녀에게도 조심하라고 알려준다.

‘사장님은 허여멀건 얼굴에 눈은 유리알처럼 빛나고 여자를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실해 보이는데 다른 비결이 있나 보다.’

영세 봉제 공장사장들은 대개 기술자 한 명을 자기 수족으로 만들어 공장관리를 맡긴다. 미쓰리 역시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사장이 자기 공장에 심어 놓은 수족과 같은 존재이다. 바람기 많은 사장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쓰리가 오히려 더욱 집착한다. 그 것이 두 사람 생각의 차이점이다. 그녀는 미쓰리가 특히 그녀에게 왜 날이 서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곰살맞게 구는데 그녀에게만 인색하다.

15층 DCT KOREA 사무실을 향해 엘리베이터는 고공질주를 하고 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다. 15층에 내리자 사무실 대기실에는 먼저 온 세일즈맨 두 명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실 비서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며 자리에 앉아서 호출의 이유를 생각해보았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세일즈맨이 나온 후



실장님 앞에 막상 다가서니 무릎이 덜덜 떨리고 오금까지 저려온다.

"영재 씨 이리 앉으시고 차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에서 빅빵 5주년 기념 콜레보레이션 티셔츠 제작을 기획했어요. 빅빵 알죠? 그래서 말인데 한 번 해보시겠어요?"

‘빅빵이라니……. 설마 진짜 그 빅빵이란 말인가?’

그녀는 예상치도 못한 제안에 어안이 병병해졌다. 신인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사무실을 나오자 지난 날 겪어 온 과거가 떠오르고 눈물이 봇물 터지듯 쉼 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픈 과거의 흔적을 되도록이면 빨리 기억 속에서 날려 보내려고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는 레코드 가게를 정리하고 그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보세 옷집을 열었다. 비록 중심상권에서는 벗어났어도 이면도로에 삼거리에 있고 건널목이 있어서 지나가는 차들이 그녀의 가게를 한 번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괜찮은 입지조건이었다. 가게를 열고 자리가 제법 잡히자 그녀는 사정상 멈출 수밖에 없었던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위치한 야간대학 산업디자인 과에 입학한 것이다. 낮에는 열심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며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문득 자신이 선택한 전공보다 다른 분야에 적성과 관심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의상 쪽이었다. 비록 작은 옷가게를 경영하였지만 그를 통해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애정이 커진 탓이다.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발견한 후 장래 의류 관련업에 종사하길 희망하였다. 그런 그녀의 관심을 알게 된 지도교수님은 의류회사에서 기획실장을 하고 있는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주었다. 그가 바로 DCT KOREA의 김도위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자기의 꿈을 접고 장인회사에 입사해

있는 실정이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설움을 통감하고 있는 차였다. 부인은 최고의 여대를 나와 뉴욕에서 유학까지 한 재원인데 불행하게도 둘 사이에 아이는 없다. 실장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를 세 번이나 낙방하고 장인 회사에서 하수인 같이 사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삼촌의 소개로 알게 된 그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보였다. 비록 혼자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학업과 육아를 열심히 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선 당장은 본사에서 일하기에는 경험도 일천하니 그녀에게 산하에 있는 봉재공장 MK어패럴에서 경험을 쌓으며 옷에 대한 제작과정과 기술디자인 등을 현장에서 체험해보길 권유하였고 그녀는 승낙했다. 그녀는 공장에서 남들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틈틈이 의류디자인을 해서 김실장에게 보여주곤 했다. 그러기를 5년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공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봉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오늘 오전에 할 일은 여성용 니트의 완성 작업이다. 완성 작업이란 재봉이 된 옷을 뒤집고 실밥을 쪽가위 재봉작업에서 쓰이는 작은 가위로 따거나 다림질하는 기술자에게 가져다 준 후 다림질된 옷을 포장하는 작업이다. 공장을 어슬렁거리며 상황을 살피던 미쓰리는 오늘은 사이즈와 수량파악을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은 후 자신의 자리로 가버렸다.

니트 작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 후 티셔츠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이 작업지시서를 미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한다.

"회사에 새로 영입한 디자이너가 했다는데 이게 반응 좋으면 우리

올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어 잘 만들어봐. 이거 하면 아마 근사한 회식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한국 반응 좋으면 뉴욕, 일본도 나가는 거라구."

그 말을 들은 미쓰리는 근사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에 콧노래를 부르며 샘플 작업을 위해 작업실로 간다.

'이거 볼수록 근사한 디자인일걸. 아주 대박 냄새가 나네. 새로 온 디자이너 작품이라는데 아주 좋아.'

사장은 작업지시서를 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작업지시서 내용은 험렁한 후드 남성용 티셔츠로 파리핑크, 써프그린, 플라임댄스, 마이넬블라우, 블루프랑스, 다섯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며 가슴 상단에 영어로 보색대비로 커다란 이니셜 나열하고 큰 별무늬로 마무리한 근사한 디자인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지개 이미지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명상과 관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무지개에 현대적 의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무지개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녀는 옆에서 힐끗 미쓰리를 보며 이것이 빅빵을 위한 디자인 컨셉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 D .C. T KOREA 김 실장이 공장을 방문했다. 미쓰리는 오늘도 접객담당을 자처하며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김 실장에게 공정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다 문득 실장과 작업을 하던 영재의 눈이 마주쳤다. 실장은 영재를 불러 세운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영입한 디자이너 이영재 씨입니다. 서로들 잘 아시죠?"

미쓰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영재 얼굴을 뻘히 쳐다본다.

"아니 이 디자인을 영재 씨가 했다고요?"

미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 이게 무슨 일이람.’

머릿속에는 앞으로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어떻게 그녀를 대할지 염려하며 근심에 휩싸인다. 문득 자신의 공장생활이 꼬이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녀가 디자인한 빅빵의 티셔츠는 한국에서 기록적인 판매를 보였으며 해외 판매로 이어졌다. 뉴욕 일본매장에서 그녀의 작품이 미친 듯이 팔려나갔다. 감각적이며 대중적 빅빵의 매력을 잘 살린 디자인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디자이너였던 그녀가 주목을 받았으며 그 일을 계기로 딸을 데리고 뉴욕행을 한다.

뉴욕에 도착한 그녀에게 많은 작품 의뢰가 쏟아진다. 그녀에게 플러싱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동생 집에 머물며 일을 해나간다. 열심히 디자인작업을 하던 그녀에게 이제 혼자 된지 오래되었으니 친구 한 명 사겨보라며 남자를 한 명 소개했다 .

한인 교포로 뉴욕 컬럼비아대 산업디자인 교수. 제부의 친한 형으로 창작활동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오십을 넘겨 제 2의 인생을 함께 보낼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던 터였다.

대화역 2번 출구 KINTEX SHOW THE WORLD 정문을 들어서면서 전광판에는 트릭아트 특별전 3 모나리자가 그녀를 축하라도 하듯 미소 짓고 있다.

‘1홀 2층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특급호텔. 세계적인 셰프가 동서양의 요리 150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석 예약을 했다. 힘겹게 살아온 이중섭의 흰 소처럼 2

층으로 두벽두벽 올라간다. 유민상의 7080밴드였는데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사회는 역시 동창회장 원동이 맡아 주었다. 홀 내부로 들어서면 전면에 프로젝트로 그녀의 작품집 TIME의 소개 영상이 나와 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른다. 사랑의 인사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으로 흥겨움이 더하고 있다. 그녀는 식당 앞에 마련된 출판 기념회 탁자에 앉아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디자인을 담은 작품집에 싸인을 해주고 있다. 싸인 받은 사람들은 홀 매니저의 안내로 홀에 셋팅 되어있는 자리에 앉는다. 200석이 다 채워질 무렵 사회가 작가의 약력을 소개하며 작품 소개도 함께 한다. 초등학교 동창인 원동이 마이크를 잡는다. 그는 서빙하는 매니저에게 샴페인을 서브 할 것을 지시한다. 장내에 웨이터들이 각기 테이블을 돌며 비워있는 잔을 채우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잔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원동이는 그녀에게 앞으로 나오라 한다. 앉아있던 그녀가 앞에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아 와줘서 고맙다!"

이 말을 마친 뒤 사회자가 객석에서 신청곡을 받아 밴드가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앞으로 나와 나는 행복한 사람을 먼저 선창한다.

<끝>



은평구립도서관

》 발행인 : 엄무성

》 발행처 : 은평구립도서관

》 발행일 : 2011년 12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 가길 13-84

☎ (02) 385 - 1671 ~ 4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作品集입니다.

